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59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11월 25일(음력 10월 9일) 수요일(주간)

사람 아나운서 이상벽

"남은 열정 불교에 회향"


요즘 "불교와 사진 생각만 한다"는 이상벽씨.

btn '붓다야 붓다야' 진행
방송인 불자 '예불회' 반장

이웃집 아저씨 같은 외모에 구수하고 재치 있는 입담으로 온 국민을 울고 웃게 했던 국민MC 이상벽(63). 4년여의 긴 공백에도 녹슬지 않은 입담으로 부처님 이야기를 온 누리 화장세계로 장엄하기 위해 나섰다. 방송계를 떠나 사진작품 활동에만 몰두하던 그가 btn 불교TV '이상벽 이야기쇼 붓다야 붓다야'로 방송에 복귀했다.

"처음 방송 제안을 받았을 당시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죠. 방송을 관둔 후로 최근에는 사진작품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었는데, 불교방송 출연은 사진작업에도 크게 지장이 없을뿐더러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더욱 맘에 들었습니다."

방송 복귀 소식에 불자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상벽씨의 열의도 대단하다. "부와 명예만을 위해 방송을 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방송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방송인으로, 불자로서 저의 마지막 에너지를 불교계 방송에 쏟고 싶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조병순 PD는 "이상벽씨가 프로그램 관계자 중 가장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녹화당일 날엔 PD와 작가들보다 훨씬 일찍 방송국에 나와 방송을 준비할 정도로 열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긴 공백을 깨고 돌아온 이상벽씨의 머릿속에는 온통 불교와 사진에 대한 생각뿐이다. 방송계를 떠나 사진 작품활동에만 몰두하던 그는 이미 국내와 해외에서 개인전을 열만큼 프로사진작가로 자리매김 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지방에 내려갈 때면 꼭 근처 가까운 사찰로 참배를 하고 옵니다. 삼배라도 하고 나와야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이상벽은 "7남매를 힘들게 키우면서도 열심히 기도하셨던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불교를 믿기로 다짐했다"고 말했다.

"황해도 옹진 출신인 제가 학연도 지연도 없이 지금까지 순탄하게 방송을 하며 사랑 받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부처님 가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쉬다가 불교TV 일을 하게 된 것도 저에겐 큰 복이죠."

이상벽은 10년 동안 방송관계자 불자모임인 '예불회' 반장을 맡으며 방송계에서도 불심을 키워 나갔다. 예불회는 서울 지장사에서 매달 정기 법회를 봉행하며 조용한 신행활동을 펼쳐왔다.

"이제는 카메라 렌즈로 바라본 부처님 세계를 사진에 담아 작은 전시회라도 열고 싶다"는 바람을 밝힌 이상벽씨. 부처님 법음이 쉬인 입담으로 다시금 불자들 곁으로 돌아온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열린 보살만행으로 활구선 모색

움직이는선원 첫 안거 들어가… 도법 스님 등 지리산 팔백리 길 행선

"한국불교의 정체성은 사회 속에서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정주(定住) 수행 만이 있으니 현실감각과 시대정신이 떨어지고 불교적 지향점을 잃게 됐다."

조계종 2200여 수좌들이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 석 달 동안 화두(話頭) 하나로 치열한 정진(精進)에 들어가는 '동안거'(冬安居).

12월 1일 동안거 입제를 기해 좌선의 형식을 떨치고, 보살만행(菩薩萬行)과 운수행각(雲水行脚)의 행선정진을 펼치는 '움직이는 선원'이 첫 안거에 들어간다.

'움직이는 선원'은 실상사와 화엄사 등 지리산 지역 사찰로 구성된 '지리산 성지화 불교연대'의 첫 사업으로 8월 14~18일 창립을 기해 무비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남원 실상사에서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을 개최한 바 있다.

동안거 기간에 맞춰 12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90일간 진행되는 이번 안거에는 도법 스님(인드라망공동체 상임대표, 움직이는선원 열중)을 비롯해 실상사 화림원 대중 스님 10여명이 방부를 들였다.

'움직이는 선원'의 납자들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침묵 속에 지리산 산길을 따라 하루 약 15㎞씩 800리를 걸으며 수행한다. 수행방법은 간화선을 중심으로 하되, 각자 수행법이 있는 경우 자율로 진행된다. 행선이 끝난 저녁에는 대화와 난상토론으로 수행을 진단한다.

산문 출입을 끊는 '안거'의 개념을 뒤집는, 간화선 수행방법을 근본부터 다시 보는 '움직이는 선원'의 이러한 안거방식은 충격을 주는게 사실이다. 아직 전국선원수좌회의 방함록에 등재되지 않는 등 제도화의 과제가 있지만 '움직이는 선원'의 새로운 시도는 생생한 활구선(活口禪)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도법 스님은 "한국불교는 현재 외형적으로는 화려하나 내용적으로는 정체성 등이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요즘 선방 스님들 중에서도 스리랑카나 미얀마 등에 다니며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대승불교는 초기불교를 토대로 자리이타의 이상을 실현하는 사회적 개념이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움직이는 선원'의 안거는 이러한 대승불교의 혼란 속에 다시금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고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움직이는 선원'은 행선뿐만 아니라 지리산 일대의 각 사찰과 연계해 <구사론> 연찬 등 다양한 교육의 자리도 마련한다.

매주 1회 실상사에서 진행되는 <구사론> 연찬 수행을 비롯해 월 2회 화엄사, 쌍계사, 벽송사, 대원사 등 지리산의 주요사찰에서 60여 젊은 스님들이 모여 출가수행을 돌아보는 야단법석도 진행된다. 화엄사와 쌍계사가 기본교육, 실상사가 전문교육, 벽송사가 선학교육 및 실참을 맡아 지리산 일대가 하나의 총림(叢林)을 이룬다.

도법 스님은 "머리로 하는 수행에서 벗어난 전신 수행은 안정되고 조용한 공간에 안주하는 정주 수행에 대한 대안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새로운 수행과 문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움직이는 선원'의 화두는 새 수행풍토와 대중불교운동의 미래, 그 근원을 민족 성지인 지리산에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 '움직이는 선원'은 지리산 전체를 하나의 도량으로 보아 '지리산 총림(叢林)' '지리산 특구'를 만드는 의미도 있다"는 스님은 "지리산 사찰들의 연계는 '지리산 성지화 불교연대'의 믿거름이 돼 무분별한 지리산 개발을 막고 불교적 사회대안을 제시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사부대중의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김교각 스님 1300년만의 귀향

지장보살의 화현으로 추앙받은 김교각 스님이 1300년 만에 귀향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기념관에 봉안됐다. 동국대는 11월 20일 경주캠퍼스 100주년기념관에서 100주년기념관 준공 및 김교각 지장왕보살상 봉안 법요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 상임이사 성관 스님, 정호 스님을 비롯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백상승 경주시장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글 조동섭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개성 영통사서 대각국사 다례재

천태종 · 조불련 합동 봉행… 해빙모드 조성

천태종(총무원장 정산)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심상진, 이하 조불련)은 1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개성 영통사(靈通寺)에서 대각국사 의천(義天 · 1055~1101) 스님 열반 908주기 합동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는 11월 10일 서해교전 이후 열린 첫 종교교류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해빙 분위기 조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례재에는 천태종 총무부장 무원 스님, 사회부장 경천 스님 등 남측 13명, 북측에서는 조불련 정서정 서기장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남북 공동 발원문 등이 채택됐다.

한편, 고려 문종의 네 번째 왕자로 11세 때 출가한 의천 스님은 중국 송나라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귀국해 영통사에 주석하며 천태종을 개창했다. 고려 현종 18년(1027년) 개성 오관산에 세워진 영통사는 16세기 화재로 소실됐으나, 천태종과 북측 조선경제협력위원회가 2002년부터 3년 간 복원불사를 진행해 중창됐다.

천태종과 조불련은 2007년 11월 개성 영통사에서 분단 후 처음으로 대각국사 열반 추모 합동 다례재를 봉행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KCRP 한·중 종교지도자 교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 최근덕)는 11월 19~27일 '한 · 중 종교지도자 교류회'를 열고 중국종교인평화회의(CCRP, 대표단장 부선위) 대표단을 초대했다.

CCRP는 중국의 5대 교단(불교, 도교, 이슬람교, 가톨릭, 개신교) 대표자 20명과 함께 한국의 7대 교단을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금주의 Hot


지홍 스님 14선지식


각묵 스님 18출판


선진 스님 19문화

법구경

저주의 말은
그대에게 되돌아오고,
분노의 말은 고통을 불러온다.

현대불교@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죽비와 목탁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공양주는 보살 아닌 머슴?

금우 화상은 30년 동안 매일 공양시간이 되면 직접 밥통을 들고 승당 앞에서 "보살들이여! 공양하러 오시오"라며 크게 웃고 춤을 추면서 선원의 식사작법의식을 무심의 경지에서 실행하기로 유명했다. 금우 화상은 마조도일 선사의 제자로 당대에 알아주는 선사였지만 문하의 수행자들을 위해서 공양주를 자청했다. 사찰 후원에서의 수행 3년이 선방 10년을 대신한다고도 말할 정도로 공양주 보살의 삶은 참수행의 현장이다. 그래서 신참 몫인 후원의 일을 때로는 조실스님이 자청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수행자들이 불법을 깨닫도록 지극한 정성을 다하며 공양주 보살의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 요즘 전국 사찰에는 공양주 보살 인력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공양주 보살 찾기는 하늘에 별따기보다 힘든 일이고 그나마 고용된 이들도 한 두 달이면 말없이 사찰을 떠나버린다. 이런 심각한 상황은 급기야 조선족 교포 등을 사찰 공양주로 채용하는데 이르렀다. 이는 스님 봉양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 차이와 이들의 음식 맛이 한국과 달라 스님들이 곤욕을 치르는 것은 물론 사찰 음식에도 변종이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공양주가 쉽사리 떠나는 것은 공양주 보살이 '보살'이 아니라 '머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기상해 1년 365일 삼시 세끼 수행식을 해내야 한다. 매달 있는 초하루, 지장재일, 관음재일은 물론 안거기간 동안에는 스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봉양하고, 대중들의 공양까지 책임지고, 때로는 사찰의 행정업무까지 손이 안 가는 일이 없는 고된 일을 누가 쉽게 버티겠는가? 비정규직에 개인의 자유는 만무하고 적은 보시금이 보상의 전부다.

공양주 외에도 인력부족으로 허덕이는 곳은 무수히 많다. 승복 제작자, 법당 불사를 위한 목수, 불상 조성을 위한 조각가 등 승가 보조 인프라의 위기는 나날이 가속화 되고 있다.

포교의 양적 팽창 외에 사각지대를 살피는 안목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불자인력 풀 제도, 비전 전문가집단 확대 등 장단기 플랜으로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것도 중요한 포교의 일환이다. 공양주는 사찰전문요리사로, 승복 제작자는 전통의상 전문가 등으로 기피했던 불교계 사각지대의 업종들이 새 시대 황금알을 낳는 불교계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날을 기대한다.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논산훈련소 연무사 중창 선포

자광 스님 취임 후 첫 군승의 날 "5만 군불자 양성"

"'한국불교의 미래, 군포교'를 위해 '벽돌하나 쌓는다'는 마음의 발로가 절실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은 11월 18일 취임 이후 첫 '군승의날'을 맞아 논산 육군훈련소의 중창불사와 연간 5만 명 이상 정예수계불자 양성 등 군종교구 비전을 제시하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자광 스님은 "11월 27일 제41주년 '군승의 날'을 맞아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중창불사를 선포하고자 한다. 불자장병과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벽돌 하나쌓는다'는 마음으로 후원해 달라"며 사부대중의 동참을 당부했다.

스님은 "현재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는 1500명 규모로 각종 법회에 군장병들이 바깥에 서서 법회에 참가하는 실정이다. 5000명 규모인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시설에 비해서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중창불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호국연무사 중창불사는 2014~15년 각 사단 보충대가 논산훈련소로 집중되는 국방개혁 2020계획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군포교의 선결 과제로 지목돼왔다. 호국연무사 중창불사에 필요한 기금은 130억여 원으로 조계종 연간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큰 액수다. 이에 군종교구는 총무원장 스님을 총재로, 자광 스님을 추진위원장으로 '불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불사모연에 나설 방침이다. '군승의날'에는 사진전 및 불사홍보 행사가 전개되며, 후원약정 등도 진행된다.



자광 스님.

스님은 "종단에서 최대한 돕겠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돼 고민"이라며 "그러나 각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들과 군포교에 뜻이 있는 종단 중진 스님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불사 동참의사를 밝히는 등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군종교구 양대 과제인 5만 장병 정예불자화에 대해 "군포교는 군 장병들이 제대 후 신행생활을 이어가지 않는 것이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수계와 동시에 지역사찰 연계 법회 등이 제대 후에도 이어지는 복합 포교전략을 전개할 것도 시사했다.

이날 스님은 '군승의 날'을 맞은 후배 군승들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스님은 "교구장 부임 후 여러 사업과 행사 등으로 정작 군승들을 잘 챙겨주지 못했다"며 "군승 위상 강화와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일이 든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군포교는 여러 포교분야 중 가장 노력의 성과가 잘 드러나는 분야다. '돈'이라는 물질을 떠나 불법홍포를 위한 '열정'과 '애정'어린 도움이 필요한 때"라며 불자들의 동참을 거듭 당부했다.

제2대 군종교구장이자 민선 1대 군종교구장인 자광 스님은 30년 가까이 군승일선에서 활동해 온 군포교 역사의 산 증인이다. 1957년 화엄사로 입산해 1959년 경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63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1968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종비생 1기 졸업 후 1970년 군승 중위로 임관해 반평생을 군포교 일선에서 활동해 왔다. 스님은 1980년 군승단장으로 기독교 위주 예산 배정을 시정하고 1993년 국방부 군종실장으로 군승법사 정원을 100여 명으로 증원하는 등 군포교 현장에서 다양한 공적을 쌓았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전법사계 수계산림

태고종, 26~27일

태고종은 11월 26~27일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6기 전법사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전법사는 수계산림 후 1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종단에서 활동하게 된다. 태고종은 비구, 비구니, 남 · 여 전법사(남 · 여), 우바새, 우바이의 6부중으로 교단 구성이 돼 있으며 출가하지 않더라도 전법사 과정 후 수행도량에서 대중교화활동을 하는 교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태고종은 이에 앞선 25~26일, 총본산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종단 사미계를 받은 예비승려를 대상으로 구족계 수계산림을 실시한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집행부 '종도신뢰' 최우선

대변인 원담 스님 18일 간담회서 밝혀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 스님(조계종 대변인)이 33대 집행부가 '종도 신뢰'를 최우선으로 활동할 것을 밝혔다.

원담 스님은 11월 18일 교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 역사 속에 종단이 종도들의 의심을 받거나 신뢰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다"며 "종도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제33대 집행부는 투명성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담 스님은 이날 33대 총무원 종책 로드맵과 관련해 신년 기자회견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기해 공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원담 스님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께서 종단중흥의 원력으로 의욕있게 각 부서별 사업보고를 받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연말까지 외부 언론과 접촉 등 대외업무보다 기본업무 파악에 집중해 신년 기자회견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23일 기획실과 호법부 업무보고 및 2010년 주요사업 보고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총무부, 불교문화사업단, 불교신문사, 아름다운동행 등 종단 각 부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노덕현 기자

전통불교문화원장 혜오 스님

감사국장 법귀 · 사무국장 덕조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16일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원장에 혜오 스님을 임명했다. 또 기획실 감사국장 법귀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덕조 스님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혜오 스님에게 "전통불교문화원은 자체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수익사업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혜오 스님은 1980년 청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8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혜산 스님, 본사는 선운사다. 스님은 선운사 참당선원, 월명암 사성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총무원 상임감찰과 호법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중앙종회의원과 부안 개암사 주지를 맡고 있다.

법귀 스님은 1989년 흥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2년 석주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덕륜 스님이고, 본사는 범어사다. 부산 정광사 주지를 지낸 바 있다.

덕조 스님은 1990년 송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은사는 원경 스님, 본사는 용주사다. 스님은 용주사 사회국장을 역임했으며, 가평 청운사 주지를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조계사에 보리수 심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33대 집행부 스님들은 11월 19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보리수를 심으며 불교 중흥의 원력을 다졌다. 이날 자승 스님은 시삽 이후 첫 보리수 열매로 만든 염주를 조계사 부처님과 법전 종정스님에게 올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자승 스님을 비롯한 33대 신임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은 11월 14일 해인사를 찾아 종정 법전 스님에게 집행부 출범 인사를 올렸다. 제33대 집행부의 첫 하례에서 법전 스님은 "모든 스님들이 힘을 합쳐 대화합으로 종단 발전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사진제공=조계종

조계종 종회의원 보궐선거

중앙선관위 1월 8일 직능직 선출

조계종 제33대 집행부 인사가 완료된 가운데 종회의원 출신 스님들의 입각에 따른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는 11월 17일 제14대 중앙종회 직능직 및 직선직 종회의원 보궐선거 일정을 논의했다.

현재 제14대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행정), 교육원장 현응 스님(선원), 기획실장 원담 스님(문화)의 직능직 3석, 총무부장 영담 스님(쌍계사), 호법부장 덕문 스님(화엄사), 재무부장 상운 스님(범어사)의 직선직 3석이 입각으로 공석인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직능직 3석은 전임 의원인 자승 스님, 현응 스님, 원담 스님의 증명으로 1월 8일 보궐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어사는 12월 24일, 쌍계사와 화엄사는 1월 8일경 교구종회를 열고 직선직 의원을 각각 보궐 선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노덕현 기자

The Buddhism Culture Expo 2009
PAL GWAN HOE
www.bba.or.kr

2009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2009 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 참여업체
※ 온라인 쇼핑몰 입점 서비스 제공

팔관회 무료 입장권은 www.bba.or.kr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행사일시
2009. 12. 3(목) ~ 6(일) (4일간)

행사장소
부산 해운대 벡스코(BEXCO) 3홀(전관)

· 주 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 주 관 : 불교문화엑스포「팔관회」조직위원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사)전통문화콘텐츠개발원
· 주관방송 : BTN 불교TV · 협력방송 : BBS 부산불교방송
· 전시내용 : 해인사팔만대장경특별전, 세계불교유물대전,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수상작특별전, 금니사경특별전, 전통등전시관, 불교산업전, 세계화폐전, 부산불교30년특별회고전 外 다양한 전통문화체험부스 운영

· 입 장 료 : 대인 3,000원 / 소인 2,000원
· 무료입장 : 무료입장권 소지자 및 홈페이지 무료입장권 출력자
· 특별무료입장 : 팔관회 개막식이 열리는 12월 3일(목) 정오 12시까지 입장객과 팔관회 법회가 열리는 12월 4일(금) 오후 2시까지 입장객은 특별무료 입장시켜드립니다.
· 경품입장권 : 매표창구에서 유료 혹은 무료입장권을 제시하시면 경품입장권으로 교환해드리며, 12월 6일(일) 폐막식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을 나눠드립니다.

문의전화 051)867.0501~3 www.bba.or.kr · 팩스 : 051) 867.0504 · 주소 : (우)614-856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 400호

주 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주 관 : 팔관회 2009 주관방송 : 불교TV 협력방송 : BBS 부산불교방송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사)전통문화콘텐츠개발원

불기협 창립 20주년 행사 다채

'한국의 대종사' 펴내… 12월 7일 기념행사

교계 14개 언론사 종사자의 모임인 불교기자협회가 창립2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친다.

불교기자협회(회장 안직수, 이하 불기협)는 12월 7일 오후 6시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기념행사를 봉행한다.

4부로 나뉘어 진행될 이날 행사에는 불기협 소속 기자 30인이 대종사 30인의 법문과 수행을 취재해 단행본으로 엮은 <한국의 대종사>(조계종출판사 刊) 봉정식을 비롯해 근현대 고승의 진영을 수채화로 표현한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이어 봉행될 본 시상식에는 조계종 · 태고종 · 진각종 · 관음종 총무원장 스님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스님, 중앙신도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상식에는 임연태 본지 부국장을 비롯해 이학종(미디어붓다), 김선두 · 이준엽(불교신문), 사기순(월간 불광) 등 교계언론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기자에 대한 공로상이 수여된다.

또 선원빈 기자상을 비롯해 우수기사 및 기획기사 등도 시상한다.

한편, <한국의 대종사들>은 11월 24일 경 발간 예정이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 부의장 밀운 스님 등 대종사 27인과 비구니 명사 광우 · 묘엄 · 명성 스님이 전하는 법문과 삶의 지침을 담고 있다.

조동섭 기자

은정학술상 조승미 박사 선정

"여성성에서 보살행 요소 추출" 높이 평가

불교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제8회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 '은정학술상' 수상자에 동국대 불교학부 강사 조승미 박사가 선정됐다.

은정학술상 심사위원회는 조승미 박사의 논문 '여성주의 불교수행론-한국불교 여성의 경험을 통한 탈가부장적 전망'에 대해 "페미니즘 관점에서 불교수행론의 미래와 방향을 모색해 여성성에서 보살행의 요소를 추출했다"고 평가했다.

불교학계의 신진 학자로는 성철선사상연구원 최원섭 전임연구원, 동국대 안필섭 강사가 선정됐다. 은정학술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연구비와 수상패가, 신진학자에게는 각 3백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그밖에도 가산불교문화연구원과 한국불교학회 등 단체 6곳, 불교단체자녀 3명, 대학원생 1명, 대학생 29명, 고등학생 19명, 초 · 중생 36명, 독거노인 18명 등 115명에 대해 1억 5천 2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 수여식은 11월 29일 오후 2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에서 봉행된다.

이상언 기자

社告

2009빛고을불교아카데미

여래의 使者를 만나다-한국불교 포교의 신화를 일구는 스님들

일시:
2009년 10월 27(화)~12월1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광주 동구 KT문화관 대강당

공동주최: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불교TV
현대불교

1강	10/27	신심과 원력의 길	혜인스님(제주 약천사 회주)
2강	11/3	업력의 삶과 원력의 삶	정락스님(前조계종 포교원장)
3강	11/10	도심 속 천년사찰을 깨우다	명진스님(봉은사 주지)
4강	11/17	아름다운 불광공동체	지홍스님(불광사 회주)
5강	11/24	수행,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다	법륜스님(정토회 지도법사)
6강	12/1	시심(詩心)으로 세상을 깨우다	청화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아이들에게 꿈 심는 보시하세요"

아름다운동행 '선재의 선물보내기' 19일 선포… 12월 20일까지 모금


불우한 이웃의 어린이들에게 보낼 '선재의 선물'을 포장하는 아름다운동행 자원봉사자들.

불교에서는 '보시'를 중시한다. 보시란 '베푼다'는 뜻으로, 대승불교의 6바라밀 가운데 첫 번째 항목에 들어간다. 6바라밀은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의 순서이다. 수행의 마지막 목표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보시부터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을까?" 늘 주기위해 고민하는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 조계종 총무원장)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꿈'을 심어주기 위해 색다른 선물을 마련했다.

아름다운동행은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계절에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선물을 준비했다"며 11월 19일 선포식을 갖고 '선재의 선물보내기' 사업을 시작했다.

'선재의 선물보내기'는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된 선물(책, 영양제, 방한용품, 격려카드 등)을 채운 박스를 빈곤가정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전달해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사업 진행방법은 아름다운동행에서 박스와 영양제 · 카드를 제공하고, 후원자들은 도서와 방한용품을 더해서 선물박스를 준비한다. 직접 선물을 전달할 수 없는 참여자는 동행에 후원금을 입금해 대신 선물을 전달할 수도 있다.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사찰, 신행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고 후원자를 늘려 지속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계획적으로 나눔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계는 '무주상보시'라 해서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어내기에 부족했다"며 "아름다운동행이라는 기부재단이 중심축이 되어 불교 계 보시문화를 공론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선재의 선물' 사업을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모금 운동을 벌인다. 그 사이 12월 11일에는 준비된 용품들을 포장 하고, '선물전달 퍼포먼스'를 동지 날인 12월 22일 청계천에서 할 예정이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사랑이 담긴 '선재의 선물'은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이들에게 전달한다.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배 100원 모금 법회, 자비의 등 달기, 한끼 나누기, 자비 연꽃배지 달기 등의 자비나눔 운동을 전개해 9억 8000 여 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02)737-9595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수마트라 3만불 지원

JTS 활동보고회

9월 30일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에 진도 7.6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에 JTS는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과 최기진 팀장을 필두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웨스트 수마트라 주도(Padang)등 최대 피해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펼쳤다.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법륜)는 11월 19일 '수마트라지진피해 활동 보고회'를 열고 "총 지원 금액 약 3만 달러를 8개 지역 1371가구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JTS 박지나 본부장은 보고회에서 "지원이 미비한 현지 주민들에게 쌀 25,880kg, 텐트 300개, 주방기구 308세트를 전달하고 학교와 아이들에게 교복 519벌, 책가방 700개, 학용품세트 1,307세트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호활동으로 인도네시아 서부 지역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JTS는 2010년 1월 부터는 피해 주택 건축지원을 할 예정이다

박선주 기자

"인류는 한 형제 메시지 전해야"

원불교신문 40돌 세미나서 종교역할 점검

다문화 공존시대를 맞이해 종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원불교신문 40주년 및 원음방송 창사 11주년을 기념한 세미나가 11월 18일 용산 하이원빌리지에서 개최됐다.

'다문화 공존시대, 종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불교,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주요 4대 교단이 참여해 다문화 사회의 현실과 대안을 종교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종교의 역할을 점검했다.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은 축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들과 종교 · 문화적 이유로 갈등을 빚는 유럽과 미주 지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종교계가 앞장서서 이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사무총장은 기조강연에서 "역사적으로 보편종교(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등)는 보편적 형제애(사랑, 자비, 인)를 가르쳐왔고 계급과 민족의 차이를 넘어 전파돼 왔다"며 "종교계는 이러한 보편성에 입각해 모든 인류가 한 형제라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옥희 교수(원광대)는 "결혼이민 여성의 가정생활문제는 남편,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문화차이, 언어장벽, 편견과 차별 등으로 집약된다"며 "든든한 종교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다문화 가정이 설 수있다"고 종교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종교계 사례발표 시간에 진원 스님(김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은 "다문화 시대, 이주민 대상 불교활동 현황"을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에게 아내, 며느리, 어머니라는 전통적인 안살림 정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이주여성 자립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나은 기자

고양시, 東大 약학대 유치 나서

17일 동국대 약학대학 유치지원단 발족

2010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약학대 신설 및 정원 승인 발표를 앞두고, 동국대의 약학대학 유치를 위해 고양시 지역사회가 나섰다.

고양시(시장 강현석)와 경기도의회, 고양시의회, 지역 약사회 등 지역단체는 11월 17일 고양시청 상황실에서 '동국대 약학대학 유치지원단'을 발족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유치지원단 공동위원장으로 강현석 고양시장을 비롯해 김영선 의원(일산 서구), 김태원 의원(덕양을), 손범규 의원(덕양 갑), 고양시 · 경기도의회 의장, 고양시 약사회장 등이 추대됐다. 이어 동국대 약대유치 지원을 결의하고 이를 문서화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키로 했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고양시에는 대형병원(5개)이 밀집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 고양시 · 동국대가 함께 추진중인 고양메디클러스터 구축은 대한민국 의료관광산업의 토대를 만들고, 신성장동력산업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철호 고양시의회 의장은 약대 유치지원단 발족취지문에서 "고양시가 위치한 경기 북부 지역은 300만명에 이르는 인구밀집지역이지만 약학대학이 전무하다"며 동국대에 반드시 약대를 우선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연구지원시설 지원 △보건소 임상실습 협약 체결 △우수 학생 장학금 지급 △국책과제 유치 시 대응자금 제공 △제약기업 연구소 세제혜택 △글로벌 제약사 연구소 유치 추진 등 행정 · 재정적 지원 방안까지 내놓는 등 동국대 약대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앞서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7월 천문우 前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약대추진위원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4대강 사업 중단"

광명둘레길 순례



광명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승묵 스님과 회원들, 그리고 광명YMCA회원들을 비롯한 80여명은 11월 16일 '4대강 사업 중단'을 기원하며 안양천변부터 광명 둘레길 순례를 나섰다(사진).

승묵 스님은 "법당에서 하는 기도는 전부가 아니다"며 "이번 순례가 생명의 강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순례는 안양천 기아대교 아래에서 철산대교까지 약 4.6km를 걸으며 4대강사업으로 사라질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이었다.

광명불교환경연대는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광명 둘레를 순례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박선주 기자

혜능선사의 수행처에서
도를 이룬 만행스님 이야기 마음의 달 1 · 2

무문관 7년 수행

6조 혜능, 랍몽대사와의 기연!!
이론은 실천을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돌아갈 길을 단축시켜 걷게 할 뿐이다.
속세의 일에 성심성의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무문관 안에서도 성심성의로 임할 수 있다.
22살에 시작한 7년간의 무문관 장좌불와!!
생과 사를 넘나든 혹독한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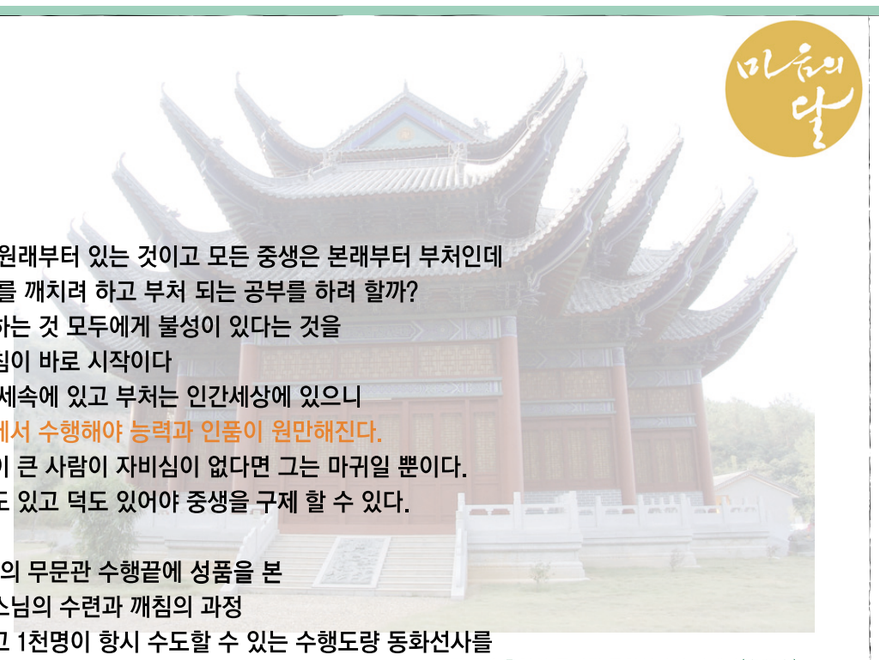




현대불교 11월 4일자 12·13면에 『혜능선사의 보임수행처에 동화선사 우뚝』 이란 제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마음의 달(전2권), 만행스님 지음.
1권(연화생수련) 166쪽, 올칼라(연화생수련 CD포함).
2권(마음닦는법) 334쪽, 각 1만원.
전국 대형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는 원래부터 있는 것이고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인데
왜 도를 깨치려 하고 부처 되는 공부를 하려 할까?
존재하는 것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깨우침이 바로 시작이다
도는 세속에 있고 부처는 인간세상에 있으니
세속에서 수행해야 능력과 인품이 원만해진다.
능력이 큰 사람이 자비심이 없다면 그는 마귀일 뿐이다.
능력도 있고 덕도 있어야 중생을 구제 할 수 있다.

7년간의 무문관 수행끝에 성품을 본
만행스님의 수련과 깨침의 과정
그리고 1천명이 항시 수도할 수 있는 수행도량 동화선사를
창건하게 된 보살행 이야기.

관광객의 출입이 금지된 동화선사의 자재당(自在堂).
3층으로 구성된 선원에는 1000여명이 동시에 참선할 수 있다.
28수를 형상한 28처마가 보인다.

고전의 미래 대유학당
(02) 2249-5630~1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58 서신빌딩 402호

계좌 국민은행 807-21-0290-497 예금주 윤상철
www.daeyou.net www.daeyou.or.kr

대유불교시리즈 ① 옴! 그림으로 푼 천수경
② 예언의 허와 실 ③ 꿈! 마음의 열쇠 ④ 꿈과 마음의 비밀

‘포교는 희망’ ‘불국토 건설 앞장’ 다짐

조계종 제1회 2009 포교결집대회 열려… 1만 사부대중 전법 열정 한 목소리

“포교는 희망입니다!”

성큼 다가온 추위도, 신종 플루도 무서워 달아날 듯한 외침과 열기가 하늘을 찌른다.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전법의 길을 쉴 틈 없이 가고 있는 전국 1만 2000여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1월 14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2009 포교결집대회’를 봉행했다. 1600년 한국불교역사에 한 획을 그은 제1회 포교결집대회는 포교원 산하 포교 · 신도 단체와 신도 전문교육기관, 종립학교 등의 포교주체들이 총집결한 한마당이었다.



1만2000여 사부대중이 <금강경>을 독송하며 부처님 전법선언의 실천을 서원했다.

‘금강경’ 독송으로 시작

삼라만상과 중생을 무명에서 일깨우는 사물(四物)의 장중한 울림이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강홍원)의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펼쳐졌다.

3부로 진행된 행사는 1부 1만여 사대부중의 <금강경>독송, 2부 결집대회, 3부 포교역량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의 집전에 맞춰 사대부중은 한글 <금강경>을 한 시간여 동안 독송했다. 경전이 한 장씩 넘어 갈 때마다 사부대중의 환희심은 넘쳐흐르고 포교 열기는 강당을 가득 메웠다. 조계종의 소의 경전인 <금강경> 대중독송은 과거 민족적 위기와 국난극복을 위해 열렸던 백고좌, 만일염불결사 등의 불교전통 계승과 함께 대중이 함께 하는 새로운 신행문화를 수립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순서였다.

경전 독송에 이어 행사 중간 중간에는 LMB싱어즈, 연합합창단, 뉴트리팝스, 체육인불자 태권도 시범단, 평창 극락사 연꽃유치원 어린이 살사댄스, 가수 한영애, 김국환 축하공연 등이 다채로운 공연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2부 본 행사는 각 단체기 · 대표자 입장, 대회 표어인 ‘포교가 희망입니다’가 적힌 대형 현수막 개막으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했다.

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회의 부회장 밀운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거룩한 포교결집대회를 통해 사부대중은 가슴을 열어 수희동참(隨喜同參)하고 제불보살은 생사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고 있다”며 “수행의 눈이 밝아 마음 속 깊이 있는 부처를 보는 안목과 생사를 끊는 기용(機用)으로 교화의 대기대용(大機大用)을 갖춰 오늘 대회의 참 뜻을 살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혜총 스님은 대회사에서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는 불제자 스스로 삶의 모범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며 “포교결집대회는 모든 포교역량을 결집해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포교에 진력하는 사부대중이 교류, 연대하는 축제의 장이다. 결집대회는 한국불교의 미래와 희망을 위한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축사에서 “한국 불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중심이고 희망인 포교에 큰 힘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집대회를 기폭제로 포교를 위해 일로매진하는 결정심과 분발심을 세워 한국불교의 앞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사부대중을 대표해 ‘2010 포교 실천 결의문’에서 △단체 간 연계와 연대, 전문성과 다양성을 토대로 한 포교활동 △사찰과 함께 각 지역별 포교협력체계 형성으로 지역불교 활성화 △신행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생활과 경제 공동체 형성 △차별과 배타, 편향을 타파하고 이웃과 사회의 소통, 행복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원력상 본지 최정희 초대국장

3부 포교역량 한마당에서는 포교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제21회 포교대상(종정상)을 수상한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 불교초전법륜성지 성역화 불사, 군법사 양성 및 군포교 활동, 20여 종의 경전 번역 및 불서 법보시 운동, 서울대학교 총불교학생회 설립 등 49년간 활발한 계층포교를 펼치며 수계한 불자만도 105만 명에 이른다.

도문 스님은 수상 소감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용성(龍城, 1863~1940) 스님의 활약상과 정신을 강조하며 “용성 스님의 유훈에 따라 심부름만 했을 뿐이다. 상을 받은 것이 부끄럽다”며 “1만 2000불자와 한마음 한 뜻으로 남북통일을 이루고, 60억 인류가 자각각타(自覺覺他)의 삶을 살도록 회향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이날 받은 포교대상 상금 500만원 전액을 그 자리에서 다시 혜총 스님에게 전달했다.

공로상(총무원장상)에는 불교호스피스 회장 지현 스님(어린이포교, 송광사 율주), 부산 설동근 교육감(청소년포교), 한갑진 한진흥업 회장(영상포교),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예술포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원력상에는 월봉사 주지 오심 스님(노인복지), 해군군종실장 강도연 법사(군포교), 포교사단 허정희 통일분과위원장(새터민포교), 연꽃어린이집 정기자 교사(어린이포교), 서울구치소 최숙희 교화위원장(교정교화), 동국대 선학과 황수경 강사(교정교화), 뉴욕붓다TV 곽재환 사장(국제포교), BBS초대석 최정희 前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매체포교), DW로지스틱스 하정선 이사(청소년포교), 대일학원 백명숙 이사장(청소년포교), 방송인 이수근씨(매체포교), 모스크바 한양여행사 지호천 대표(국제포교)가 선정됐다.

그 밖에도 제1회 포교결집대회를 기념해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특별상을 시상했다. 특별상에는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 무용단(대표 초격), 화성 용주사 외국인 한국어학교(대표 정호 스님), 각원사 · 통도사 불교대학,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방송인 김병조, 가수 장미화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날 명예포교사로는 축구선수 박지성씨와 가수 김흥국, 김국환씨, 정성숙 유도심판 등이 선정됐다.

해외에 있는 박지성 선수를 대신해 온 아버지 박성종씨는 “부처님과 전국 스님, 불자님들의 기도 덕분에 박지성 선수가 해외에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며 명예포교사로 위촉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조계종 신도증 홍보대사이자 방송인 이수근은 “1박2일 출연진인 강호동, 이승기, 은지원 등 연예인 중에도 불자들이 많다”며 “지금 조계종 신도증 갱신 기간이다. 불자라면 신도증 하나는 소지 해야한다”고 설명하며 홍보대사의 역할도 톡톡히 했다.

불교여성개발원 한주영 사무처장은 “전체 수상자 24명 가운데 8명이 여성으로 작년에 비하면 여성불자들의 역량이 크게 향상됐음을 보여주는 뜻 깊은 일이다. 무엇보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선정한 108인 6명,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부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이 본원 소속임은 더욱 반갑고 기쁘다”고 전했다.

#참신한 기획 비해 미비한 진행

이번 포교결집대회는 전국 포교 신도단체의 자생적 포교역량강화를 시도하는 대규모 포교결집대회였다. 숨어 있는 불자들을 노출시키고 불자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에는 큰 몫을 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인 반면 무리한 행사진행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김진해 사무총장은 “포교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는 많은 불자들이 한자리에서 한 뜻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최숙희 교화위원장은 “행사의 기획 취지가 매우 좋다. 불자들의 결집력과 자긍심, 소속감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열려야할 행사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사의 진행 시간을 줄이고, 취지를 좀 더 구체화해 불자들의 생활에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프로그램이나 멘트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교사단 전광성 포교사는 “행사가 5시간 가량 지속되면서 제주도, 경남, 전남 등에서 온 불자들은 행사의 앞부분만 참석하는 등 행사의 집중력이 떨어졌다”며 아쉬워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티베트는 부처님이 깃든 나라”

‘차마고도’ 김무관 PD 봉은사서 강의



사진제공=봉은사

“부처님이 현신으로 어딘가에 깃들여 있다면 그곳은 티베트일 것이다.”

‘차마고도(茶馬古道)’ 5000여km는 접근 자체도 쉽게 허용되지 않는 신비에 갇힌 곳이었다. 1년 4개월 생사를 오가며 사라져가는 차마고도의 모습을 담았던 KBS ‘차마고도’ 책임프로듀서 김무관 PD(사진)가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를 찾았다. 11월 18일 ‘차마고도의 삶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강좌에서 김무관 PD는 촬영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말살되는 티베트 불교를 소개했다.

김무관 PD는 “차마고도를 넘는 과정은 치열한 생존투쟁과 같다. 혹독한 추위와 힘든 여정 속에서도 그들은 모포를 개면서도 불경을 외고, 잠들기 전에도 독경을 한다. 티베트는 불교를 떼어놓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나라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자연풍광에는 관세음보살의 현신이 스며들어 있다”고 회고했다.

티베트인들의 일생일대 최대의 소원인 오체투지 순례를 ‘이해되지 않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꼽았다. 김 PD는 “촬영팀 모두 그들이 ‘왜 하는지’ 의문이었다. ‘왜 하느냐’고 물으면 ‘이세상의 모든 생명의 평화를 위해 갑니다’ 라고 대답해 인터뷰용 발언을 한다고 생각했다”며 “중생의 이익을 위한 이들의 오체투지는 언어를 넘어선 세계다. 2200km를 9개월간 오체투지로 이동해 족황사원에서 다시 2개월간 10만 배를 한다. 10만 배를 마친 그들의 얼굴을 보면 ‘저것이 바로 부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무관 PD는 “차마고도는 1~2년 안에 그 모습이 사라질 것이다. 사라지기전 마지막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며 “최근 중국의 티베트 탄압은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서부의 칭하이 성 시닝과 티베트 자치구 라싸를 연결하는 칭짱철도(青藏鐵路)가 들어서면서 차마고도를 비롯한 티베트의 전통은 없어지고 라싸는 지금 다 망가지고 있다. 노래방, 음식점, 룸싸롱 등이 들어서고 활불(活佛)을 대처승으로 만들어 티베트의 정신문화중심인 불교정신 말살에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개인적으로 불교에 대한 애정이 있음을 밝힌 김 PD는 정신문화를 다룬 새로운 다큐도 기획중이다. “현재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목으로 한 다큐를 기획중이다. 서양에서 불교는 종교를 떠나 삶의 중요한 철학으로 일상에 투영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는 미얀마, 스리랑카 등 개인 수행정진과 해탈을 위한 사찰이 많다. 이런 지역을 찾아 때묻지 않은 불교와 깨달음의 정신들을 다룰 계획”이라며 “현재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진행을 유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언 기자

어린이지도자 교육 잇달아 열려

불교레크리에이션협 · 동련 등 개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도경 · 02-738-7860)은 11월 29일 일요일 오전 9시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 보우당에서 ‘희망으로 가는 어린이 포교’를 주제로 제44회 겨울 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강습회에는 패션 페인팅, 봉은사 탐방, 교리퀴즈대회, 겨울철 실내 레크리에이션, 찬불가와 율동레크댄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비는 3만원으로 선착순 100명 접수받는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과 (사)동련(이사장 심산 · 051-864-4665)이 공동주최하는 제48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가 12월 12~13일 경주 사조리조트에서 열린다.

12일에는 정여 스님(동련 이사)이 ‘어린이에게 부처님의 향기를’을, 이유정 지도교사 (오산 대각사 어린이회)가 ‘헬로! 달마 스쿨’을 강의한다. 또한 ‘명상놀이’ ‘부처님의 노래’ 등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경전연구회 경전강좌 안내

출가 스님들만의 공부모임인 불교경전연구회에서 아래와 같이 경전강좌를 개설합니다.

강 주 지리산 칠불사 통광 큰스님
경 전 • 진심직설 • 간화결의론 • 몽산법어
과 정 6 개월
개 강 2009년 12월 9일(수) 오후 3시 첫 강의
모집인원 약간명
장 소 서울 옥수동 미타사 內 대승암
수 강 료 30만원(6개월)

승가의 아름다운 전통을 창조하는 불교경전연구회에 뜻을 함께하는 조계종(비구,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출가자의 아름다운 삶을 실천으로 옮겨 청청승가의 가풍을 확립하는 디딤돌이 됩시다.

계좌번호 우체국 1023608-01-001671 (예금주 : 경전연구회)
문 의 회장 지장스님 : 010-6402-7838 총무 법정스님 010-7963-7070
재무 정담스님 : 016-9669-3917

불교경전연구회 회장 지장 합장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
- 전 통 활 락 법 : 최상의 에너지인 수중화(물 속의 불)로 전신에 경락을 일거에 타통한다.
- 체 절 조 절 법 : 모든 난치병의 뿌리는 뇌에 있다. 체절 조절로 뇌를 다스려 난치병 근치의 신기원을 이룸.
- 전신골격 조정법 :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접촉하여 참나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5분 이내에 뒤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다.
- 전생업장소멸법 : 뇌하수체에 훈습된 아뢰야식의 전생업장을 천연에너지로 강렬하게 태운다.

자동 운기법! 자동 축기법!
수행의 최고 경지는 의념이 배제된 채 저절로 운기와 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인의 경지에 바로 진입한다.

운명의 공식! 개운의 법칙!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로 자타의 운명을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혜안이 열린다. 사업, 취업, 결혼, 부동산매매, 주식거래, 각종 시험 등등 인생 제만사의 각종 문제들을 미리 조정하는 능력자가 된다.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 천도법!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천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최강의 양택 발복법!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수 천년 동안 어렴풋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무료체험신청하세요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설봉 스님 도예 도량 창건

칠곡 토향암 15일 점안법회… 28일 개원

한국 최고의 도예가로 평가 받는 설봉 스님이 경북 칠곡에 도자기 문화관을 건립했다.

설봉 스님은 11월 15일 흙내음 도예마을 토향암에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설봉 스님은 법회에서 "부처님의 영험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점안식처럼 여러분도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향암은 법당과 다도 생활관, 도자기 전시관이 들어선 3층 규모의 본관과 도예 체험객들을 위한 요사채들로 구성돼 있다. 전시관에는 스님이 30여 년간 작업해온 생활도자기들과 작품들을 한 곳에 모아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스님이 직접 빚은 각양각색 도자기는 전통기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천연유약을 개발해 작업한 것들로 개성 있는 작품들이 많다.

스님은 "이번 도자기 문화관 건립을 계기로 불교와 도자기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싶고 도자기 판매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님은 30년 동안 목공예 및 도예작품활동에 매진하며 전시회 수익금을 군과 대학생 포교 및 소년소녀 가장, 위안부 할머니 등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보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토향암 개원식은 11월 28일 열린다. (054)972-5085

손법천 대구지사장

천축사 은행나무 부처님 된다

240년간 호법… 둘레 4m 고목 삼존불로

240여 년간 서울 도봉산 천축사(주지 유방)를 지켜온 은행나무가 목조 삼존불로 환생해 법당에 모셔진다.

둘레 4m, 높이 20m의 이 은행나무는 지난 여름 집중적으로 쏟아진 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지난달 '서울시 지정 보호수'에서 해제됐으며, 11월 15일 고사했다.

천축사 관계자는 "이 은행나무는 중국에서 불교가 전해지면서 함께 들어온 수종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나무의 허리가 3m가 넘으니 나무를 조각해 삼존불로 모시려 한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법무부장관상

의당 정사 대전교도소서



진각종 도탈심인당 주교 의당 정사(옥천불교 연합회 총무)는 11월 16일 대전교도소(소장 김태규)에서 법무부장관상을 받았다(사진).

의당 정사는 교정의 날을 맞아 2000년 교정위원을 시작으로 자매상담, 매주 수요일 정기법회 등 9년간 교정교화 활동을 해온 공로를 인정 받아 수상하게 됐다.

혜철 충청지사장

"수행포교전당 되길"

용주사 대웅전 낙성

경남 창녕군 계성면 소재 대승불교태고종 총본산 용주사(주지 용주)는 11월 15일 종정 법성 성공 스님, 총무원장 화봉 스님, 임원진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낙성식 및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성공 스님은 "오랜 세월 풍파를 막아내고 오늘날 부처님의 커다란 위신력으로 인연을 맺어 삼천대천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을 법당에 모시게 됐다"며 "대작 불사에 동참한 공덕을 회향하는 동시에 용주사가 수행과 포교의 전당으로서 많은 불연을 꽃 피우게 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보살계 수지 등불 얻는 것"

대전사암련 국난극복지원 대승보살계 수계법회 봉행

대전사암연합회(회장 도안)는 11월 14일 대전 보문고에서 국난극복기원 대승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됐다

행사는 전계아사리에 태고종 혜초 종정스님, 갈마아사리에 총무원장 인공 스님, 교수아사리에 태고종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모시고 열렸다.



14일 대전 보문고에서 열린 대승보살계 수계대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이 무릎을 꿇고 보살계 법문을 듣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칠증(七證)으로 참석한 남호 스님(태고종 대전교구 승정), 대전교구 원로위원 원법 스님, 용수 스님, 지철 스님, 대전사암연합회 도안 스님, 연합회 원로위원 성운 스님을 비롯해 정광태 대전사암 신도회장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부는 기념법회로 법륜 스님의 타종으로 시작돼 남산 스님의 경과보고, 발원문, 대전사암연합회 회장 도안 스님의 기원사, 태고종 대전교구 종무원장 월해 스님의 봉행사,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의 치사, 참석 내빈들의 축사, 혜초 종정스님의 법문이 있었다.

혜초 종정스님은 법문에서 "<범망경>에 '중생이 대승보살계를 받으면 모두가 부처의 지위에 들 수가 있고(衆生受佛戒 卽入諸佛位), 대각한 세존과 같이 그 높은 지위에 이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야 모든 불자들이 참된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다(位同大覺已 眞是諸佛子)'라고 말씀하셨다"라며 "보살계를 받는 것은 병든 자가 좋은 약을 얻는 것과 같고 어두움에 있는 자가 밝은 등불을 얻는 것과 같고 도랑을 건너려는 자가 튼튼한 다리를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2부 수계의식은 삼사칠증의 증명으로 향을 사르며 부처님께 귀의하고 수계를 고하는 거향찬을 시작으로 청성, 청사, 계도, 참회, 연비, 수계, 선계상, 발원, 계첩수여, 회향 순으로 여법하게 봉행되어 1000여불자들이 수계를 받았다.

3부는 서거한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한 위패 2000위를 봉안해 선망제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아울러 국태민안과 국난극복 기원을 위한 영산대재가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회 회원들에 의해 봉행됐다.

대전사암연합회 사무총장 남산 스님(태고종 대전교구 총무국장 · 태고사 주지)은 경과보고에서 "대전에서 개최된 국제우주대회와 전국체전을 기념해 봉행하려 했으나 여건이 안 맞아 늦추어 추진하면서 태고종뿐만 아니라 종단을 초월한 대전의 모든 불자들이 다 함께 선연을 맺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전불교사암연합회와 태고종 대전교구가 공동으로 법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불교 콘텐츠 창작 기금 조성

진흥원 · 東大 '대원불교문화기금' 지원 협약 체결

불교 콘텐츠 창작과 학술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조성 · 운영된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과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11월 18일 다보빌딩에서 '대원불교문화기금'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대원불교문화기금'은 진흥원이 종립 동국대의 창조적 학풍 진작을 통해 불교정신을 개발하고 현대적 불교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진흥원은 동국대에 2009~2011년 매년 1억원을 지원하고, 동국대는 진흥원으로부터 2007~2008년 지원 받은 2억원을 '대원불교문화기금'으로 적립 · 합산하게 됐다.



18일 대원불교문화기금 지원협약식을 가진 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왼쪽)과 동국대 오영교 총장.

조성된 기금은 진흥원과 동국대 인사가 참여한 '개원불교문화기금운영위원회'에서 동국대 교원 · 학부 및 대학원생 · 연구원을 대상으로 '대원불교문화상' 선정 작업을 통해 불교학술 · 불교창작 분야에 매년 3500만원씩을 집행할 예정이다.

수상자 선정은 불교학술 분야는 순수 · 응용 불교 관련 저술 및 논문을, 불교창작 분야는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과 다큐멘터리 등을 내용으로 공모 또는 과제 지정 발주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다.

민병천 이사장은 "대원불교문화기금이 불교계 대표 대학인 동국대가 국내외 일류대학이 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진산식 대신 '자비 김장' 나눠

마곡사 원혜 스님 24~25일 쌀도 보시

주지 진산식을 대신한 '자비의 김장' 나눔 행사가 열린다.

공주 마곡사(주지 원혜 · 사진)는 11월 24~25일 경내 대광보전 앞마당에서 '마곡사 자비의 김장 나눔 한마당'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9월 마곡사 생태도량 선포식 때 심어진 자비배추 5000여 포기가 '자비의 김장'으로 담궈져 쌀 1000포(10kg포대)와 함께 관내 소외계층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5일 오후 2시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제33대 총무원 집행부 교역직 스님들과 중앙종회의원, 주호영 특임장관 등이 참석해 자비의 김장 전달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원혜 스님은 "진산식을 지역의 고통을 보듬고 지역과 소통 · 화합하기 위해 희망을 보시하는 나눔 한마당으로 장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자비배추가 경작된 '일일부작 일일불식' 생태농장은 마곡사의 3대지표인 '마음을 밝히는 수행도량', '자연과 하나되는 생태도량', '이웃에 희망을 전하는 나눔도량'을 실천하기 위한 첫 불사로 개설한 자연법석이다.

조동섭 기자

대장경지킴이 김영환 장군 추모

해인사서 14일 봉행… 해인사 폭격 명령 거부



14일 해인사에서 봉행된 김영환 장군 추모식.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팔만대장경을 지킨 故 김영환 장군(1921~1954)을 추모하는 의식이 11월 14일 해인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도 · 군 지역기관장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故 김영환 장군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8년 8월 공군 수뇌부로부터 공비 소탕을 위해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어찌 유동적인 수백명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세계적 보물인 팔만대장경판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겠냐"며 거부해 민족의 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인물이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은해사 · 영천소방서 합동소방훈련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11월 17일 경내 성보박물관 앞에서 영천소방서(서장 이태형)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사찰 문화재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훈련에는 주지 돈관 스님을 비롯해 대중스님, 영천소방서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시청직원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훈련에는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오토바이와 소방차를 동원해 유사시 소방서에서 출동하기 전 자체 초기 화재 진압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이 실시돼 눈길을 끌었다.

돈관 스님은 "이번 훈련을 통해 산불 등 화재의 위험을 다시 상기하고, 지역의 소중한 불교문화재를 다함께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은해사 성보박물관에는 보물 제1604호 금고 및 금고거와 도유형문화재 제342호 후불탱화, 삼장탱화를 비롯한 은해사 본말사 문화재 및 성보 500여 점이 보관돼 있다.

조동섭 기자

난방기구 전문업체 대동 해모로 2010년형 출시!
통신판매신고번호 광진0123호
온풍+강력난방 전기난로 88,000원
난로, 히터, 온풍기의 장점만 살린 전기난로의 결정판 –
연료식 난로의 강력한 화력 + 전기히터의 청결함 + 온풍기의 대류방식을 모두 적용한 웰빙 전기히터!!
국내 생산제품
올 겨울 추위걱정 싹~ 후끈 후끈 합니다.
초강력 난방능력으로 전기료 절약!!
온풍 대류기능
난방비 90% 절감!
1일 8시간 사용시 3kw기준
1,612원 (누진세 미적용)
실내 가습
주전자의 물을 올려두면 가습이 되어 건조하기 쉬운 겨울철 습도유지에 아주 좋습니다.
강력 화력
고구마도 익히는 강력한 화력으로 동급최강의 난방능력!
★ 360도 전방향 입체 난방
★ 공해없는 청정난방 (무취,무연,무소음,무독)
★ 다양한 온도조절로 경제적
★ 동급최고의 난방능력
★ 초절전 설계의 경제난방
★ 첨단 안전장치로 안전난방 (넘어지면 자동으로 꺼짐)
★ 복고풍 디자인의 정겨움
★ 물을 올려 두면 가습기로
★ 무게가 가벼워 이동이 편리
★ 국내산으로 무상1년 A/S보장
49.5m² (15평형)
33m² (10평형)
해모로 온풍형 히터 / 3000
• 모델명 : DD-3000
• 정격소비전력 : 220V/ 2900W
• 규격 : 270×340×630mm
• 무게 : 4.1kg • 난방면적 : 49.5m²
▶현금할인가 : 98,000원
3大만족
강력한 화력!
저렴한 가격!
유지비 절감
통시만족!
해모로 온풍형 히터 / 2000
• 모델명 : DD-2000
• 정격소비전력 : 220V/ 1800W
• 규격 : 270×340×570mm
• 무게 : 3.6kg • 난방면적 : 33m²
▶현금할인가 : 88,000원
품질과 A/S를 확실히 보증합니다.
* 무상A/S 1년 *
제조원 대동해모로
일반형 (온풍기능없음)
16.5m² (5평형)
33m² (10평형)
원통형 히터 / 2000
• 모델명 : 7200/2000 • 난방면적 : 16.5m²
• 정격소비전력 : 220V/ 1800W
• 규격 : 320×320×550mm • 무게 : 3kg
▶현금할인가 : 78,000원
원통형 히터 / 3000
• 모델명 : 7000/3000 • 난방면적 : 33m²
• 정격소비전력 : 220V/ 2900W
• 규격 : 320×320×610mm • 무게 : 3.5kg
▶현금할인가 : 88,000원
가정용 근적외선 웰빙히터
TS-950HS
23.1m² (7평형)
난방각도 270° 좌·우 회전 90° 상·하 높이조절
수직으로 회전가능함
• 정격전압 : AC 220V/60Hz
• 정격소비전력 : 강 : 950W, 약 : 475W
• 제품규격 : - Head : 470×210×180(mm) - Base : Ø380mm(원형)
• 높이 : 최장-1,000mm (250mm 높낮이 조절)
• 제품중량 : 약3.4kg
• 난방면적 : 23.1m² (7평형)
• 타이머 부착
• 전도안전장치 부착 첨단 안전장치로 안전난방 (넘어지면 자동으로 꺼짐, 화재의 위험이 없슴)
• 제조원 : (주)태서전기
▶현금할인가 : 135,000원
주문전화 전국어디서나 080-838-2500
※신용카드 구입 가능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배송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 김남희)
– 농협 302-0079-6034-21
(택배비 2,500원 소비자 부담)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중

해 외 WORLD

왕축, 걀와 로레빠 환생 주장

인도 다르질링 드룩파 산각 초엘링 수도원서 수행

미국의 평범한 11세 학생이었던 한 소년이 인도에서 수 천명의 불교신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스톤에서 태어나고 자란 직메 왕축(Jigme Wangchuk · 11 · 사진)이 그 주인공.

다람살라에서 20년 전에 보스턴으로 옮긴 티베트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보통 아이들처럼 놀지 않고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왕축은 자신이 1250년 티베트에서 죽은 승려인 걀와 로레빠(Galwa Lorepa)라고 주장하며 당시 일들을 설명했던 것.

소년의 부모는 "2년 전부터 왕축이 자신의 전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보통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어린애가 장난으로 이야기하는 줄로만 여겼는데 우리도 가족들과 인도를 성지순례한 뒤로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의 부모는 "인도 마이소르 지방을 여행하던 도중 왕축은 날란다 사원 터에서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졌다가 나와 자신을 걀와 로레빠라고 말하며 전생의 삶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왕축은 삼매 상태에서 지붕에 35피트 규모의 용모양 조형이 있는 티베트의 유명한 불교사원을 묘사하거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찰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를 본 스님들은 소년이 티베트 불교의 주요 4대 학파의 창시자인 걀와 로레빠가 환생 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왕축은 최근 환생한 스님인 린포체가 돼 열 살 난 여동생과 함께 인도 다르질링(Darjeeling) 동부에 있는 드룩파 산각 초엘링(Drukpa Sangag Choeling)수도원에 머물고 있다.

네팔, 부탄, 티베트 등지의 많은 신자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으며 그의 부모도 20년 동안 미국에서 운영하던 레스토랑 사업을 접고 아들이 머물고 있는 사원 근처로 집을 옮겼다.

왕축의 어머니 데첸은 "지난 2년 동안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고생이 매우 심했다. 5개월동안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이제는 적응이 됐다"며 "다르질링으로 가던 중 우리가 아들에게 보스톤으로 돌아가고 싶은지를 물었다. 그는 그의 신자들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한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왕축은 "보스톤에서의 학창 시절이 그리워지겠지만 새로운 역할에 만족한다. 이곳에 머무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나은 기자

"내 죽음이 독립운동 위축시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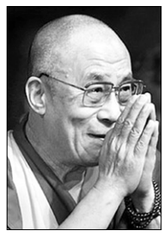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 우려… 오바마 대통령 방중시 티베트 인권 거론

달라이 라마(사진)가 그의 죽음이 티베트인들의 독립운동을 역행하게 할지도 모른다고 발언해 눈길을 끈다.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달라이 라마는 로마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11월 18일 "내가 죽게 되면 티베트인들의 독립운동은 한층 수그러들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다음 세대들이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제5차 티베트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그는 "매우 건강하고 젊은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고 그들은 티베트를 이끌어갈 잠재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확신했다.

한편, 11월 17일 중국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선언하며 중국이 달라이 라마와의 갈등을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티베트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대신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는 중국이 핵 비확산과 군사적 투명성을 약속하는 대가로 오바마 대통령이 '티베트 독립을 반대한다'고 공식 언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의 '티베트' 발언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달라이 라마는 "미 백악관은 지속적으로 티베트를 지지해주고 있다"며 "미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들은 인권 침해 및 폭력 사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여기에도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고 웃음을 보이며 "베이징과 워싱턴간의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다문화 가정 위한 교육지원 시급"

한국다문화센터 '다문화가정 자녀 예비학교 설립 토론회'서 박성현 교수 주장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110만 명이 넘는다. 이 중 결혼 이주민은 16만7000명, 다문화 가정 자녀수는 10만7000여 명으로 조사 됐다. 또,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이탈율이 초등학교 15%, 중학교 35%, 고등학교 60%로 드러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사)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 · 김의정, CMCK)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한 예비학교 설립을 추진키로 해 눈길을 끈다.

CMCK는 11월 17일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예비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참석한 무원 스님(CMCK 정책자문단장), 한나라당 진영 의원(국회다문화포럼), 박성현 교수(서울대) 등 50여 전문가는 "다문화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무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다문화건설을 위해 교육만큼 가장 중요한 도구는 없다"며 "내외국민을 위한 전방위적 교육의 틀을 만들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문화 관련 전문가들이 다문화 가정 자녀 예비학교 설립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른쪽부터 이현정 소장, 최병환 교장, 김외숙 교수, 이재분 연구위원, 홍종명 교수, 이혜진 사무관.

기조연설을 맡은 박성현 교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이탈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미등록이주민(불법체류자)의 자녀와 중도에 편입되는 재혼, 이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미등록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취학이 쉽지 않으며, 중도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도편입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는 한국말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 부적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현실을 볼 때 교육 소외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 수준이 아니라 2등 국민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문화 가정이 신빈곤층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성장기에 형성된 소외의식으로 반사회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교육지원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분 수석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주제발표 '한국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과 과제'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증가로 이주 여성들이 결혼 후 현지 자녀를 한국에 데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중간입국 아동 및 청소년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는 9000여 명, 중도편입된 다문화 가정 자녀는 1만 명을 넘었다. 2만 여 아동 · 청소년들이 교육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다문화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지원을 대안책으로 제시했다.

이 위원이 제시한 대안은 △가족구성원을 함께 고려한 가족단위의 교육지원 △교육지원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접근 등이다.

CMCK 연구소 이현정 소장은 '한국다문화자녀 교육의 문제점과 다문화예비학교 설립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소장은 "레인보우 코리아 합창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중도입국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시급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 33명으로 구성된 합창단 중 2명이 중도입국 자녀인데 한국어가 서툴러 스스로 위축되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소장은 "단적인 예만 봐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이 시급할 때"라며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전진은 교육에 달려있다. 그 교육은 △내국인 자녀를 위한 타문화 이해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한국문화교육 등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토론시간에는 최병환 교장(서울 인헌초), 홍종명 교수(한국외대), 이혜진 사무관(교육과학기술부)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02)737-0467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 열린다

종단협 12월 4일 AW컨벤션센터서

불교계 자비나눔 실천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자리를 갖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 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4일 AW컨벤션센터에서 2009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를 개최한다.

1, 2부로 나뉘어진 이날 행사에서는 불교사회복지포럼, 자비나눔대법회 및 만찬이 펼쳐진다.

제1부 불교사회복지포럼에서는 '불교사회복지와 마음치유'라는 주제로 서광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이 '현대사회의 심리치료와 불교의 마음치료'를, 김재성 교수(서울불교대학원)가 '초기불교 입장에서 본 마음치유-불교사회복지의 가능성 모색'을, 이혜숙 강사(동국대)가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마음치유'를 발표한다.

제2부에는 2009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자비나눔 실천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자비나눔 실천가들을 발굴 · 포상 하는 시간이 진행된다.

본행사인 자비나눔대법회에서는 자비나눔유공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 밖에 부속행사로 △전통문화체험관 △자비나눔사진전 △자비나눔홍보관 △다문화특별관 등 홍보부스를 만들어 불교계 자비나눔기관간 소통을 증진시키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효 봉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울노인복지센터 제3회 맑은세상 한마당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11월 16일 '제3회 맑은세상 한마당'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전통 효(孝)를 계승하고자 특별히 기획된 봉사체험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특식 봉사가 펼쳐졌다.



왼쪽부터 덕현 · 천호 스님이 가섭 스님에게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길상사 주지 덕현 스님, 선원장 천호 스님 및 (사)맑고향기롭게 회원 70여 명이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배식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 덕현 · 천호 스님은 서울노인복지센터에 1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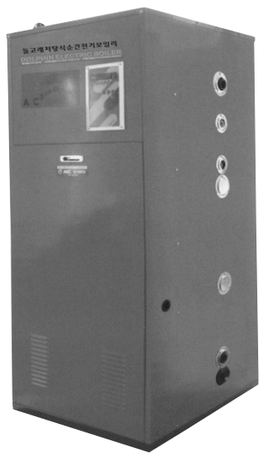
덕현 스님은 "음식 나누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배워가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맑고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이 1994년 발의한 순수시민단체로 봉사활동과 자선활동을 해오고 있다. (02)6911-9555

이나은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지장신앙 응용해 웰빙 웰다잉 등 포교"

東大 불교문화연구원 '지장신앙과 동아시아의 불교교류' 국제세미나… 영담 스님 기조 강연

신라 왕자였던 김교각 스님은 중국 구화산에서 지장의 현신으로 추앙 받으며 지장신앙을 발전시킨 성인이다.

1300여 년이 지난 날, 스님의 고향이던 경주에 한국과 중국 불교인이 하나 돼 김교각 지장보살상을 봉안했다. 이어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지장 신앙을 불교 사회복지 이념으로 재조명해 포교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11월 2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지장신앙과 동아시아의 불교교류'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영담 스님(조계종 총무부장 · 동국대 이사 · 부천 석왕사 주지)이 기조강연한 것을 비롯해, 前 동국대 교수 인환 스님이 '한국 지장신앙의 전개와 그 특질'을, 장총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연구원이 '김교각 법사와 중국 지장신앙의 전개'를, 이케미 쵸류 일본 경도불교대 교수가 '일본의 지장신앙'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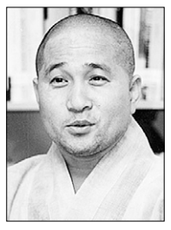
영담 스님은 기조강연 '지장신앙과 동아시아의 불교교류'에서 "지장신앙을 응용해 웰빙과 웰다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포교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스님은 "한 · 중 · 일 동아시아 삼국은 역대로 정치 ·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단한 교류를 통해 동질적인 문화권을 형성했다"며 "김교각 스님을 비롯해 순도 아도 등 구법승의 활약이 있어 민족문화적 차별을 초월한 거대한 동질성을 지니게 된 것"이라 말했다.

동북아 불교신앙의 동질성은 보살에 대한 신앙이다.

스님은 "대승불교를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불교가 보살 신앙을 유행케 했다. 문수 · 보현 · 관음 · 지장 등 4대 보살 신앙 가운데 지장 신앙은 독특한 계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담 스님은 "지장보살은 대원(大願)을 통해 '영원히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몸소 실천하는 구도자의 모습을 한 부처님'으로서의 메타포를 가졌다"며 "김교각 스님이 보인 응화(應化)에서 대중들이 친밀감을 느꼈기 때문에 김교각 스님이 지장왕보살로 추앙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영담 스님(위)과 한중불교 친선의 증표로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봉안된 김교각 지장보살상.

스님은 "지장 신앙의 대부분이 사십구재 등으로 사후 신앙이지만 의례의 주체가 살아있는 권속이라는 점에서 생전 · 사후 신앙을 통틀어 적용된다"며 "지장신앙은 현대적 웰빙과 웰다잉을 두루 꿰뚫는다"고 설명했다.

영담 스님은 "참다운 웰빙은 진정한 웰다잉의 실현에 있다"며 그 경전적 근거로 <지장보살본원경> <대승대집대방광십륜경> <지장시왕경> 등을 들었다.

<대승대집지장십륜경> 서품에는 "만약 여러 유정(有情)이 굶주림에 핍박당하거나 의복, 의약, 침상과 이불 등 생활도구가 모자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원하는 바가 모두 만족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스님은 이 구절이 "절대적 빈곤에 대한 복지를 실현하는 부분"이라며 "지장 신앙과 관련된 경전 곳곳에는 노인복지, 교정복지 등 현대의 사회복지에 응용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영담 스님은 "지장보살 본원사상에 입각한 불교 특유의 복지시스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 불자는 물론 모든 이들에게 이익되도록 함이 지장보살의 본원을 실현하는 길"이라 강조했다.

장총 연구원은 "7월 30일 지장탄신일은 김교각 스님의 성도일 · 열반일 · 탄신일이 7월 30일인 것과 관련 깊다"면서 "지장의 화현으로 불린 김교각 스님이 신라에서 왔다는 것은 중국과 한국인의 불교교류의 계기를 강화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인환 스님은 철원 심원사, 원심원사 석대 지장암 등 국내 지장성지의 영험 사례를 통해 지장신앙에서의 참회 정진의 의미를 살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여섯방향 예배가 불교의 사회참여"

불교학연구회 '깨달음의 사회화' 학술대회서 김재성 교수 주장

불교는 부처님 법에 의지해 깨달음에 이르는 가르침이다. 깨달음은 개인의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중생을 이고득락(離苦得樂)케 한다. 하지만 불교적 수행을 통한 깨달음과 부처님 가르침을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등 사회화의 문제는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고민돼 왔다. 이런 가운데 부처님의 '여섯 방향에 대한 예배'를 통해 부처님 당시부터 강조된 불교의 사회참여를 설명한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11월 14일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김재성 서울불교대학원 대학 교수는 '초기불교의 깨달음과 사회참여'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부처님 당시 깨달음은 대부분 출가자의 몫이었으나 재가자가 깨달은 사례도 있었다"며 "출 · 재가자 구분 없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차별 없는 사회참여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설법의 형태로 사회참여가 이뤄졌다"며 "재가자들에게 법에 의한 정치를 강조하고 대인관계의 상호의무 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부처님은 사회적 인간관계를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남편과 아내, 친구와 동료, 고용주와 고용인, 재가자와 종교지도자 등으로 분류하고 '여섯 방향에 대한 예배'를 설했다.

자식은 부모에게 봉양과 가족전통의 계승, 유산의 가치 있는 승계, 부모의 사후를 위해 보시할 것을 강조했다. 부모는 자식에게 악을 멀리하도록 하고, 선행을 보이며,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자를 찾아 적당한 때에 유산을 물려줄 것을 권했다.

제자들은 스승에게 인사하기 위해 일어나고, 기다리고, 배우려 하고, 섬기려 하고, 배운 기술을 숙련할 것을 설했다. 스승은 제자에게 기초부터 완전하게 가르치고, 추천하며, 모든 방향에서 안전함을 줄 것 등을 강조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하고 얕보지 말며 신뢰를 얻고 권한을 나누고 장신구 등을 사줄 것을, 아내는 남편에게 일을 잘 처리하고 하인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신뢰를 얻고, 가계를 지키며 맡은 모든 일을 숙련되게 열심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1월 14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사회자 미산 스님과 발표자 김재성 교수, 논평자 조준호 교수(왼쪽부터).

친구와 동료에게는 선물과 친절한 말, 약속 등을 지키는 한편, 두렵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돕고 그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등을 강조했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능력에 따른 일을 배당하며 음식과 임금을 지급하고, 아플 때 돌보며 맛있는 것을 나누고, 적당할 때 쉬게 하라고 설했다. 이에 대해 고용인은 고용주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고, 잠든 후에 잠을 자며,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일을 잘 처리할 것 등을 말했다.

김재성 교수는 "인간관계에서 상호 돌봄을 강조한 불교의 가르침은 사회를 결속시키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지침"이라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가 욕망 과잉시대 해법"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주장



박범석 동국대 BK21 연구원(가운데)은 11월 13일 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욕망을 통한 불교의 교육론을 고찰했다.

"불교의 자아관 · 교육관이 욕망 과잉 시대의 해법이다."

박범석 동국대 BK21 연구원은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가 11월 13일 가톨릭대 성심교정에서 '인간의 욕망과 종교교육'을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주제발표 '욕망의 관점에서 본 불교의 교육론'을 통해 "불성의 인간관은 자아실현이 아닌 자아초월을 교육적 은유로 삼는다"면서 "매 순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것을 촉구하는 불교의 자아관과 비우고 버릴 것을 강조하는 불교의 교육관은 현대사회에 많은 시사를 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도원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주제발표 '유가 욕망론의 기본적 특성에 관한 고찰'에서 "유가는 욕망을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며, 그 조절은 자신의 욕망과 사회적 규범과의 완전한 소통 즉 자유를 지향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문정대비 · 보우 스님 재조명

한국불교학회 28일 제50회 전국불교학술대회

숭유억불 하에서 사그러들던 조선불교의 당간을 높이 세운 문정대비와 보우대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선근, 전국불교학술대회장 현종)는 11월 28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조선중기 불교중흥과 그 주역들'을 주제로 제50회 전국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리영자 동국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문정대비의 불교부흥과 한국불교'를 비롯해 고영섭 · 김상현 동국대 교수가 각각 '허응보우의 불교중흥'과 '문정대비의 불교중흥'을 발표한다. 또,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이 '허응당 보우의 정토관'을, 이봉춘 동국대 교수가 '보우의 불교사상과 유 · 불 조화론'에 관해 주제발표한다.

이에 앞서 응용불교 등 분과별 자유주제 발표가 열리며, 학술대회 후에는 정기총회도 개최된다. (02)2260-3130 조동섭 기자

연기론과 다윈 진화론의 만남

미디어붓다 27일 다보원서 학술대회

다윈 탄생 200주년인 올해, 붓다의 연기론과 다윈의 진화론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열린다.

'미디어 붓다'(대표 이학종)는 11월 27일 오후 2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붓다와 다윈의 만남'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이한구 성균관대 교수가 '진화론의 철학'을, 홍성욱 서울대 교수가 '진화론과 기독교, 그리고 그 관계가 불교에 말하는 것'을, 안성두 서울대 교수가 '진화론의 불교적 함의'를,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불교와 다위니즘'을 발표한다.

이학종 대표는 "연기론과 진화론의 비교는 현대 과학과 불교의 소통 문제에서 새로운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진화론을 통해 생물학이 불교로 설명될 때 어떤 논리들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조명하는 등 불교의 과학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9-5557 조동섭 기자

신 입 생 모 집

칭기스칸 대학교
chinggis khaan university
한국캠퍼스 한국승가대학 세계화교육

■ 학사과정(4년제) :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불교학. 경영학과. 교육학과. 철학과.
■ 석사과정(2년제) : 4학기 ■ 박사과정(3년제) : 6학기

특 전(한국불교재단)
1. 전세계 대학 편. 입학 인정.
2. 대학 등록금 저렴함 (타. 대학의 학비절반)
3. 장학금 제도 및 공부시간 여유 있음.

학교법인 김해대학교육원
kaya university life education
불교종립 한국승가대학 불교문화대학원

■ 전문과정(1년제) : 종교학(불교문화학과)
■ 불교문화 강좌내
불교학. 수행학. 종교학. 경전학. 철학.
의식학. 법회학. 교리학. 경영학. 생이학.

문의 : 학무처 0502-788-0808. 055)338-0050. 011-801-8197

일주문



관음종 2009 전국순회법회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12월 10일까지 용승사와 법은사 등 11개 사찰에서 2009년 전국 순회법회를 개최한다.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서 법문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12월 2일 순천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에서 법문한다. (061)755-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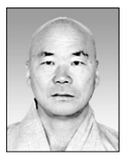
외국인 이주여성 위한 한글교육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매주 일요일 용주사 경내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여성을 위한 무료한글 강좌 및 문화강좌를 진행한다. (031)239-9391



유시민 前 장관 초청 포럼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소장 법안 스님은 11월 24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유시민 前 복지부 장관 초청 포럼을 진행한다. (02)725-4277



논산불교사암연합회장에 추대

논산 관촉사 주지 혜광 스님은 논산불교사암연합회가 11월 10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추대됐다.



정법사 대웅전 낙성법요식

춘천 정법사 주지 밀본 스님는 11월 23일 오전 10시 6년에 걸쳐 건립한 대웅전 낙성 법요식을 봉행한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장에

송석구 가천의과대학 총장(전 동국대 총장)은 11월 16일 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동국대 MBC 플레이비 산학협약

동국대 산학협력단 이종태 단장은 11월 18일 MBC 플레이비(대표이사 최성금)와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재가연대 2009총회 개최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대표는 11월 28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재가연대 2009총회를 개최한다. (02)2278-3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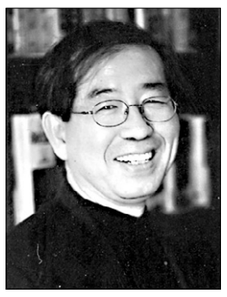


불자가수회 창립19주년 기념공연

대한불자가수회 명국환 회장은 12월 1일 오후1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창립 19주년기념공연과 제8회 가요제를 실시한다. (02)713-2905

"이웃의 희망 · 자유 위해 희생"

제15회 불교인권상에 박원순 · 최상재 씨 수상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이 상을 '채찍질'로 삼아보다 더 인간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는 11월 20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제15회 불교인권상'을 수여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진관 스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타인에게 희망과 자유를 안겨주기 위해 앞장 선 두 분이 있어 우리사회가 희망적이다"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이날 불교인권상을 수상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인권변호사를 거쳐 '참여연대' 창립과 '아름다운가게', '희망과 대안' 설립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시민사회 운동의 대표 인물이다. 또 '봉은사 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불교계 비전 제시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SBS노조위원장과 PD협회 회장, 제5대 공정방송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미디어법' 상정 당시 조계사 1만 배 참배 등을 진행했으며, 불교언론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등 언론자유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시상식에서 박원순 상임이사는 국정원의 민간사찰 혐의 폭로 이후 진행된 소송상황을 들어 "국정원 소송 이후 많은 분들이 '혼자가 아니니 힘내라'고 격려해주시고, 택시비를 받지 않는 기사님도 있었다. 저에게 좌절과 실패로 '하심'하게 해준 이명박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박 상임이사는 이어 "이번 수상을 '채찍질'로 삼아 우리 사회가 희망을 싹틔우도록 더욱 역주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어 최상재 위원장은 "언론자유와 독립을 위해 당연히 나섰을 뿐"이라며 "만인의 목소리를 고르게 전하는 언론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언론인의 사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교인권상은 한 해동안 △민주화 및 인권신장 기여 △국가기관 · 기업 운영 투명화 △기부문화 확산 △언론자유 보호 등에 공로를 세운 사회, 불교계 인사를 대상으로 매년 시상되는 불교계 최고 인권상이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함께 하는 공생공존이 여래의 뜻

13일, 여래종 재단법인 설립기념식 봉행



13일 봉행된 한국불교여래종 재단법인 설립 기념 및 세계불교도총연맹 한국 · 스리랑카 조인식 참석 인사들.

(재)한국불교여래종(총무원장 명안)은 11월 13일 충북 옥천군 옥천명가 연회장에서 '재단법인 설립 기념 및 세계불교도총연맹 한국 · 스리랑카 조인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세계불교도총연맹을 주도하고 있는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을 비롯하여 총무원장 명안 스님, 종정협의회 이사장 지산 스님, 종정협의회 회장 혜철 스님, 불교총연합회 회장 의륜 스님, 스리랑카 아시타 페레 대사, 각 종단 지도자 및 종도 임원 등 8백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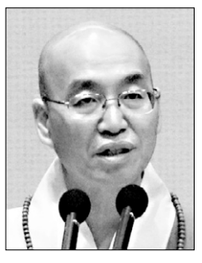
세계불교도총연맹 · 세계불교법왕청 건립은 세계승왕 인왕 스님과 스리랑카 정부가 주도해 20여 개 국이 동참, 설립된다.

조인식에 이어 여래종 재단법인 임원진에 대한 임명장과 감사패 등이 수여됐다. (031)734-3205

노덕현 기자

"통일위한 노력 본격화해야…"

평화재단 5주년 기념식 심포지엄 열어



법륜 스님.

11월 17일 열린 평화재단 창립 5주년 기념식에서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은 재단 설립 목적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화해 · 상생 통일론'을 제시했다.

법륜 스님은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희망'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교감이 결국 통일 이후 한민족의 이익까지 창출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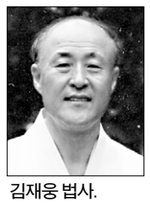
평화재단이 발표한 '화해 · 상생 통일론'은 △이질적인 남북체제의 괴리감 해소 △남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고취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의식 고양 등을 통해 평등한 관계에서 합의통일을 이루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스님은 "골드만삭스 등 해외금융계와 국제사회는 남북 통일로 한국의 국가역량이 현격히 증가할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다"며 통일외교 강력한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박선주 기자

좋은벗 · 좋은인연만들기

김재웅법사 천만원 기탁



김재웅 법사.

"좋은벗들과 좋은인연만들기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청우불교원 이사장 김재웅 법사가 11월 4일 정토회 '좋은벗들'과 불교신행연구원 '좋은인연만들기 모임'에 각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김 법사가 이끄는 금강경독송회의 천도법회 등을 통해 모금된 것이다.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은 "서민경제 위축으로 각 단체들마다 후원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금강경독송회가 10년 동안 꾸준히 후원해 준 것은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강경독송회 관계자는 "본 회는 개인 수행과 더불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며 "소중한 성금이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美 교수, 東大에 백만 달러 기부

시바난탄 교수, '나노-정보기술 연구' 발전 위해



16일 기부약정식을 가진 시바난탄 교수와 동국대 오영교 총장.

동국대가 미국의 한 교수로부터 발전기금 105만 달러를 기부받았다.

미국 일리노이대학 시바난탄 교수(Sivalingam Sivananthan, 벤처기업 EPIR 대표)는 11월 16일 동국대를 방문해 기부약정서에 서명했다. 시바난탄 교수의 105만 달러 기부는 동국대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 강태원 소장과의 인연에서 비롯됐다.

시바난탄 교수는 스리랑카 출신의 미국인으로 일리노이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5년 전부터 EPIR이라는 벤처회사를 설립해 적외선 영상센서와 태양전지 관련 기술 등을 개발해 왔다.

강태원 소장과는 오랜 친구사이로, 지난해에는 강 소장의 연구를 위해 90만 달러의 연구과제를 기업체로부터 소개시켜 주기도 했다. 때문에 시바난탄 교수는 "동국대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의 발전을 위해 쓰여 지길 바라며, 그동안 높은 연구성과를 도출해 온 이 연구센터의 '나노-정보기술 연구'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만 밝혔을 뿐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했다. 시바난탄 교수의 기부와 동시에 강태원 소장도 매월 급여 중 150만 원 씩을 1년 동안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동국대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는 과학기술부 선정 우수연구센터(SRC)로 1999년부터 9년간 관련 연구를 수행해왔다. 2008년부터 SRC 후속사업인 도약과제와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을 수행하며 500여 편의 SCI 논문발표, 3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기관이다.

조동섭 기자

공불련 임원단, 총무원 예방

18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서 축하 · 다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공불련 하복동 회장.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하복동 회장(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1월 18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하복동 회장은 "2010년 공불련 창립 10주년을 맞아 신행 프로그램 개설, 조직 정비, 사회 봉사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공무원 불자 회원 1만 여명이 바쁜 국정 업무 중에도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김진해 공불련 사무총장(감사원), 고기복 청불회 간사, 김태진 국가정보원 불자회장(단장), 류영창 국토해양부 불자회장(한강홍수통제소장) 등이 함께했다.

이상언 기자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 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신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는 벌어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콧물이 주루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콧물이 아니라 몰핀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分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감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다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몇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 인데, 나의 의식이 생생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염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자고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 수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어라 2만원, 매선침 20만원 증정)
■ **전 수 과 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 4차 : 환신 받고 / · 5차 : 선단제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빙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 수 일 시**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토요일 오전 종강
■ **저 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라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영계의 메세지 –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천의선도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하라는 천명을 받고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암 환자 자연치유법 특별상담

삼봉 (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세계문화유산 지정후
영산재 첫 해외공연



공연이 끝난 후 관객이 일운 스님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열린 영산재 공연 모습.

영산재, 캐나다 참전용사 넋을 달래다

리멤브런스데이에 한국전참전용사묘역서 영가 위로
캐나다 한국무용연구회 초청… 바라춤 주제 워크숍도

2009년 9월 30일. 아랍에미리트 야부다비에서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가 열렸다. 그리고 유네스코는 우리의 중요무형문화재 50호인 영산재를 강강술래 등과 함께 세계무형유산으로 채택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의식인 영산재가 우리의 것을 넘어 세계의 문화유산이 된 것이다.

그리고 2009년 11월 11일, 영산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까지 40여 개국에서 순회공연을 펼치는 등 영산재 알리기에 힘써온 태고종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회장 일운)가 세계문화유산이 된 영산재를 본격적으로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해외공연에 나섰다. 그 첫 번째 공연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다.

11월 11일, 캐나다의 현충일인 리멤브런스데이(Remembrance day). 캐나다 토론토 브람톤 소재 캐나다한국전쟁참전용사묘역에서는 사상 최초로 <반야심경>과 영산재보존회장 일운 스님의 발원문 낭독이 이어지고 있었다. 영산재보존회 스님 15명이 공연에 앞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캐나다 500여 한국참전용사 영가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이 공식적으로 묘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공연은 영산재를 통해 한국전에 참전했던 캐나다 참전용사들의 영령을 추모하고 아울러 세계문화유산이 된 영산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캐나다 한국무용연구회(회장 김미영)의 초청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88 올림픽 앰블럼이 걸려있는 캐나다 토론토한인회관. 추모행사를 마친 공연팀이 도착했다. 보존회 회장인 일운 스님이 마지막으로 무대를 점검한다. 전날 청산 스님을 비롯한 무대 진행 팀은 한국에서 모셔온 괘불을 모셔 걸고, 금전과 은전, 번, 지화, 도량장엄 등 손수 무대를 만들었다. 한 쪽에서 수민 스님이 정성껏 가사를 다리고 있고, 함께 공연을 펼칠 캐나다 한국무용연구회 회원들과 김미영 회장이 합류했다. 최종 리허설을 마친 후 일운 스님과 한국무용연구회 회원들은 공연에 앞서 영산재 의식무인 바라춤을 주제로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홍지인 주 캐나다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를 비롯한 교민들과 한국전참전용사와 현지인 등 500 여명의 시선이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영산재의 막이 올랐다. 핀조명이 올림목탁소리를 따라 무대로 향한다. 도량석이 끝나자 살풀이춤이 이어진다. 신중작법과 천수바라, 향화게, 나비춤이 이어지자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진다. 회심곡과 오고무가 이어지며 공연은 무르익는다. 더욱 힘찬 박수가 쏟아지고 500여 명의 관객은 눈앞에서 부처님 당시 영산회상의 한 장면인 '영산재'를 보게 된다.

회향을 끝으로 2시간여의 영산재 토론토 공연이 무사히 끝이 났다. 공연을 마친 보존회 스님들과 캐나다 한국무용연구회 회원들은 공연을 위해 흘린 땀과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며 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누었고, 공연을 찾은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공연 팀을 배웅했다.

공연을 마친 보존회 회장 일운 스님은 "영산재가 세계유산임을 알리기 위한 첫 공연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기쁘다"며, 아울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공연과 홍보를 통해 더욱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영산재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다"고 말했다.



한국전 참전용사와 교민들이 영산재를 관람하고 있다.

이번 공연을 성사시킨 캐나다 한국무용연구회 김미영 회장은 "영산재 공연을 통해 이곳 캐나다에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59년 전 한국전쟁의 아픔을 위로하는 계기가 됐다"며 "세계유산이 된 우리의 영산재가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영산재는 이제 세계의 문화유산이 됐다. 이번 캐나다 공연을 시작으로 더 많은 공연을 기대하며, 우리 문화와 우리 불교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길 기원해 본다.

캐나다 토론토/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C759-102009.11.2511:38AM페이지1(1,1)

원효성사 '화쟁'으로 화합이끈다

19일, 화쟁문화시민포럼 창립기념대회 갖고 본격 출범

원효성사의 '화쟁사상'에서 분열과 분쟁으로 치닫는 국론의 화해와 통합의 해법을 찾으려는 시민들의 모임이 출범했다.

화쟁문화시민포럼(이사장 법산, 이하 포럼)은 11월 19일 오후 6시 창립기념대회를 갖고 본격 출범했다.

포럼은 원효성사의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을 기초로 우리 사회의 모든 대립들을 화해와 평화로 되돌리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종교 · 교육 · 문화 · 예술계 200여 지식인들과 뜻을 모아 9월 4일 창립총회를 거쳐 11월 19일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이사장 법산 스님(前 신라대 총장, 원효총림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오늘날의 지역 · 이념 · 계층 · 노사 등의 대립과 갈등은 우리 사회를 가장 불행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인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 바로 원효성사의 화쟁사상"이라며 "이 화쟁사상이 결국 신라의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해 삼국통일이라는 성업을 이룰 수 있었던 만큼, 오늘에 되살려 온 국민을 하나로 화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화쟁문화시민포럼 창립대회에서 대회사를 하는 이사장 법산 스님(원내).

창립기념대회는 개회사, 경과보고, 창립취지문 낭독, 강령 선포, 대회사, 축사, 주요 인사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에는 '원효의 화쟁사상과 시민화합'을 주제로 김상현 동국대 교수의 특별강연이 마련돼 포럼의 사상적 근거 및 행동강령이 될 원효성사의 화쟁사상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포럼은 원효성사의 화쟁사상을 근본이념으로 △모든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을 화해로 계도 △모든 시민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 △국가와 사회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 △대승불교의 정신을 근본으로 하되 모든 종교의 평화사상을 존중 △환경을 존중하며 봉사정신으로 활동함을 기본 강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사장 법산 스님, 대각사 조실 경우 스님, 부산시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화산 스님, 부산종교평화회의장 정각 스님 및 허남식 부산시장, 제종모 부산시의회의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향후, 포럼은 2010년부터 '화쟁문화 시민대학'을 열어 각계각층의 전문 교수진을 구성해 시민들에게 화쟁의식을 고취시키고 그 실천으로 봉사단을 운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창립 1주년에는 화쟁문화 '평화대상'과 '문화대상'을 제정해 평화와 문화를 받들고 있다는 신념의 증표로 시상하기로 했다. (051)365-0524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선암사 개산 1334주년 선암문예대제 성료

천년고찰 백양산 선암사(주지 원범)가 개산 1334주년을 맞아 원효성사 다례재 및 제1회 선암문예대제를 성료했다.

11월 14일 오전 10시 대웅전 앞에서 원효성사 다례재 및 영산재를 시작으로 선암사 특설무대와 경내에서 선암장기자랑 한마당, 불무도 시범, 중 · 고등부 백일장 사생대회, 가족놀이 한마당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마련됐다.

그리고 축제에 동참한 지역민 전원에 점심, 저녁 공양을 무료로 대접하고, 소년 · 소녀가장 돕기 바자회, 생명나눔 장기기증 신청부스 운영 등을 통해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의의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뜻 깊은 축제의 장을 이어갔다.

특히,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여 진행된 산사음악회에는 인기가수 장윤정, 퓨전오케스트라 '헤이야', 예림국악원 등이 출연해 깊어가는 가을밤 산사를 정겨운 선율로 물들였다.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홍법사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1기

조계종 국제포교사 시험 전원 합격

강남의 어느 족집게 과외도, 서울대 수석합격자도, 심지어 수능출제위원이 지도한다고 한들 학업성취도가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100% 전원 합격시키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불국토 부산에 처음 개설된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에서 배출한 24명의 응시생 전원이 10월 28일 조계종 국제포교사 시험에 합격해 눈길을 끈다.

요즘이야 초등학교부터 정규교과에 외국어가 속해있지만 평균연령 50대인 이들에게는 영어 하나만으로도 큰 숙제였을 터이다. 7월 27일부터 약 3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만으로 전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번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의 커리큘럼을 직접 제작 · 관리하고, 불교영어 강사 등으로 활약한 국제포교사 이두석 씨는 학생들의 의지에서 비결을 찾았다. 제1기 연수생 총 26명, 그중 시험을 치르지 않은 2명을 제외한 24명의 응시생 전원이 이미 합격해 소귀의 목적을 달성했고, 종강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도 학업의 열기는 뜨겁다.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36년동안 재직한 후 국제포교사 고시에 응시해 한 번의 고배를 마셨던 전영일 씨에게 이번 합격의 기쁨은 남다르다. "청소년들에게 한문경전으로 불교를 전한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죠. 불교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필수불가결의 종교이고 철학이며 학문입니다."

기업간부로 퇴직 후 국제포교사로의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전원경(55) 씨도 무심결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불교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나 청소년, 아이들에게 불교를 제대로 전하려면 영어 실력은 반드시 갖춰야 해요. 한문투성이인 경구들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국제포교사가 아니더라도 불교영어를 익혀야 제대로 포교할 수 있습니다."

전원 합격을 자축하는 자리에서 그간 이두석 국제포교사와 함께 이번 양성과정 개설에 뜻을 모았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축하의 인사와 함께 앞으로가 더욱 중요함을 일깨웠다.

심산 스님은 "이제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췄으니 내면을 다져 가슴으로 포교할 수 있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야 한다"며 불자로서의 신행활동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향후 부산국제포교사모임을 신설해 매월 한 차례 모여 독송하고, 15분 영어스피치, 외국인 문화행사 등에 적극 투입해 실전경험을 쌓아 국제포교사를 필요로 하는 사찰에 배치할 예정이다. 부산에 단 4명뿐이던 국제포교사가 이제 28명으로 늘어났고, 오는 3월이면 국제포교사양성과정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문의:010-7309-5905 (이두석 국제포교사)

박지원 기자


제14회 조계종 국제포교사 시험에 전원 합격한 홍법사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제1기 연수생들.

53일간 53인의 화엄세계로…

23일 부터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봉행

53일간 53인의 선지식과 함께 <화엄경>의 주인공 선재동자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법석이 열린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는 11월 23일부터 2010년 1월 14일 까지 설법전에서 '53일간 화엄세계로의 구법여행'을 봉행한다.

행사는 23일 종범 스님(전 중앙승가대학 총장)의 '화엄산림의 역사와 의의' 등 <화엄경>의 개괄적인 법문을 시작으로 날마다 새로운 스님이 법석에 올라 <화엄경>의 각 품에 대해 약 4시간 동안 설하게 된다.

회향법문은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이 맡아, <화엄경> 설법과 함께 그간의 소회와 재임기간 동안의 여러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12월 1일 동안거 결제일에는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이 법석에 오르며, 그 외에도 제방 대덕 스님 50명이 릴레이로 등단해 해박한 경론과 연륜이 묻어나는 사자후를 선보인다.

법문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회향일은 2010년 1월 14일이다. 지난 40년 간 봉행하며 매년 15만 명 이상의 신도가 동참하는 화엄산림대법회는 통도사의 연례행사로, 통도사를 넘어 이제 우리나라 불교계의 대표적인 대중법석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07년 정우 스님의 주지 부임 이후 그 규모가 대폭 확대돼, 기존의 한 달이던 법회 기간을 53일로 연장한 바 있다. 또한, 수행 및 포교 등 한국불교를 이끄는 여러 분야의 스님들을 법사진으로 구성해 주목받았다. 한편, '53일간의 화엄여행' 기간 중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유주무주 고혼들을 위한 극락왕생 천도재도 더불어 봉행한다. (055) 382-7182

박지원 기자

바로잡습니다 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 '제1회 명상따라 걷는 부산불교' 걷기대회 참여인원을 1,500명에서 4,000명으로 바로잡습니다.

부처님 해탈 법문 지표로 인생 공부

17일, 김해 길상사 삼계선원 개원 1주년 기념 법회

올 겨울 부산 · 경남 지역에 첫눈이 내리던 날, 불자들의 뜨거운 신심이 차가운 눈마저 녹여버렸다. 11월 17일 오전 10시 김해 길상사 삼계선원(주지 혜수)이 개원 1주년을 맞아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김해 길상사 삼계선원의 개원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대성 스님(전 범어사 주지)이 법석에 올라 특별초청법문을 설했다.

삼귀의, 보현행원, <반야심경>, 축가, 대성 스님(전 범어사 주지) 특별초청법문, 주지 혜수 스님 인사말, 공지사항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지난 해 10월 초하루 개원법회를 갖고 불교대학 1, 2기 170여 명을 배출하고, 청년회, 일요가족법회, 참선반, 우담바라 합창단, 꽃꽂이반 등 다채로운 신행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성 스님은 특별법문에서 "물질만능주의시대를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종교와 그 속에 담긴 진리, 신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스스로를 살피고 자성할 수 있는 지혜를 키워나가야 한다. 이곳 삼계선원에서 훌륭한 스님의 가르침 아래 좋은 도반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정진하라"고 설했다.

주지 혜수 스님은 "1년 전 출발한 길상사호가 순항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1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보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해탈 법문을 인생의 지표로 삼아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줄 알게 돼 즐겁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길상사 삼계선원에서는 제3기 불교대학생을 모집한다.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주 · 야간 각 50명씩 100명을 선착순 접수하며, 3월 7일 입학해 약 4개월 과정으로 예불, 천수경, 찬불가, 사찰예절, 불교교리, 경전 등을 배우게 된다. (055)333-8202

박지원 기자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찰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수월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02)741-4488 (사찰스님 20%할인)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북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

C759-112009.11.251:52PM페이지1(1,1)

박수택 환경전문기자 21일 초청 강연회



박수택 기자.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11월 21일 오후 3시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너도, 나도, 모두 함께 살자 꾸나!'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초청강사에는 환경전문기자로 알려진 박수택 기자가 나섰다.

박수택 기자는 "인간이 생명을 빼앗는 오만함을 버리지 않아 화를 당하고 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고통과 억압의 사슬에서 벗어나자"고 말했다.

박 기자는 2009년 교보생명환경문화상과 정부로부터 환경의날 국민포장을 비롯해 환경보도 전문기자로 명성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에 대한 영상자료와 보도사진을 통해 한국의 환경 현주소를 보여줬다.

(062)223-362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암산에 천상의 소리 법음 울려퍼져

백양사 단풍축제 '쌍계루의 추야몽' … 26~29일 템플스테이 열려

전국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단풍으로 알려진 백암산에 단풍과 어울리는 축제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몽)는 11월 14~15일 백양사 일원에서 2009 백암산 백양사 단풍축제 '쌍계루의 추야몽'을 개최했다.

행사의 첫날인 14일에는 '호국영령과 지역발전을 위한 영산대재'가, 15일에는 '산사음악회'가 대웅전앞 특설무대에서 실시됐다.

또한 양일간에 걸쳐 불교계 대표적 NGO단체인 JTS와 불교환경연대의 켐페인 활동이 펼쳐졌다.

시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법패의 법음은 천상의 소리를 들려주는 음악이며, 도업을 이루기위한 마음의 소리"라며, "단풍철을 맞아 전국에서 온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불교음악과 깨달음을 위한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광주보훈청과 함께 진행된 '호국영령과 지역발전을 위한 영산대재'에는 전북무형문화재 18호로 지정된 전북영산작법보존회(회장 승천) 회원스님들이 참가해 시련, 대령, 신중작법, 상단권공, 영산작법 순으로 의식을 진행했다.



14일 백양사에서 봉행된 '호국영령과 지역발전을 위한 영산대재' 공연 모습.

특히 이날 선보인 영산작법은 어산춤과 바라춤의 춤사위가 다양하면서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여, 일반인에게 선보인 영산재에는 백양사 괘불이 1년 만에 선보였다.

산사음악회에는 최근 아시아문화교류재단(이사장 현장)이 창립한 백두산민족예술단 공연과 퓨전국악아이리아, 개그맨 출신 쌍둥이 가수 윙크의 공연이 진행됐다.

광주지역 새터민으로 구성된 백두산민족예술단은 '반갑습니다' '휘파람' '물동이 춤'을 비롯해, 움직이면 옷을 바꾸는 '마술춤'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백양사는 백양사 주변 수백년 된 자연 비자림에서 진행하는 숲치유 명상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11월 26~29일 개최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숲치유 전문가 신현섭 교수를 비롯해 백양사 포교국장 지정 스님이 숲치유명상 지도자로 나서 진행된다.

백양사 관계자는 "비자림에서 나오는 피톤지드와 바람으로 생기는 음이온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한 숲치유 명상 템플스테이에 많은 참가를 바란다"고 말했다. (061)392-7502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중요목조문화재 실측자료 미비

전라남도가 지정한 중요목조문화재 상당수가 정밀실측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11월 18일 도의회 김석원 의원(해남)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도 지정 목조문화재 53건 중 정밀실측 자료가 구비된 문화재는 6건에 불과했다.

특히 목조문화재 53건 중 15건은 간이 실측도면 조차 갖추지 못해 목조문화재 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정밀실측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인력과 예산부족이지만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문화재 역시 국가지정문화재처럼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간이실측 자료라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임관해도 진실한 불자되길…

법만 스님, 부사관학교 수계법회 봉행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11월 15일 육군부사관 학교에서 수계법회를 열었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11월 15일 육군 부사관학교(교장 김종배 소장) 장병들에 대한 수계법회를 여산 육군 부사관학교내 법당인 호국충국사(원경법사)에서 개최했다. 350여명의 부사관 후보생들에게 5계를 설한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스님은 불자의 기본이 되는 5계를 바탕으로 임관후에도 충실하게 군 생활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5계를 수지한 장병들은 진실한 불자로 살아갈것을 다짐했다.

한편 법만 스님은 수계에 앞서 장병들을 위한 간식과 초코파이 1000상자를 전달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선운사 총무국장 대일 스님, 내장사 주지 지선 스님등 선운사 본말사 10여명의 스님들과 전북포교사단 김동확 포교사, 호국충국사 금강회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템플스테이 활성화 시키자!

전라북도 관계자 참석 간담회 가져

전라북도가 사찰이 주는 여유로운 공간과 자연의 미, 마음 수행이 결합된 여행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나섰다. 전라북도는 최근 "김제 금산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도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도 및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김제 금산사, 고창 선운사 등 6개 사찰에서 450여명을 수용할수 있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해마다 참가자들이 늘어 2006년 4554명이던 참가자는 2009년 현재 804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도 새만금 도로개통, 국제 해양관광단지 등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게 돼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확대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현재 진행중인 사찰들의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확대 △도 및 시·군 홍보자료 제작시 템플스테이 홍보 △지방도 표지판 템플스테이 사찰 표시 안내 △팸투어 여행시 템플스테이 체험 확대 △지정 사찰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의 건의를 받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템플스테이가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인근 관광지와 새롭게 조성되는 둘레길 등과 연계 방안을 찾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바로잡습니다 제757호 부루나 존자 김동확 포교사의 나이를 미수(88세)가 아닌 80세로 정정합니다.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완주 송광사 청년회

"성숙한 불청활동 펼치겠습니다"

최근 침체돼 가는 전북지역 청년불자들의 활동에 완주 송광사 청년회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지부진하던 송광사 청년회에 청년불자들이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도영 스님(前 포교원장)이 송광사 주지로 부임하면서부터이다.



송광사 청년회 서삼균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무.

도영 스님 취임 후인 2006년 4월 송광사 청년불자들은 이형철 법우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며 본격적으로 송광사 청년회를 출범시켰다.

그 후 2기 김찬옥 회장이 취임하며 법회의 활성화와 회원들의 교리강좌와 법회 진행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의 3기 서삼균(묘각) 회장, 허영 부회장, 김성규(혜진) 총무, 김민규 교무, 오정아 재무, 이희정 포교부의 집행부를 구성하고 낙후된 전북 지역의 불법홍포와 수행문화의 정착, 청년불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송광사 청년회는 창립 이후 송광사 전주 포교당인 향산사에서의 정기적인 법회 외에도 송광사의 크고 작은 행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 지난 2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내나라 여행박람회'와 3월 금산사 불교문화축제에는 직접 한지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매월 2번째 토요일에는 송천정보통신학교(舊 소년원)에서 전주 '우리는 선우'와 함께 한 순간의 실수를 참회하는 법회를 개최하는 한편 방학 동안에는 수련회도 개최해 왔다.

정기적으로 송광사에서 운영하는 정심원 봉사활동에 참가해 법회를 개최하는 한편 청소, 급식, 시설보수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또, 정심원 생활인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치아가 상한 생활인들에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도 했다.

청년회 설립 초기 자원봉사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느낀 회원들은 전주지역의 무지개 봉사단 등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봉사단에 참여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노하우를 직접 배워오기도 했다.

부처님오신날 즈음에는 멀리 서울의 장엄 등 교육에도 참가해 봉축 장엄 등을 직접 만들어 연등축제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동자승 캐릭터나 뽀로로 만화 캐릭터는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올해 대불청에 송광사 청년회로 등록해 송광사 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의 '청년불자 배가 운동'을 펼쳤다.

또, 송광사 청년회는 전북 청년회 활성화와 부흥, 대불련에 대한 장학금 지원등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각오아래 꾸준한 봉사활동과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대불청 가입기념 대법회를 11월 20일 개최하기도 했다.

앞으로 전북지역의 불교활성화를 위해 보다 성숙한 불청활동을 펼치겠다는 송광사 청년회원들의 다부진 각오를 통해 미래의 희망찬 전북불교를 기대해 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단기출가 참선안거

참선전문도량 **활인선원** 개산 1주년

단기출가 100일 2009. 11. 26 - 2010. 3. 5 (1차)
단기출가 50일 2009. 12. 19 - 2010. 2. 6 (2차)

지혜란? 복잡한 것이 간단하게 되는 것이다.

▶ 대상 : 일반인(20 ~ 70세)
▶ 접수 :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www.hwalin.net
▶ 전화 : 1644-5266 / 070-7519-9929

참선전문도량 **활인선원**
안성맞춤의 고장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대한불교조계종 제주원명선원 중앙연수원 행복제작소

최상의 지혜, 참선으로 하는 단기출가참선안거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한 나를 찾는 행복
최상의 지혜를 발휘하는 참선체험

활인선원의 다른 과정

- **행복참선학교** (겨울 100일 - 주말선회)
  - 2009. 11. 26 ~ 2010. 3. 5 동안거 기간
  - 주말(토) 10:30 ~ 16:00 2주, 4주(일) 13:00까지
- **삼매체험 참선단식 수련회** (원명선원과 병행)
  - 2009. 12월말 ~ 1월말
  - 대상 : 일반인 65세까지
    청소년 (고교생, 보호자동행)

일구법문을 듣는 공덕이 천만번 불공보다 뛰어나다

C759-122009.11.251:53PM페이지1(1,1)

유종하의 '쉬운 IT 즐거운 생활'

간단하게 멋진 나만의 방송국을 만들자

실시간 인터넷 방송국 만들기

이번 호에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주 간단하게나마 인터넷 방송국을 한 번 구축해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이란?

인터넷 방송이란(동영상, 데이터 정보) 등의 컨텐츠를 푸시(push) 및 스트리밍(streaming) 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이라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기존 방송과는 달리 시청자 스스로가 원하는 방송 시간과 내용을 선정, 재구성하여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기존 공중파 방송보다는 서비스 이용자가 한정돼 있지만 주문형 뉴스/교육 서비스 원격진료, 원격강의, 라이브 법회, 신행상담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핵심 시스템인 푸시와 스트리밍 기술

푸시시스템이란 기존의 웹 환경 아래에서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원하는 내용이 있는 곳을 검색하고, 또 원하는 사이트를 직접 찾아가서 정보를 내려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장소에서 정보를 꺼내온다는 의미에서 풀(pull)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푸시 시스템이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서 사용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밀어내 준다(push)'는 점에서 정 반대의 개념입니다.

푸시 시스템은, 매일 아침 우유나 신문이 집 앞에 배달되듯이,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 서버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자신의 컴퓨터로 정기적으로 배달되도록 하는 방식의 기술을 말합니다. 이때 다뤄지는 컨텐츠는 주기적으로 갱신을 요하는 주식 정보 따위나 뉴스, 방송 따위가 유용할 것이며, 이외에도 자신이 원하는 어떤 분야의 내용이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달되는 정보의 유형도 텍스트, 그래픽, 소리 등 어떤 유형의 것도 가능합니다.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도 취침시간이나, 새벽시간 같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시간을 이용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을 사용할 때처럼 모니터 앞에서 다운로드 되는 것을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방식입니다.

스트리밍 미디어 기술이란 기존에 인터넷 상에서 동영상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이 PC에 전부 다운로드 된 뒤에야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영상 파일의 데이터량은 다른 자료 보다 몇 배 또는 수백 배에 이르기 때문에 1시간 정도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수십 분씩 기다려야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기술이 스트리밍 미디어 기술입니다. '스트리밍(Stream)'이란 파일 전체가 다운로드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정량의 데이터만으로 바로 실행이 가능하며 나머지 데이터들은 실행되면서 계속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수십 메가 바이트(또는 그 이상)의 동영상 파일을 보기 위해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파일을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재생해 줌으로써 실시간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기술입니다.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기 위한 5단계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1. PC에 캡쳐 보드를 준비합니다.
2. 웹에서 스트리밍서버를 Free로 대여해 주는 싸이트를 찾아 가입합니다.
3. 집에 있는 홈비디오 카메라를 가져와 캡쳐보드와 연결합니다.
4. 내가 웹자키가 되어 카메라 앞에 서고, MP3 Player에 노래를 선곡하여 멘트에 맞게 Play 합니다.
5. window media encoder를 Free 다운받아 대여 받은 서버와의 환경설정(IP주소, 파일이름 등)을 한 뒤 실행합니다.
6. 나만의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합니다.

참 복잡하죠. 위에 사항들을 읽고도 인터넷 방송 구축을 하고 싶으신가요? 정말 이렇게 복잡하다면 저도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간단하게 똑딱똑딱 인터넷 방송국 구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표 인터넷 방송 미디어 '아프리카'의 프로그램 화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은 IT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특별한 지식 없이도 누구나 구축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을 서비스 해주는 유명한 웹사이트 두 곳을 먼저 소개해보겠습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국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로는 아프리카TV(www.afreeca.com)와 판도라TV(www.pandora.tv)가 가장 유명합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라도 직접(Broadcasting Jockey)가 되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시청자와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프리카는 누구나 무엇이든 방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방송소재가 무궁무진해, 기성 방송의 허점을 찌르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미디어 기기와 네트워크 인프라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개인들의 실시간 방송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누적방송수 2,000만개, 동시시청자 30만 명을 돌파하며, UCC 분야의 대표 서비스로 자리잡았으며, 대만 현지 업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판도라TV는 동영상을 쉽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채널'을 통해 전 세계 누구나 자신이 만든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배포할 수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국 서비스입니다. 판도라TV는 2004년 10월 한국에서 서비스를 런칭한 이후, 업로드 '무제한 용량' 제공, 동영상 표준 플랫폼 'Open API' 나만의 인터넷 방송국 '채널', 전 세계 모든 동영상을 찾아주는 '검색' 등 독특한 서비스로, 한국 내 동영상 웹서비스 부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두 곳 이외에도 수 많은 개인 인터넷 방송국 서비스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복잡한 기술적인 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고 어느 곳에 방송국을 개국할까 라는 행복한 고민만 남게 되었죠. 저는 아프리카TV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프리카TV(www.afreeca.com) 웹사이트를 방문해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십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메인화면을 보시면 시청하기와 방송하기라는 두 원이 보이시죠. 그중 오른쪽 방송하기를 클릭합니다. 3가지 창이 보이시죠. 스튜디오창, 채팅창, 제어판창이 보이시죠. 이 3가지 창이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어판에서 방송국 제목을 입력하시고 방송테마를 선택하시고 방송설명을 간략하게 입력해주세요.

아프리카TV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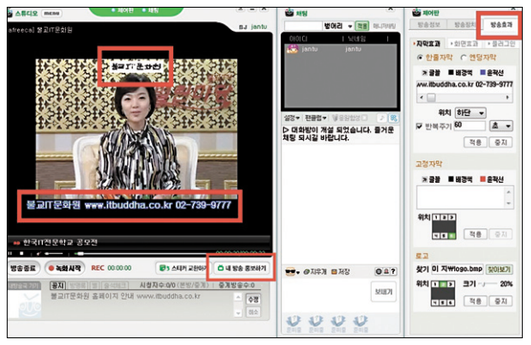
첫째, 웹캠이라는 불리는 카메라 장비를 이용한 라이브 방송.

두번째, 동영상파일을 이용한 방송.

여기서는 동영상 파일을 가지고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제어판창에서 비디오 장치 설정에서 장치선택 부분에서 내 파일방송이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내 파일 방송하기창과 매너방송창이 동시에 보이실 겁니다. 내 파일 방송하기창에서 하단부분 파일 추가를 클릭 하신 후 방송하고자하는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다수의 동영상 파일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동영상 파일 추가가 끝나셨다면 이제 방송을 시작합니다. 방송시작은 왼쪽 스튜디오창에서 하단에 녹색버튼 방송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방송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웹캠을 이용해 방송하는 방법은 파일방송과 비슷합니다. 먼저 컴퓨터에 웹캠이 설치 되어있어야겠죠. 그 다음으로 제어판창에서 비디오 장치 설정에서 장치선택 부분에서 본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웹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장치설정에서 본인 컴퓨터 오디오 장치부분을 설정합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웹캠을 위한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튜디오창에서 방송하기 버튼 클릭하면 이제 방송이 송출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라이브로 방송이 시작되고 누구라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와 주변을 좀 단정하게 정리하고 방송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아무나 들어와서 시청하는 것이 싫으시다면 제어판창에서 윗부분 방송정보부분에 들어가신 후에 방송속성 메뉴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시청하도록 설정하거나 비밀번호를 먼저 설정하여 비밀번호를 알고있는 사람만 시청하게 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송중에 자막효과을 넣어보겠습니다. 제어판창에서 방송효과 메뉴를 클릭하시면 자막효과부분에서 '한 줄 자막'을 선택하시고



방송효과에서 로고와 자막효과를 넣어 방송 중 자막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입력창에 원하시는 문구를 입력합니다. 저는 "불교IT문화원 www.itbuddha.co.kr 02-739-9777" 이라는 문구를 입력하였습니다. 입력 후 반복주기 부분을 클릭하시고 60초로 적용버튼을 클릭하시면 방송중인 화면에 적용되어 송출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고를 삽입해보겠습니다. 우선 로고는 BMP형식의 이미지를 먼저 준비합니다. 그리고 로고 메뉴부분에서 찾아보기를 버튼을 클릭후 BMP이미지 파일을 찾아 적용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 로고가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상단과 하단 좌우 다 가능합니다.

이제는 시청하는 방법입니다. 스튜디오창에서 창 하단 우측 '내 방송 홍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이 보이시죠. 이 창에 메뉴를 보면 홈피에 직접 붙이기, 메신저로 보내기, 플래시로 붙이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메신저로 보내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팝업으로 보기 부분에 주소값을 복사하기 하셔서 나의 인터넷방송을 시청해줄 지인들에게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그 주소값을 보내주면 됩니다.



내 방송 홍보하기에서 '메신저로 보내기'를 클릭하고 '팝업으로 보기'에 주소값을 복사해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주소값을 전송.

그럼 그 주소값을 인터넷 익스플로러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IT문화원 www.itbuddha.co.kr (02)739-9777

인터넷 방송국 종교별 분석표(Daum 디렉토리 기준)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갯수	6개	49개	3개
대표 방송국	불교 인터넷음악 방송국 -주간 순 방문자수 4591명	CGN YV -주간 순 방문자수 9만 8710명	천주교 생활성가 인터넷방송국



유종하 국장
불교 IT문화원

세계평화 기원 한마당

태국 수도 왓벤사 사원에 모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공개 · 의륜 서주범 대종사 제19대 전국일붕문도중앙회 회장 취임

2009년 12월 1일(화요일) 오후 1시 ·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

취 지 문

인류의 등불이신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은 세계불교법왕청을 설립 하시고 초대 법왕과 동국대학교불교대학장, 대학선원장, 조계종원로의원, 경주 불국사 주지, 국가보위입법위원 등 많은 직책을 역임하시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일붕삼장대학원, 일붕신문사 등 많은 불교단체을 설립하였고 우리민족의 숙원인 남북평화통일이 하루빨리 성취되기를 기원 하기위해서 40여년 전부터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 마라도에서부터 최북단 통일전망대에 이르기까지 8백여개의 평화통일 기원비를 세웠으며, 세계각국 유명대학교에서 문학, 철학, 종교학박사 등 126개의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불교포교를 위하여 1천 40 종류의 저서를 냈으며 국내외적으로 6천7백여명의 제자를 두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스리랑카 등 세계 각국을 누비면서 불교포교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한편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2회 연속 올랐으며 제17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를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세계불교사에 빛나는 수많은 업적을 남기신 일붕 존자님의 제자들이 모인 단체는 전국일붕문도중앙회에서 한국불교단체가 동참하는 평화 한마당을 마련하고 전국일붕문도중앙회 제19대 회장 의륜 서주범 대종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취임식과 아울러 화합 단결로 불교발전을 이룩하고 불국정토를 구현하고자 세계평화기원 한마당 대법회를 봉행코져 합니다.

초청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전국일붕문도중앙회 제19대 회장 의륜 대종사 취임을 계기로 일붕 법왕님의 나라사랑 정신과 평화정신 사상을 이어 받아 한국불교중흥은 물론 전 세계 불교문화를 위해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 설것을 부처님전에 서원하며 이 뜻을 응집하여 우리의 결의를 만천하에 알리고자 한국불교 전체 종파를 초월하여 사부대중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 **회장 의륜 서주범 약력**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 저서 : 알기쉬운 불교 외 40여종 / 전국 순회포교 백일
- **동참안내**
  교계 각 종단의 고승대덕 스님들과 각 불교단체 임원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9년 12월 1일(화요일) 오후 1시 입장 (오후 2시 – 5시)**
- **장 소 :**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
- **규 모 :** 1천여명 뷔페식 만찬
- **법요식 :** 평화기원 메시지 전달 / 회장 취임 인사
- **시 상 :** 불교계에 공헌하신 분 (각 종단, 단체 추천에 의한)

* **태국 수도 왓벤사 사원에 모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공개 / 불자 연예인 공연**

- **문 의 :** 전국일붕문도중앙회 02)777-0901 / 각 종단 및 사암
  회장 의륜 대종사 011-352-7751 / 기획위원장 김소부 011-356-3427 / 사무총장 서병열 010-6253-4936

* **불교TV와 연합불교방송에서 함께 합니다. (특집 프로그램 제작)**

세계평화 기원 한마당 봉행위원회

대 회 장 **석월호 대종사** [(사) 한국불교정토종 종정 / 전국일붕문도중앙회 고문 / 저서 : 월호 박팔봉 설법집 등 10여종 출간]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42

이 세상 부처 아닌 존재가 없다

[원문]
불신보편시방중(佛身普遍十方中)
삼세여래일체동(三世如來一切同)
광대원운항부진(廣大願雲恒不盡)
왕양각해묘난궁(汪洋覺海妙難窮)
– 관악산 연주암

[번역]
이 세상 부처님의 몸, 널리 두루 하고
삼세의 여래가 모두 똑같네.
부처님 서원 넓고 커 항상 다 함이 없고
깨침의 바다 또한 넓어 끝을 알기 어렵네.

[선해(禪解)]
인도의 코살라국 프라세나짓 왕은 여러 부인을 두고 있었다. 왕은 그 중에서도 말리카 부인을 가장 총애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산책을 즐기다가 말리카 부인에게 "그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조용히 물었다.

왕은 말리카 부인이 당연히 "대왕이시여. 바로 당신이지요."하고 말하기를 기대했지만, 뜻밖에도 그녀는 "대왕이시여.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이는 세상에 없는 것 같사옵니다." 하고 왕의 기대를 무참히 깨버리고 말았다.

왕은 그 순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인지라 더욱 화가 나서 부처님을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그 해답을 구하자고 했다. 그런데 부처님은 왕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간의 생각은 무한하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이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어도 남을 해치지는 않는다."

왕은 그제야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 누구도 남이 자신을 위해 수행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리카 부인은 바로 불교의 진면목(眞面目)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깨달음의 길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음을 알고, 여자도 진리를 구하는 결심을 일으키면 '깨달음을 구하는 자' 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말리카 부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귀의하여 세존 앞에서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서원을 세웠다

"첫째, 계를 범하지 않겠다. 둘째, 나이 많은 어른들을 공경하겠다. 셋째, 절대로 화를 내지 않겠다. 넷째, 그 어떤 사람이나 그들의 소유물에 질투하지 않겠다. 다섯 번째, 어떤 물건도 소유하지 않으며 절대로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 여섯 번째,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지 않고, 받은 것은 모조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일곱 번째, 모든 사람을 공손하게 대하고, 보시하고 상냥하게 말하며, 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되 결코 자신만의 편익을 위한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며, 차별 없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다. 여덟 번째, 가족이 없어 기댈 곳 없는 사람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또는 병들어 괴로워하는 사람이나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바른 도리와 이치를 들려주어 그들을 고통에서 구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겠다. 아홉 번째, 살아있는 생명체를 학대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계를 범하는 사람을 보면 힘이 닿는 한 꾸짖고 타일러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 주겠다. 열 번째, 바른 가르침 얻기를 잊지 않겠다."

말리카 부인의 서원들을 읽어 보면, 누구나 능히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가정 생활의 참된 뜻은 서로 힘을 모아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기회를 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평범한 불자들도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려는 마음을 일으켜 말리카 부인처럼 큰 원을 갖는다면, 진정 훌륭한 불제자가 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은 바로 '자신'
자신을 사랑해야 타인에 대한 자비심도 넘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데서 타인의 사랑도 넘쳐난다.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처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진정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자신의 마음을 밝게 할 서원을 세우고 수행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불자의 정신이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관악산 연주암이다.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龍珠寺)의 말사이며 나한도량(羅漢道場)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연주암은 677년(문무왕 17)에 의상(義湘: 652~702) 대사가 창건한 절로, 의상 대사가 관악산 연주봉 절벽 위에 의상대를 세우고 그 아래 골짜기에 절을 짓고 관악사(冠岳寺)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그 이후 1392년(태조 1) 태조 이성계가 의상대와 관악사를 중수하고 조선왕조의 번창을 기원하는 200일 기도를 올렸다. 연주대는 이성계가 무학 대사의 권유로 의상대 자리에 석축을 쌓고 30㎡ 정도의 대를 구축해 그 위에다 암자를 지은 곳으로 1411년(태종 11), 동생인 충녕에게 보위를 양보하고 전국을 떠돌던 양녕과 효령이 이곳에 머무르면서 관악사를 현 위치로 옮기고 연주대의 이름을 따서 연주암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런데 관악사의 이름이 연주암으로 바뀐 유래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고려의 충신이었던 강득룡(康得龍)과 서견(徐甄), 남을진(南乙珍) 등이 그 자리에서 고려의 수도였던 송도(松都)를 바라보며 통곡하였는데, 이 때문에 '주인을 그리워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연주암은 1868년(고종 5) 명성황후의 하사금으로 극락전과 용화전(龍華殿)을 신축하였으며, 1918년에는 경산(慶山)의 주도 아래 중수 작업이 이루어졌다. 1928년에는 재운(在芸)에 의해, 1936년에는 교훈(敎訓)에 의해 새로 건물을 세우거나 수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본당인 대웅전과 그 뒤편에 금륜보전(金輪寶殿: 삼성각)이 있고 연주대에 응진전이 있다.

금륜보전은 현재의 건물 중 제일 오래된 건물로서 1929년에 신축한 것이고 대웅전 및 기타 건물은 1970년대 이후에 지은 것이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모신 천수관음전과 효령대군 영정(경기도 지방문화재 제81호)을 모신 효령각은 1996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대웅전 앞에 있는 높이 3.2m의 고려시대 양식의 삼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4호)은 효령대군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탑은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뛰어나며 단아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럼 대웅전의 주련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

'불신보편시방중 삼세여래일체동': 이 세상 부처님의 몸, 널리 두루 하고 삼세의 여래가 모두 똑같네.'

이 세상 부처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길가에 피어 있는 꽃 하나, 바람 소리하나 푸른 나뭇잎 하나 부처님이 나투시지 않으신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불신은 항상 보편(普遍) 타당하여 위엄과 권력을 나타내지 않으며, 모든 중생들에게 항상 인자하고 따뜻한 사랑을 베푸신다. 더욱이 그 여래의 마음은 전세, 현세 내세에도 항상 똑같이 중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있다는 말씀이다. 즉 일억만 년이 지나도 부처님의 마음은 이와 같이 변하지 않는다.

'광대원운항부진 왕양각해묘난궁': 부처님 서원 넓고 커 항상 다 함이 없고 깨침의 바다 또한 넓어 끝을 알기 어렵네.'

부처님이 중생을 깨치기 위해 세운 서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고 넓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 세운 서원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가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란 삼독(三毒)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열심히 수행하여 깨침의 바다에 당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42

모든 것이 마음의 움직임

[원문]
此心不離四大色身中. 若離此心 卽無能運動. 是身無知 如草木瓦礫 身是無情 因何運動. 若自心動 乃至語言施爲運動 見聞覺知 皆是動心動用. 動是心動 動卽其用. 動用外無心 心外無動.

이 마음은 사대로 된 육신을 떠나지 않으니, 이 마음이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느니라. 이 몸은 아는 것이 없으며 초목이나 기왓장과 같은 것이라 감정이 없으니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 자기의 마음으로 말하고, 분별하고, 움직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니라. 즉 모든 것이 마음의 움직임이고 작용의 움직임이니라. 움직임은 마음의 움직임이고 움직임은 곧 마음의 작용이니 움직임과 작용 이외에 마음이 없고, 마음 없이 움직임이 있을 수 없느니라.

[해설]
달마 스님의 혈맥론 마지막 부분인데 바로 '체(體)'와 '용(用)'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주의 근본 실상, 즉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세계, 달마 스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실상은 수차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청나라 때의 달마도.

마음은 분명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는, 입을 떼면 그르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달마 스님이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세계입니다. 달마 스님은 바로 수행자들이 그 자리를 깨닫도록 길을 안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음은 사대(四大)로 된 육신을 떠나지 않으니…'

사대는 곧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지, 수, 화, 풍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우주도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의 성질, 불의 성질, 흙의 성질, 바람의 성질이 모두 다르기에 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상(無常)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서 마음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껍데기죠. 사람이 죽은 후 매장을 할 때 생전에 애착했던 몸뚱아리는 꽁꽁 묶어서 매장한 후 봉분을 발로 꾹꾹 밟아서 묻잖아요. 그때 자손들은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신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마음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이지, 마음이 빠져 나가면 몸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께서도 "이 마음은 사대로 된 육신을 떠나지 않으니, 이 마음이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몸은 아는 것이 없으며 초목이나 기왓장과 같은 것이라 감정이 없으니,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

마음이 빠져나가면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하니까 기왓장이나 초목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들께도 경을 읽어드리거나 염불을 해드리는 것이 큰 위안과 힘이 되지, 껍데기를 위해서는 그 무엇을 한들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말하고, 분별하고, 움직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니라.'

육신이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귀를 통해서 듣고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육신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즉 모든 것이 마음의 움직임이고 작용의 움직임이니라.'

모두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모두 내 마음의 장난입니다.

'움직임은 마음의 움직임이고, 움직임은 곧 마음의 작용이니, 움직임과 작용 이외에 마음이 없고, 마음 없이 움직임이 있을 수 없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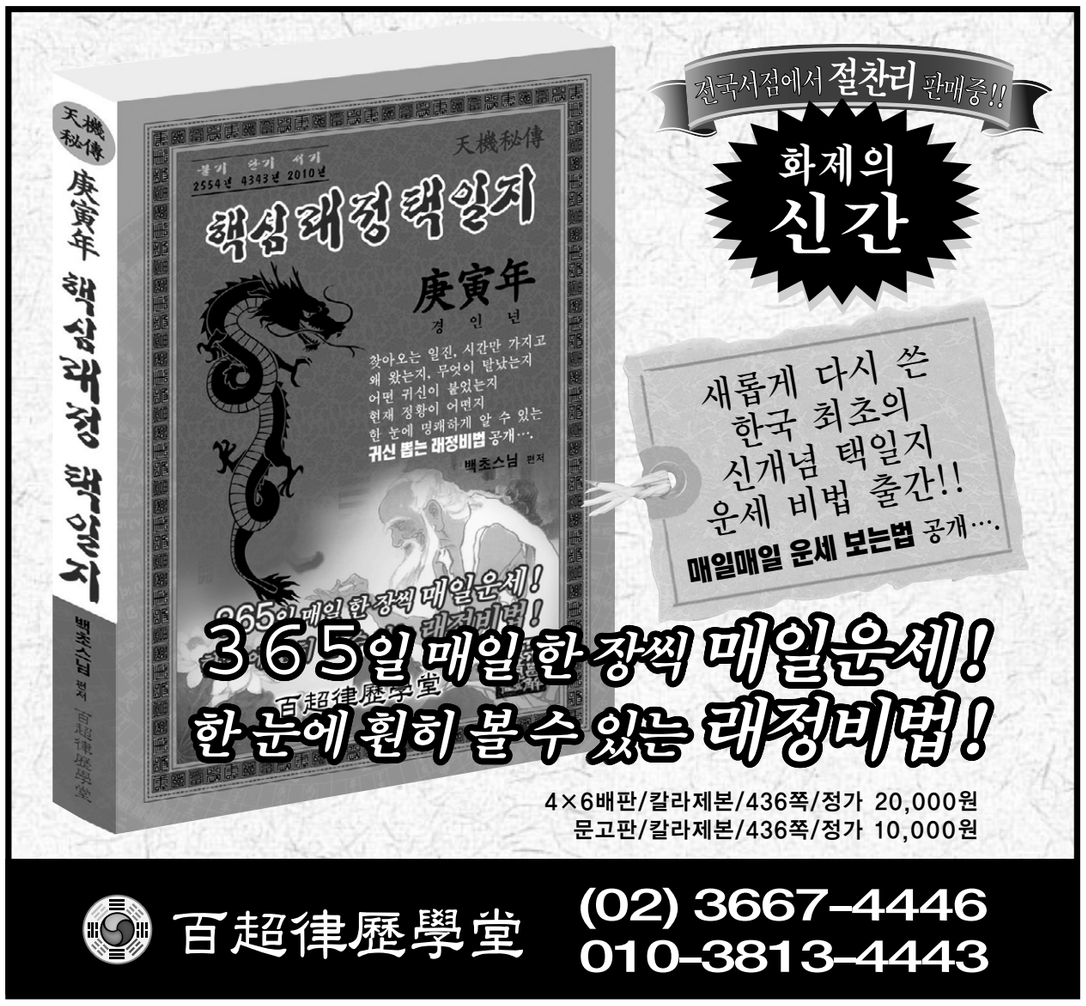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마음이 한다는 얘깁니다. 마음 없이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은 바로 마음의 작용이라는 얘깁니다.

왔다 갔다 하며 움직이는 것은 진짜 나가 아니라 단지 마음의 작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마음이 하는 것이지만, 진짜 나는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나는 물질이 아니니까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지, 본래 마음에서는 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작용의 본체가 공하다는 얘기는 본래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본래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사가 없는 것이고, 오고 감이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고 듣는 것은 마음이 작용한 것이지, 진짜 나는 움직인 게 아닙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4×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문고판/칼라제본/436쪽/정가 10,000원
百超律歷學堂 (02) 3667-4446 010-3813-4443



불법을 생활에 응용해 실행하는것이 '호법활동'

주제:여래의 사자(使者)를 만나다 4

일시:11월 17일

장소:광주동구KT문화센터

강사: 지홍 스님(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

1974년 불광회 창립… 문서포교와 '순수불교운동'

불교의식 한글화부터… 법등 모연해 불광사 창건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불광사에 있는 지홍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 주제는 '아름다운 불광공동체'입니다. 불광(佛光)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잠실에 불광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좀 특별한 절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불광 창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불광운동을 전개하는 과정과 불광의 미래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광은 1974년도에 '불광회'라는 명칭으로 창립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70년대라고 하면 6.25 한국전쟁의 폐해를 겪고 이승만 독재와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와 군부독재, 그리고 유신체제로 이어지는 한국사의 격랑의 한 복판에서 민초들이 방황과 분노와 좌절을 겪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격랑을 겪은 시대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불교 교단의 측면에서 보면 54년도부터 시작되어 10여년을 끌던 종단정화의 광풍이 지나간 후, 정화의 정착과 교단정치 안정이 기대되는 그러한 시기가 70년대입니다. 이 정화가 어느 정도 끝나고 조계종의 체계가 세워지면서 종단 정치가 안정이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종단은 권력과 각 사찰의 이권을 둘러싼 분규와 소송이 끊어지지 않아 교단의 혼란과 위신이 사회적으로 날로 추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500년간의 배불정책 하에 불교가 탄압을 받고, 구한말 이후 1970년대까지도 계속적으로 서구 외세에 의해서 전통문화나 전통종교가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변방으로 밀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종교들은 외세의 힘을 입어서 정치, 교육, 복지 그리고 신앙적으로 교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불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몸살을 앓는 시기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당시의 신앙형태는 기복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무속화가 되어가면서, 절에 가면 스님들이 점이나 사주관상을 보고, 또 굿을 하는 것이 일반 사회의 불교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불교가 수행을 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 사회를 정화시키고 선도하며 우리 사회의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종교적 역할을 하는 불교의 모습이 아니라, 기복적이고 무속화 되어 불교 전체가 대중화 되지 못하고 개인화 되고 있었습니다. 또 사찰이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산 속에 위치해 있어서 대중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다른 종교들은 6.25 전쟁이후부터 피폐된 사회에서 사회복지와 교육을 통해 일반인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런 고민을 할 때 우리는 그 반대의 길을 걸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저의 은사스님이신 광덕 스님께서 불광을 창립하셨습니다. 광덕 스님께서는 그 당시 불교 상황과 사회현상을 보고 "불교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 사회에서 존재 자체가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불교가 없어지면 우리 민족 문화나 전통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서구화 되고 기독교화 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그 후 종단 정치에 손을 떼고 불광회를 창립합니다. 불광회, 즉 불광법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월간 <불광>을 창간해 문서포교로 출발 했습니다. 월간 <불광>을 통해서 전국의 불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불교운동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당시의 목표였습니다. 당시 창간한 월간 <불광>이 이번 달로 421호가 되었습니다. 창간을 해서 전국의 불자들에게 배포를 했는데, 제일 많이 배포한 곳이 군부대입니다. 군부대, 교도소 등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곳에 월간 <불광>을 많이 보냈습니다. 군인들이 그 당시 가장 불교와 접할 수 있는 쉬운 통로가 월간 <불광>이었습니다.

월간 불광을 창간하게 되면서 창간사에 '순수불교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 불교가 피폐해지고 불교 본래의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불교가 계속적으로 이권 다툼을 하는등 나락으로 빠져갈 때, 불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가 망한다고 하는 그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순수불교운동'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순수불교운동은 무엇이냐 하면 본래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본래의 가르침은 "우리 중생들은 모두가 다 본래 부처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스님은 1974년 9월에 월간 <불광>을 창간하고, 같은 해 10월에 불광법회를 창립합니다. 목요일에 직장인들이 퇴근 후 서울 종로 대각사에서 모여서 법회를 보게 됩니다. 매주 목요일 보게 되니까 정기적인 법회가 되는 것이죠. 그 때 당시 조계사, 봉은사 같은 큰 사찰도 주간 정기법회를 보지 않고 음력으로 재일법회나 보는 상태였습니다. 주간법회는 물론이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야간법회를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월간 <불광>을 창간하고, 그 구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법회를 보는데 처음에는 20~30명 모여서 법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주, 2주, 3주 그렇게 지나다 보니 20~30명, 100명, 200명, 300명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계속 밀물처럼 모여들기 시작할 때 드디어 조직화를 시작합니다.

지역별로 조직화를 하는데 서울시 각 구의 각 동별로 '법등'이라는 조직을 했습니다. 한 법등에 15명 이상이 모여야 조직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로구라고 하면, 종로구 각 동에 15명 이상이 모여서 법등을 조직합니다. 구 별로 법등을 묶어 세운 것이 '구 법회'라고 합니다.

이때의 법등 활동 내용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법회를 가정법회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법우들이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때 스님들이 나가서 모임을 주관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법등 가족끼리의 유대와 애경사를 서로 돕는 일부터 시작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순례 및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등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법회를 하고, 이 법등들이 모여 구법회를 형성하고, 구법회가 모여 불광법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법등을 약 250개 정도 조직하였습니다. 수천 명의 불자가 조직되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법회를 보는 것, 정기적으로 조직활동을 하는 것, 정기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불교의식을 현대화 대중화 사회화 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해서 법등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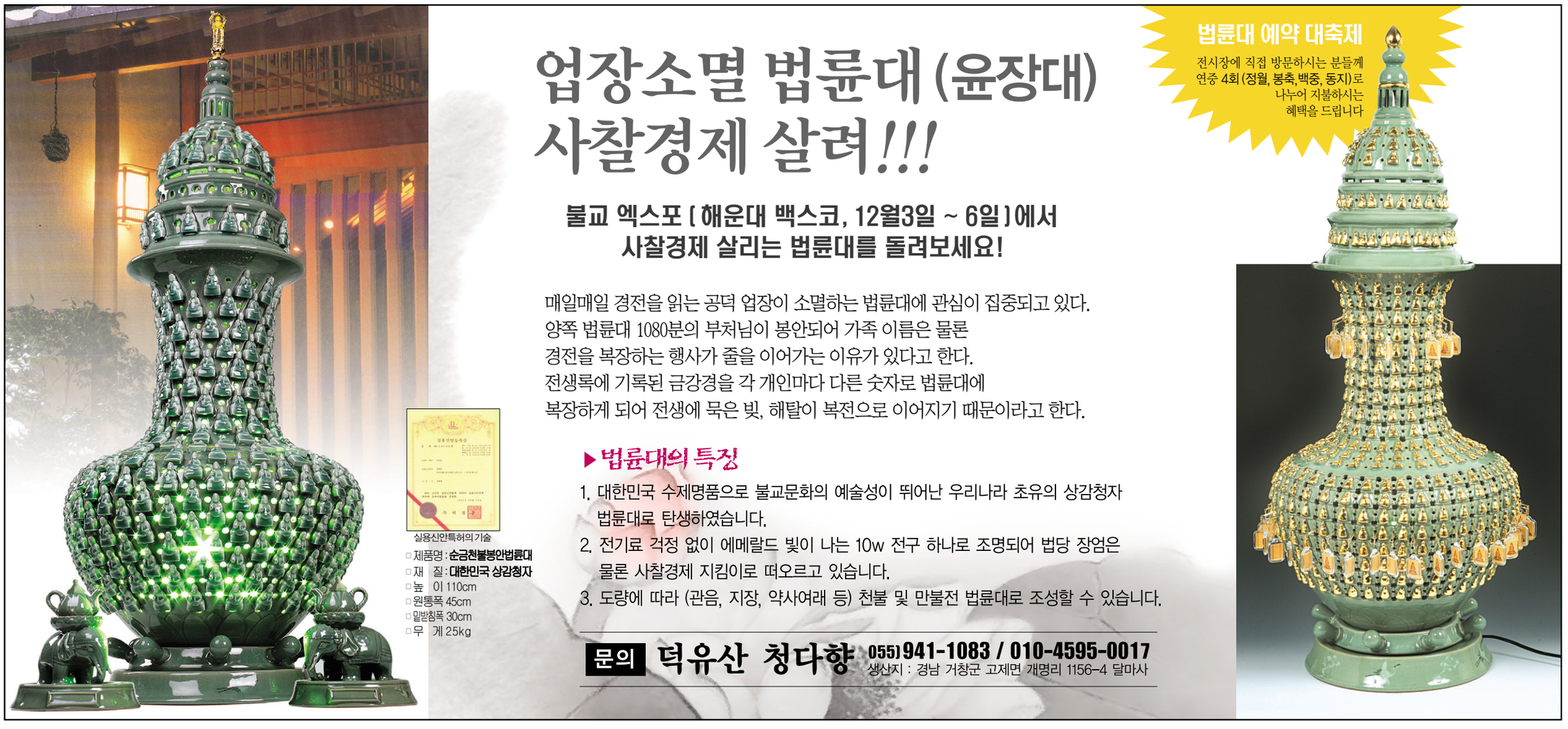
그래서 당시 제일 먼저 불교 의식의 한글화를 시작했습니다. 천수경, 반야심경, 축원문, 불공의식, 제사의식을 전부 다 한글로 번역해서 법회 진행을 하였고, 지금까지도 불교의식은 한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대각사라고 하는 공간이 좁아졌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지니 새로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현재 불광사 창건을 위한 불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법등에서 전부 모연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법등 가족 전체가 모연문을 들고 시장에 나가서 귤이나 다양한 것들을 팔아 이익금으로 불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당시 모연 방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했어요.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이 시장에 가서 탁발을 한 것입니다. 스님들이 탁발을 한 것이 아니라 법등 신도들이 가서 탁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나와서 시장에 나가 탁발을 하게 되는데 많이 모여야 몇 만원 했습니다. 그런 돈들을 다 모아서 지금의 잠실에 땅을 사고 불광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불광사를 짓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찰 창건을 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독지가가 돈을 대고 사찰을 창건하든지, 아니면 어느 사찰이 말사 형식 또는 포교당 형식으로 사찰을 창건 한다든지, 또 어떤 스님이 오랫동안 역량을 모아서 그것을 기반해서 사찰을 창건하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찰 창건의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불광사는 그렇게 창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도들이 자신들의 수행과 불교활동을 할 수 있는 근본도량이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나섰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것을 다 이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절을 짓게 되면 신도들이 사찰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후 정기적인 법회를 정착시킵니다. 불광법회는 한국불교에 있어서 도심 포교의 큰 역할을 하나 둘씩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불광법회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자 이에 자극을 받아 많은 스님들이 서울을 비롯한 도심에서 포교당을 하나씩 하나씩 짓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가 구룡사이고 이어서 강남포교원, 여의도포교원, 능인선원, 한마음선원, 은평포교원 등이 설립되어집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불광사를 벤치마킹



buddhanews.com

전법 원력 세워 위기 이기자

(Benchmarking)을 하기 위해서 불광사를 방문했습니다. 하도 많이 오니 저희들이 안내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느라고 거의 실무자 한 사람은 그 쪽에 배치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유명 사찰을 보면 신도 조직이 저희 불광사 법등 조직과 비슷합니다. 지금은 수행조직, 교육조직, 봉사조직, 또는 합창단과 지역, 계층 조직이 각 사찰의 특수성에 맞게 다양화해서 그것을 묶어서 신도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불광사가 70년대 도심포교당 운영의 첫 출발의 문을 열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모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후발 사찰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제 다시 70년대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미래의 포교를 새로운 방식으로 열어갈 수 있는 다양한 포교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호법 활동에 대해서입니다. 호법(護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을 보호한다는 뜻이죠? 경전에 호법행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불법을 지킨다는 것은 소극적인 일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불법을 우리 생활 속에 응용을 해서 실행한다는 것이 호법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호법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교육, 복지, 문화, 의료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법법회를 하게 되는데 호법회원이 되면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매월 일정액의 호법 봉납금을 냅니다. 현재 4,000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평균 1만원이상씩 내고 있습니다. 호법 봉납금을 모아서 한 첫 번째 사업이 교육사업입니다. 제일 먼저 설립한 것이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을 설립했고, 그 다음에 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교육원을 통해 일반 신도들을 교육하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을 빌려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회에 오픈 되어 있는 그러한 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또 복지사업도 같이 하는데, 현재 12월 17일 개원식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구립 노인요양원을 위탁 받았습니다.

이런 호법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발원금은 사찰 경상비에는 쓰지 않습니다. 이 돈은 묶어 놓았다가 특수한 목적 사업을 위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광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출판사업입니다. 월간 <불광>과 불광출판사를 통해 많은 불서를 보급하였습니다. 또 불광사보로 <공감플러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찰에서 사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감플러스>는 불광사가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의 문화, 나아가 그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담아서 함께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지의 역할과 사보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날씨에도 800여 불자가 법회에 참석,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다.

이어서 불광이 미래에 어떤 전망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불교의 현실은 인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많은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부처님 법을 전달하고, 또는 대중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스님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도 누가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스님도 없고 일반 재가자와 실무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 대승불교인데 그동안 스님들에게 중생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부 다 산 속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서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소승적 입장에서 수행하는 정서가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 자신을 투여해서 대중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과 책임성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스님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한국불교에는 사람만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습니다. 일을 하려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이 없습니다. 산속에는 엄청난 불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대중 곁에는 별로 없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출가자의 사회 ·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현재 불교가 굉장히 심각하게 위기적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교세 확장에 불교는 이제 비교의 대상에서 이탈되었습니다. 경쟁의 대상에서 이탈되었다는 것이죠.

광화문 광장에 가면 돌에 근대 한국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쭉 새겨놓았습니다. 천주교나 기독교는 여러 가지 기록이 많지만, 한국의 대표적 종단인 조계종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나 그런 단체에서도 불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숨결과 함께 해 왔던 불교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탈되고, 경쟁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새롭게 원력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법의 원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전법의 원력으로 사이버 포교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자리를 꽉 메우고 법회를 보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전법의 원력을 세워서 함께 위기를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양행선 광주 전남지사장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70. 일등 포교사 이종익 스님

지암 이종익(智庵 李鍾郁, 1884~1969) 박사님의 호는 법운이고, 별명은 '한국신흥불교 제조창'이다. <미륵신앙과 용화세계> <사명 대사> <의상대사> <무학 대사> 등 수 많은 전기소설을 쓰면서 헤아릴 수 없는 신통과 비화(秘話)를 기록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백장미의 꿈> <청춘의 비밀> 같은 문예소설을 써서 실감미 나는 새로운 인생을 구상하고 창조했기 때문이다.

언제나 박사님의 손에는 책이 떨어지지 않았고, 작은 검정 가방 속에는 몇 편의 원고가 담겨져 있었다.

"박사님은 고향이 어디 이십니까?"

야 하는 건데, 급한 성미에 눈앞에 일을 달성코자 하니 멀리 보는 눈이 작았지."

이렇게 1991년 나이 80세로



⑥ 법대로 실천하는 힘
⑦ 위의 구족력
⑧ 용맹정진력
⑨ 신심무진력
⑩ 성취중생력이 그것인데, 나에게는 위의 변재력(辯才力)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나 박사님은 늘 말로 부족한 논리를 다시 글로 써서 승부를 겨루곤 하였다. 이렇게 박사님께서는 항상 스스로 부족한 점을 가지고 후배들을 지도해 주셨다. 반대로, 김어수 법사님은 위의 적정한 덕과 사교 능란한 덕화로 포교를 하셨다. 우리시대 불교 포교사 가운데 이종익 박사님 만큼 많이 아시는 분도 드물었다. 특히 용맹정진력으로 부족한 기력을 살려가면서 위력을 성취코자 노력하

다수의 전기소설 집필 '한국신흥불교 제조창' 별명 얻어

"암하노불(岩下老佛: 바위 아래 늙은 부처)이지. 그래서 힘이 없어."

"늙은 부처가 한 번 일어나면 앉을 틈이 없다 하던데요."

"돌에 부딪쳐 일어날 수나 있는가. 나는 1929년 금강산 운악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지. 1937년 일본 교토 화원중학을 필두로 일제전문학교, 다시쇼(大正)대학을 졸업하고, 1945년 귀국하여 불교혁신운동, 청년운동을 주도하였으나 건강이 잘 따라 주지 않아 큰 일은 할 수 없었어."

"경기상업학교, 단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교수를 거쳐 다시쇼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으시지 않했습니까?"

"그랬어. 모두가 학구병이지. '보조사상 연구'로 조계종학을 정립하고, 고려불교와 동양철학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으나 성과는 거두지 못했어. 원효스님처럼 거시적인 세상을 살아입적하실 때까지 계속 읽고, 쓰고, 말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에 비하면 성과가 크지 못하다는 말씀이다.

박사님의 학문에 비하면 목소리가 작아 그의 기량을 마음껏 펴내지 못했다. 사담(私談)이나 논단에 있어서는 일보의 양보함이 없는데, 막상 높은 단 위에 올라가면 대중을 압도하는 힘이 부족하였다.

박사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단점을 잘 아셨다.

"내 한 가지도 부족한 점이 없는데, 바로 이것이 부족하여 기가 죽는단 말이야. <화엄경>에 포교사가 되려면 열 가지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① 법을 잘 알고
② 능히 잘 펴고
③ 대중가운데 서도 두려움이 없고
④ 말이 끊어지지 않고
⑤ 선교방편력

였던 위대한 포교사다.

특히 초기 조계종단, 법상종, 천태종, 미륵종 같은 데서는 자신들의 종학에 제일가는 대변자로 이종익 박사님을 내세웠다. 특히 진관사의 역사를 밝히고 불국사의 비화를 써서 '효행불교'와 '해원상생(解寃相生)의 불교'를 강조한 일은 누구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흥분하시며 독서당 문인들의 '삼각산' 시를 읽는 모습을 잊지 않고 있다.

"누가 이 세상 혼돈의 껍질을
깨고 최초에 태어났던가
삼각산 봉우리 늘 푸르고 구름
위에 우뚝 솟아섰네
그윽한 골짜기에서는 봉황이
날고 흰 호랑이 뛴다
그러나 흰 구름은 말 없이 하
늘을 덮고
촉촉이 땅 위에 비바람을 나리고 있네."

※ 카다로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덤핑으로 판매하는 타사 제품과 종이 질(두께), 스프링 제본 등 견고함을 비교하여 주세요!

역시 이름값하는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폐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산사에 피는 야생화 -大, 小 (3단 카렌다)


아름다운 기도-大, 小


깨달음의 길을 간 큰스님-大, 小


이루어주소서-大, 小


보현행자의 서원-大, 小


禪의 미소-大, 小


동자승의 세계-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달라이라마의 행복이야기-大, 小


법음이 있는 산사-大, 小


수행의 길-大, 小


연꽃의 향연-大, 小


아름다운 절 -大, 小


피안으로 가는 길-大, 小


탑이 있는 풍경-大, 小


적멸보궁과 기도처-大, 小


관음의 미소-大,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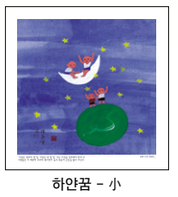

산사에 피는 들꽃-大, 小


선승의 노래-大, 小


깨달음의 미소-大, 小


세계불교 성지순례 -大, 小


염화미소-大, 小


하얀꿈 - 小

규격 특대호-국전 (91.9×61.5cm) | 한지-국 3절 (30.5×63cm) | 大-국 6절 (30×31cm) | 小-4×6 12절 (25.5×26.5cm) | 탁상용 (21.5×15cm) | 미니 차량용 (8.8×9.5cm) | 메모 수첩용 (9.5×13.5cm)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TEL. (02)723-4306 FAX. (02)738-8682 www.gamro.net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24>

물질적 풍요가 '삶의 행복' 기준일 순 없어

성장지상주의에 얽매이지 않는 행복한 국가 '부탄'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 공조로 최악의 경기침체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듯하다. 일본 노무라증권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1.0%에서 내년 3.9%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8%대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20년간 5배 이상의 경제규모로 성장하게 된다. 20년 후, 세계 전체의 자원 에너지 공급이나 지구환경의 오염, 파괴가 어찌될 것인가. 그 비극적 상황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글로벌시대 한 나라의 삶의 질은 주변국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중국은 세계 석탄의 40% 이상을 소비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은미세먼지 중독 물질이 많이 발생한다. 앞으로 세계 3대 수은미세먼지 오염지역은 서유럽 및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 양자강유역에 큰 홍수가 나면 많은 강물이 서해로 흘러들어 염도가 낮아짐으로써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초래된다. 이는 한반도의 기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3년 사회건강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사회적 건강은 1980년대에는 나라경제가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했으며, 1999년에는 20년 전의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 피터 드러커가 지적 했듯이 한국인들은 불과 3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됐다. 그런데 한국인의 삶의 질이 경제성장의 수준만큼 빠르게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흔히 1인당 GDP(국내총생산)라고 한다. 그러나 OECD는 <성장을 향해>라는 보고서에서 웰빙(well-being)의 '가장 덜 불완전한 지표'가 바로 1인당 GDP라고 했다. 실제로 삶의 질을 나타내는 경제 복지지표로서 1인당 GDP보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를 중시한다. GNI는 GDP에서 우리의 생산요소가 외국에서 받는 소득(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내외 외국요소에게 지불하는 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을 뺀 것이다. 따라서 GDP는 GNI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국민의 평균 복지수준을 알려면 이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NI를 보아야 한다. GNI가 빨리 증가하더라도 인구가 더 빨리 증가하면 1인당 GNI는 감소한다. 그리고 GNI가 감소하더라도 인구가 더 빨리 감소하면 1인당 GNI는 오히려 증가한다. 그러므로 국민생활량의 질을 나타내는 복지수준을 알려면 양자를 다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GDP로 표시되는 성장과 복지수준은 겉치레의 풍요로움이다.

GDP 산정의 구체적 예를 들어보자. 도로에서 두 대의 자동차가 달리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자. 구조용 헬리콥터, 의사, 간호사, 해체서비스, 차의 수리나 새 차의 구입, 법정투쟁, 상해자 간병, 소득의 손실보상, 보험대리점의 개입, 신문기사, 가로수의 정리, 이런 것들은 모두 직접적 경제활동으로 간주되어 지불이 필요하다. 이리하여 가령 사고 당사자의 생활수준은 개선되지 않은 채 큰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풍요로움' 즉, GDP는 증대한다. 교통사고는 상기한 바와 같은 다면적인 지불과 수요를 야기하므로 GDP를 증대시켜 겉치레의 풍요로움을 증가시키게 되지만, 사고 당사자는 불행에



그림 · 김필헌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진짜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지표란 무엇인가? 그런 지표로 측정했을 때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과연 어디일까? 최근까지 절대군주제에서 마침내 최근(2008년)에 민주정치제(양원제)로 이행한 '부탄(Bhutan)'을 실례로 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탄에는 왕실과 반동적인 민중이 있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결과일 거라고 속단하기 쉬운데, 사실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세상 돌아가는 흐름에 개명한 왕실이 솔선해서 국민들을 설득하여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민주체제로 이행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왕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90%는 정치의 민주화에 반대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자기들에게 하심(下心)하는 국왕을 신뢰하고 경애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탄왕실은 그런 많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왕주도로 입헌군주제로 이행했다.

부탄의 국민들은 왜 굳이 시장경제 원리나 서구형 민주주의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생활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1972년, 당시의 국왕이 '국민의 행복은 결코 물질적 경제성장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GDP의 추구보다는 GNH(국민총행복량=Gross National Happiness) 지표를 국가이념으로 내걸었고, 그 방침을 대부분 국민들이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탄국왕이 이미 30여년전에 GNH이란 개념을 제시한 그 선견지명에는 실로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수량으로 측정되는 GDP에 대해서 도대체 GNH의 척도는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철학상의 답이 없는 큰 화두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부탄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부탄 사람들이 티베트 불교에 정신적 기반을 둔 전통적인 생활을 지켜나가고, 그와 동시에 풍요로운 자연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부탄 국민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전통문화나 자연과 함께 공생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부(富)를 산출하는 자본주의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부탄은 결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일 것이다. 실제로 부탄의 1인당 GDP는 1,770달러(2007년) 정도로, 세계 전체에서 122위로, 우리나라(19,730달러)뿐만 아니라 물론 미국(46,040달러) 등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나라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이 나라를 방문한 사람들의 한결같이 놀란 소감이 사람들의 얼굴이 정말 '여유롭고 밝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선진국 인간의 향수'를 가지고 멋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방문자의 인터뷰 조사에서 사람들이 "지금 자기 생활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중국, 인도와 접경한 부탄은 물자가 결코 풍부하지 않고, 경제의 인프라도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다. 그러나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생활을 불만 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여유롭고 행복한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성장지상주의의 가치관에 얽매여 있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 법을 어기고 이기적인 속셈을 차리려는 분위기를 찾기 어려운 사회적 평온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난하지만 그로 인해 정신까지 침식 당하지 않는 사회의 건전성이 빛을 발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지난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안성 난실리를 다녀왔다. 교외에 나가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맛보자는 뜻도 있었지만, 난실리에 위치한 '조병화 문학관'에서 개최하는 친구 김광규 시인의 시 낭송회가 있다 하길래, 오랜만에 친구의 얼굴도 보고 그의 부드럽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들려주는 자작시 낭송도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김 시인과 나는 중 · 고등학교 시절 조병화 선생으로부터 함께 국어 작문을 배운 동기동창이자 누하동, 적선동을 오가며 어린시절을 지낸 오랜 친구다. 뜻밖의 곳에서 예상치 않은 친구를 만나 그도 반가웠던지, "별 데를 다 다니네." 하며 씨익 웃어 보였다.

모두 여섯 편의 자작시를 낭송하고 낭송회는 끝났는데,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워 기어코 그를 우리 집으로까지 납치하여 와인잔을 몇 순배 기울이고 돌려 보냈다. 그날 낭송한 그의 시 중 가장 마음에 남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에서 인용한다.

4.19가 나던 해 세밑/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중략)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중략)

허달의 불교와 코칭

스스로 자기기만의 상자 밖으로 나와야

자기기만의 상자 속에 숨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에 잠시 연민하는 서글픔을 연출하다가, 삶의 늪으로 되돌아 가는 '혁명이 두려운 우리들'을 보라.

미국 아빈저연구소라는 곳에서 출간한 <리더십과 자기기만>이라는 책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기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외면하는 자기배반(Self-betrayal)의 순간 자기기만의 상자 속으로 들어간다. 그 상자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 뿐 아니라, 남과 주위 여건을 비난하는 논리까지 만들어 점점 더 깊이 숨어버린다는 것이다. 상자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소용 없게 되어버린다. 스스로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일, 남을 변화시키려는 일, 새로운 기술이나 해법을 활용하는 일,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는 일, 상황을 놓아두고 선선히 물러나는 일 등이 불가능해진다.

코칭은 고객을 상자 속에서 나오게 작용하는 일이므로, 코치는 의당 스스로 상자 밖에 나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상자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당연한 말이지만, 먼저 자신이 상자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남을 비난하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징조들이 자신에게서 발견된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이미 상자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 다음 단계는 상자 밖 장소를 찾는 일이다. 상자 밖에 있는 어떤 관계 또는 기억, 예를 들어, 자신의 마음이 풍요로웠던 상태, 왜곡되지 않았던 상태 등을 기억해 내고, 그 상태에 머물면서 주어진 상황을 상자 밖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른 바 관점의 전환(Perspective Change)이다.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된다. 이를 망설임 없이 실행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실행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자기배반/자기기만의 무기력한 사이클로 되돌아가게 된다.

어느 워크숍이든 시작할 때면 늘 참가자들에게 우스개 소리 삼아 하는 말이지만, 성인 교육의 문제점은 그 교육이 거의 모두 '반납교육'이라는 점이다. 워크숍 중에 받은 감동, 스스로 얻은 교훈, 결심, 행동계획 등 모든 것을 이름표와 함께 교육장에 반납하고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 점에 유의해 코칭에서는 매 세션의 마무리 부분에 책무(Accountability) 부여라는 과정을 수행한다. 책무부여라고는 하지만 코치가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자신의 책무를 선택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일이다. "오늘 느낀 것을 바탕으로 하여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언제까지 시행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시행했다는 것을 코치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등의 질문에 답을 받아 두는 것이다.

명상이라는 말은 바바나(bhavana)라는 범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며, 그 원 뜻은 '마음 밭을 갈아 일군다(cultivate/develop)'는 뜻이다. 마음이 만든 자기기만의 상자를 명상을 통해 벗어내고, 늘 청정한 자리에 서서 내면의 소리를 들어 준행(遵行)하는 일, 불자 코치가 원(願)을 세워 부여 받은 스스로의 책무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약수 토굴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수제화 고무신코 만 행 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C759-172009.11.252:12PM페이지1(1,1)

"헛이름 나면 무엇하나, 내 공부를 마쳐야지"



해인사 퇴설당에는 태백산 도솔암에서 깨달음을 얻은 일타도 이미 와 있었다. 혜암은 일타의 오도송을 좋아했다. 정진하여 득도한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게송이었다. 일타의 오도송은 시비와 열뇌(熱惱)를 떠난 안락한 극락의 공간이나 마찬가지였다. 마음속이나 마음 밖이나 새가 날고 꽃이 피어나 광명이 넘치는 세계였다.

몰록 하룻밤을 잊고 지냈으니
시간과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
문을 여니 꽃이 웃으며 다가오고
광명이 천지에 가득 넘치는구나.
頓忘一夜過 時空何所有
開門花笑來 光明滿天地

단숨에 읊조린, 물 흐르듯 꽃이 피어나듯 한 게송이었다. 혜암은 늘 일타의 타고난 자비와 재주를 인정했다. 반면에 일타는 혜암의 한결같은 정진력을 부러워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탁마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도반이었다. 두 사람의 성품대로 퇴설당의 정진 분위기는 서로가 따뜻한 기운을 주면서도 법을 궁구할 때는 가차 없이 차가웠다.

혜암은 참으로 오랜 만에 정진의 기쁨을 누렸다. 참선이 마음을 한없이 충만하게 했다. 마음은 순일하고 무잡(無雜)한 경지에 올라 있었다. 세상의 오욕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

"그기 누구고."

"묘관음사에 계시는 향곡 스님, 도선사에 계시는 청담 스님이 있잖습니까."

"하하하. 발밑이 어둡다더니 나만 몰랐네."

"염주를 목에 걸고 염주를 찾는 격입니다. 하하하."

"마음에 맞는 세 사람의 도반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데이. 혜암, 일타, 법전 수좌가 우리 해인사를 이끌어갈끼라."

혜암이 즉시 반박했다.

"중이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 사람이 어쩐다는 말씀입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알기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아나. 지금 그것이 눈앞에 있는기라."

성철이 세 사람을 두고 해인사를 이끌어간다는 말은 해인사 주지가 된다는 뜻이었다. 실제로 혜암은 3년 결사를 풀지 않을 수 없는 사건과 부딪쳤다. 타오르는 불길처럼 한참 솟구치던 선풍이 갑자기 차갑게 식었다. 방장이던 성철도 전면에 나설 수 없는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다. 누군가가 나서 어수선한 선방과 해인사를 다잡고 되돌려야 했다.

백련암으로 올라간 혜암은 난감했다. 성철이 혜암더러 해인사 주지를 맡아달라고 강권하기 때문이었다.

"절 분위기를 수습할 사람은 혜암 수좌밖에 없다카이."

"제가 나설 것이 뭐 있습니까. 세월이 가면 잘 해결될 것입니다."

"지월 스님이 주지를 사퇴했어도 분위기가 뒤숭숭하지 않나. 배에 선장이 내리니 그런기라. 그러니 혜암수좌가 주지 해라."

"해인사를 떠나겠습니다. 일타 스님이나 법전 스님도 있지 않습니까."

"허허, 그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말 아이가. 지금은 강단 있는 사람이 나서야 어수선한 분위기가 가라앉는데이. 나도 책임을 지고 방장을 사퇴할끼다. 주지도 사퇴했는데 무슨 낯으로 가만 있겠노."

"그건 안 됩니다. 더 소용돌이치고 말 것입니다."

소위 '구들장 사건'은 해인사를 뒤흔들었다. 사판승인 삼직스님과 이판승인 일부 수좌들과의 마찰은 급기야 주지와 방장의 사퇴로까지 확산되고 있었다. 사건의 단초는 일부 수좌들의 불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구들장 사건'은 지월이 주지를 맡고 있던 1970년 동안거 중에 일어났다. 선방 정진만 하던 지월은 주지 같은 소임에는 흥미가 없었으므로 총무 스님에게 절 살림을 일임하다시피 했다. 지월의 상좌인 총무 도성은 원칙대로 절 살림을 하라는 지월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랐다. 총무 스님은 수좌를 우대하고 배려하는 해인사 선방 풍토에 반기를 들었다. 어려운 절 살림을 꾸려나가라면 수좌들이 한 발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공양 음식도 강원과 율원, 선방 구분 없이 공평하게 했다. 선방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떡이나 과일 등의 특식을 올리지 않았다. 공양 때의 반찬도 가짓수를 줄이는 등 검박하게 바꾸었다.

어느 새 선방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

"주지스님 상좌가 총무를 맡더니 주지 행세를 하는구먼."

삼직스님들의 수좌들에 대한 불만도 컸다.

"성질내는 내가 따로 있고, 도 닦는 내가 따로 있는 것인가. 도 닦는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불평하다니 부끄럽지 않은가."

이윽고 해인사 전대중이 모여 회의를 부치는 대중공사가 벌어졌다. 그러나 보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갈등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고, 모두에게 명분이 있었으므로 서로가 물러서지 않았다. 대중공사도 무위로 끝나자 선방 수좌 몇몇이서 분기탱천했다. 주지를 믿고 선방 수좌들을 박하게 대하는 총무 스님을 겨냥했다. 몇 명의 수좌가 곡괭이를 들고 총무 스님 방으로 가 구들장을 파내버렸다. 구들장을 파낸 것은 해인사를 떠나라는 최후통첩인 셈이었다.

그러자 지월이 대중 앞에서 모든 허물은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며 눈물을 흘리고는 바로 주지를 사퇴했다.

"부덕한 소승이 주지를 맡는 바람에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제가 큰 허물을 지었습니다.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총무도 해인사를 떠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구들장 사건'의 여진은 오래갔다. 동안거가 지나갔지만 대중들이 모이기만 하면 의견이 분분했다.

"중벼슬 닭벼슬만도 못하다는 옛 스님들의 말도 듣지 못했는가. 삼직이 어떻게 공부하는 수좌를 무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참선하는 수좌들만 공부하는 것인가. 부산으로 가는 길도 길이요, 서울로 가는 길도 길이 아닌가. 도에 이르는 길이 어디 하나만 있는 것인가!"

"삼직스님들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나. 부처님께서 탁발하시는 동안 음식을 타박한 적이 있나. 살림이 궁핍하니까 전 대중이 골고루 어려움을 나눠가져야지."

"수좌들이 자신들만 도 닦고 있다는 상(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

사건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는 것은 주지의 공백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결국 혜암은 성철의 권유를 또 뿌리치지 못했다. 수좌들을 대표하는 유나 소임을 맡았으므로 자신도 '구들장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혜암은 산철과 하안거까지 5개월만 주지를 맡기로 하고 먼저 성철 방장스님 체제부터 다시 다졌다. 방장스님을 바로 모셔야 선풍이 고양되고 총림에 기강이 서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선객들은 저절로 모이게 마련이었다.

어느 날 일타가 혜암을 위로했다.

"혜암 스님, 주지를 맡는 것도 하화중생의 일이니 그리 섭섭해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일타 스님이 주지를 하시는 게 어떻겠소."

"아이구, 스님. 저는 공부할 것이 더 남아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러나 1년 뒤, 해인사 대중들은 일타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성철의 묵인 하에 해인사 주지로 선출하여 버렸다. 혜암이 주지를 그만 두고 다시 공백이 생긴 1971년도의 일이었다. 그때 일타는 즉시 백련암으로 올라가 고사했다.


그림 · 최문정

수좌들 '구들장 사건'에 해인사 주지소임 공백
일타는 주지직 고사하고 도봉산 토굴로 떠나

포행 시간에는 일타와 함께 백련암 오르는 산길을 산책하기도 했다.

"일타 스님, 스님의 오도송을 나는 사모곡이라 생각해요."

"혜암 스님, 사모곡이라고 했습니까."

"스님의 어머니께서 스님을 중 만들라고 내원사 추금 스님한테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공부해서 대오하는 것이 크게 효도하는 일이지요. 그런 이치로 스님의 오도송은 사모곡이 되는 겁니다."

"내 게송을 사모곡이라고 하니 속가 어머니 성호 스님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스님의 출가 내력을 알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련암에는 성철이 주석하고 있었다. 성철은 그 산길을 이용해서 백련암을 오르내리곤 했는데, 산길에서 마주친 성철이 이런 말을 토로할 때도 있었다.

"두 수좌만 해인사에 있어도 절이 가득 차 보이는데 법전 수좌까지 합친다면 어떠하겠나. 서로가 밀고 당기고 탁마하는 사이에 여기까지 이른기라. 이 세상에 세 수좌 같은 도반들도 없데이. 나는 부럽구마."

"방장스님께서도 세 도반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일타는 해인사 주지가 결정된 다음에야 돌아왔다. 지족암에 머물면서 안거 때는 퇴설당에서 정진하고 산철에는 전국의 여러 사찰을 돌아다니며 법문하는 것으로 회향했다.

해인사를 떠나 봉암사 백련암으로 간 혜암은 다음 해 여름까지 숨어 지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광명화 보살이 찾아와 공양주를 했다. 그러나 그때 광명화 보살은 담석 때문에 몸도 가누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오히려 혜암이 광명화 보살의 공양을 챙기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혜암이 광명화 보살을 매몰차게 채근했다.

"보살, 뜰 앞의 풀을 뽑으소."

"시님, 몸이 이 지경인데 어찌 풀을 뽑을 수 있겠십니꺼."

광명화 보살이 섭섭하여 투덜거리자, 혜암이 불벼락을 내렸다.

"보살, 몇 푼어치나 아픈가!"

순간 광명화 보살은 몸이 가뿐해지면서 뭔가 머리를 스쳤다. '몇 푼어치나 아픈가!'란 언하(言下)에 '이뭐꼬'가 들렸다. 마당으로 나가 풀을 뽑는데도 '이뭐꼬'가 사라지지 않았다. 비로소 보살은 혜암을 시봉하는 것도 수행이라고 깨달았다. <계속>



56개 주제로 배우는 초기불교 정수

각묵 스님 4년간 역경수행으로 '상윳따 니까야' 6권 완역

20여년 전부터 남방 불교국가에서 도입된 위빠사나 수행 붐이 마침내 지난 10월 31일, 실질적인 교단인 (사)한국테라와다불교 창립을 이루는 등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 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빠알리 경장(經藏, 니까야)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상윳따 니까야(주제별로 모은 경들)>가 모두 한글로 완역됐다.

빠알리 니까야의 첫 번째인 <디가 니까야(장아함경)>를 2006년 교계 최초로 완역한 각묵 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교수사)이 4년간의 역경(譯經)수행을 통해 6권으로 완역한 <상윳따 니까야>는 부처님의 설법을 56개의 주제로 분류해 결집한 경이다. 현대적 판본의 기준이 되는 PTS(Pali Text Society)본 2889개 경과 미얀마본 2908개 경을 참조해 모두 2904개의 경들을 편집해서 옮겼다. 두타행을 실천했던 부처님의 심인(心印)을 전수한 가섭 존자의 제자들이 후대에 전승한 <상윳따 니까야>는 불교교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불교 전통교학을 계승해 총 3500 개가 넘는 주해(註解)를 달아 수행자들의 공부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책은 범어원전에 대한 한국불교의 이해수준을 한 차원 높인 역작으로 평가된다.

<상윳따 니까야>에 포함된 56개 주제(상윳따)는 ①교학과 수행 중심의 '연기 상윳따'등 26개 ②인물 중심의 '꼬살라 상윳따'등 15개 ③특정한 존재 중심의 '천신 상윳따'등 8개 ④인간 중심의 '비구니 상윳따'등 5개 ⑤기타 '숲 상윳따'등 2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묵 스님은 이러한 56개 주제를 제1권 '게송을 포함한 가르침', 제2권 '연기를 위주로 한 가르침', 제3권 '오온을 위주로 한 가르침', 제4권 '육처를 위주로 한 가르침', 제5권 '수행을 위주로 한 가르침', 제6권 '진리를 위주로 한 가르침'등 모두 6권으로 구성했다.

각묵 스님은 "빠알리 삼장은 불교 만대의 뿌리여서 모든 불교의 표준이 될 수 밖에 없는 부처님 원음(原音)을 담고 있다"며 "초기불전의 매개언어인 빠알리어는 한글과 언어체계가 같아 한역 경전이 범할 수 있는 오역의 소지가 적다"고 설명했다. 각묵 스님은 "부처님 근본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초기 경전과 부처님 직계 제자들이 만든 다양한 주석서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중국불교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한국불교의 주체적인 전통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상윳따 니까야>가 완역됨으로서 초기불전연구원(원장 대림)은 지난 2006년 1월에 완역한 <디가 니까야>와 2006~2007년에 대림 스님이 전6권으로 번역한 <앙굿따라 니까야(증일아함경)>에 이어 모두 3개의 니까야를 완역하게 됐다.

초기불전연구원(cafe.daum.net/chobul)은 2010년 5월 <맛지마 니까야(중아함경)>를 전3권으로 번역(대림 스님) 출간해 4부 니까야를 모두 완역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율장(위나야 삐따까)과 논장(아비담마 삐따까), 소부(쿳다까까 니까야)의 장로게, 장로니게와 빠알리-한글 대사전도 출간할 예정이어서 초기불전 역경사업이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각묵 스님은 "부처님 원음이 우리 말과 글로 이 땅의 자손만대에 전승돼 한국불교의 튼튼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후원: (041)668-8579

상윳따 니까야(전6권) | 각묵 스님 역주 | 초기불전연구원 | 각권 3만원 김성우 기자


각묵 스님.

부처님 지혜로 고통 속 희망 · 행복 찾기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 21년만에 산문집 펴내


청화 스님.

"향기를 따라가면/ 꽃을 만나고/ 법을 좇아가면/ 꿀을 얻는 법./ 인생은 누구도/ 두 번 갈 수가 없는 길/ 문 열고 나온 사람아/ 어디로 갈 것이냐…." 前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정릉 청암사 주지)의 '향기를 따라가면 꽃을 만나고' 라는 시다. 이 시의 제목에서 '향기'란 아마도 '부처님 법'을 말할 터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가면 마침내 방편의 배를 타고 열반이란 저 언덕에 도달할 것임을 암시하는 시다. 197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조 '채석장 풍경'으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한 청화 스님이 이 시와 같은 주제, 같은 제목으로 <향기를 따라가면 꽃을 만나고>라는 산문집을 21년만에 펴냈다. 청화 스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에세이집을 낸 것은 삶의 고통 속에서 희망과 행복을 찾아가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힘든 세상이지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불교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성찰하고, 인간의 삶 쪽에서도 불교를 바라보게 하는 이야기들을 담았다. 한 마디로 스님의 메시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고통이 없는 안락한 삶과 인생에 대한 바른 안목을 얻고 특히 인격적으로 허물 없는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편의상 3부로 편집됐다.

1부의 주제는 성찰이다. 사람들의 얼굴은 왜 같지 않는가? '네 종류의 친구', '비린내 나는 행위', '눈 뜨고 잠자는 사람' 등등. 이런 제목하의 성찰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진지함이 있다.



2부의 주제는 불교의 행복론이다. 진리에 의한 행복, 식견에 의한 행복, 윤리에 의한 행복, 자비에 의한 행복, 도덕에 의한 행복 등등. 이는 세인들의 관심 사항인 행복에 대해 스님이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3부의 주제는 각성이다. 여기에는 '소리 있는 물', '소리 없는 물', '노력하는 삶', '비가 새는 지붕', '사람의 네 가지 모습' 등의 소제목들이 있다.

다양한 삶의 주제를 깊고 넓은 시각으로 통찰하는 스님의 글은 때론 방황하거나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감로와 같은 이야기들로 에너지와 감동을 준다. 스님은 이 책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롭게 살라는 것"이라고 당부한다.

향기를 따라가면 꽃을 만나고 | 청화 스님 지음 | 개미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한·중 선사 6인에게 듣는 '금강경'의 골수

이인혜 불문연 연구원, 금강경오가해·설의 번역



"<금강경>은 무상(無相: 고정된 형상이나 관념이 없음)을 종지로 삼고, 무주(無住: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음)를 바탕으로 삼고, 묘유(妙有: 있음과 없음의 대립을 떠나 존재하는 양상)를 작용으로 삼는다."

(육조 스님의 <금강경> 서문)

선종과 <금강경>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선종의 주안점이 '반야에 대한 안목(般若眼)'을 갖추는 데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종의 6조인 혜능 대사가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應無所住 而生其心)"는 <금강경> 4구게를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밝아져, 5조 홍인 대사 문하로 출가한다. 이후 6조가 5조로부터 다시 <금강경> 법문을 듣고 확철대오해 전법인가를 받은 이래, <금강경>은 한국의 조계종을 비롯한 선종의 소의경전이 된 것이다.

1000 여종에 달하는 역대 <금강경> 주석서 중 가장 권위 있는 주해(註解)로 꼽히는 중국의 <금강경 오가해>를 한국적인 시각으로 해설한 <금강경오가해 · 설의>가 번역 출간됐다.

봉선사 불경서당에서 월운 스님께 경론을 배우고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동국대 이인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이 번역한 이 책은 난해한 원문을 현대적인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역작이다.

<금강경오가해 · 설의>는 중국의 규봉종밀 선사, 육조혜능 선사, 부 대사, 야보도천 선사, 예장종경 선사의 해설을 묶은 <금강경오가해(五家解)>에, 조선초기 함허득통 선사가 정리하면서 총평을 단 '설의(說宜)'가 추가된 책이다. <금강경오가해 · 설의>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공부와 실참으로 들어가 보자.

금강경오가해 · 설의 | 함허 편저, 이인혜 역주 | 도피안사 | 3만 원 김성우 기자

원각사 주지 대혜 스님 30년 포교 · 수행관 담아



원효 대사가 어느 날 시주를 다녔는데, 어느 집에서 시주자가 질문을 했다.

"불교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소설 <원효대사>의 이 장면을 읽고 출가자의 길로 들어선 선산 원각사 주지 대혜 스님이 30년간의 수행과 포교 이야기를 담은 <부처님은 영원한 동행자이시며>(해조음)를 펴냈다.

책에는 경주불교문화원을 개원해 포교의 전법사를 자임한 대혜 스님이 어린이 · 학생법회와 재소자 · 경찰법회 등을 주관하며 느낀 체험적 불교관을 진솔하게 담고있다. 스님은 '바다와 같은 법을 전하며' '신행의 씨앗' '기도 수행' '포교의 전법사가 되어' 등 7부로 나눠 일상속의 정진방법과 신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부처님은 영원한 동행자이시며 | 대혜 스님 지음 | 해조음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그냥 무조건이야	대행	한마음선원
2	사는 즐거움	보경	뜰
3	생활 속의 참선수행 이야기	권영두	운주사
4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5	부처되는 공부	우학	뜰
6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7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8	인과경	현담	선
9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10	날마다 웃는 집	법륜	김영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 30권중 14권 출간! 최초로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원문을 새길 수 있도록
직역한 초발심자경문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합장

8치, 1자, 1자 2치, 크기로 조성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식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째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예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비구, 가섭삼형제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
(우루빈나가섭의 오백제자, 나제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야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을 말합니다."

◈ 1,250 나한도 1권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애경)

불사 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여러분의 오늘 운세는?
백팔번뇌 파자비결에 있소이다



◉ 갑골문자는 하늘의 계시로 기록한 점서(占書)이며 한자(漢字)의 모체로 신통력이 있다.
◉ 갑골문자를 모체로 한 한자(漢字)는 **변(邊)과 체(體)가** 역(易)을 근본으로 음양오행이 조화되어 철학적 가치가 있다.
◉ 백팔번뇌 파자비결은 한자의 변(邊)과 체(體)을 음양오행으로 파자(破字)하여 천부의 계시를 표의(表意)하였으므로 미신이 아니다.
◉ **격암유록 정감록비결도** 파자(破字)의 신통력으로 미래의 국운을 예지한 예언서이다.
◉ 누구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매년 매월 매일 매시의 운세를 **108장의 파자비결의** 신통력으로 볼 수 있다.

▶ 무료강의내용 ◀
파자비결 .생활풍수(실내인테리어) **월.수.금 2개월 무료**

서울시 종로구 종로 3가 160 플래티늄 빌딩 403호 송암출판사 강의실
주문전화 02)2266-8823 H.P 010-7742-3111

현대 속 전통 · 전통속 현대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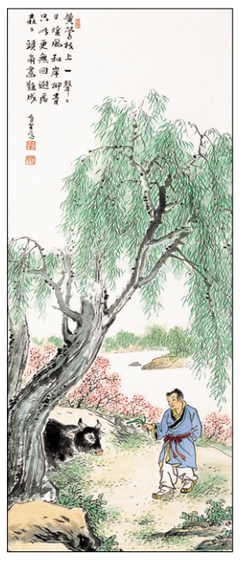
수당 김종국 화백 고희전 30일까지 쿠오리아 갤러리

한국화의 세계화를 위해 53년 동안 동양화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수당 김종국 화백의 고희전이 30일까지 서울 용산 크라운해태 쿠오리아 갤러리에서 열린다.

그간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성공적인 전시를 열어온 김종국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현대 속의 전통, 전통속의 현대'란 주제로 수묵담채와 견본채색화 및 도자기 작품 등 총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십우도(十牛圖)' 작품들은 야일(野逸)하게 표현된 선과 밝고 화사한 채색으로 김 화백의 예술 경지가 얼마나 무르익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한다.

미술평론가 최도송씨는 "수당은 세장함과 야일함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동시적으로 표현한다"며 "기교의 초월한 완숙미에서 오는 표현의 자유로움이 높은 격조를 이뤄낸다"고 설명했다.


김종국 화백의 '십우도'.

김 화백은 전통적인 미감을 바탕으로 시대의 추이와 무관하지 않게 표출하는 작업을 고집해온 작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는 한국화의 미를 새롭게 평가하고 알리며 한국 전통회화의 가치를 구현하는 자리이다.

김종국 화백은 이번 전시작품을 마치고 "다음에는 필과 형의 파격뿐만 아니라 색과 재료에 대해서도 일체 걸림 없이 모든 걸 내려놓은 작품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고 거기에 시대미감을 반영하며 자기 양식을 지켜나가는 김 화백의 전시를 통해 세태를 초월한 예술정신을 감상해 보자. (02)709-7404

이은정 기자

밀양불교합창단 합창경연대회 대상

조계종 문화부 개최 불교합창페스티벌 성료

조계종 문화부가 11월 15일 개최한 '2009 불교합창페스티벌'의 불교합창경연대회에서 밀양 불교사암연합회 밀양불교합창단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에는 서울 관음사합창단, 부산 법연원합창단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부산 한마음선원합창단, 청주 명장사 관음합창단, 대전 비구니 청림회합창단, 대전 진각종 심인합창단, 부여 보리사 보리수 합창단, 공주동학사 합창단, 대구 여성불자연합회 우루벨라합창단, 대구 한국불교대학 가릉빈가합창단, 포항불교사암연합회 포항BBS불교방송합창단 등 9개 팀에게 돌아갔다.

이날 합창경연은 합창단간의 경쟁을 줄이기 위해 시상분야를 축소시키고 상금차이도 줄였으며 참가하는 모든 팀에게 상금이 돌아가도록 했다.

불교음악예술원(원장 이달철)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귀련)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출연진


불교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밀양 불교사암연합회 밀양불교합창단.

1400여명, 관중석 1800여명 등 3000여명이 넘는 사부대중들의 뜨거운 열기속에 성황리에 봉행됐다.

한편 2부 행사인 원로불교음악인을 위한 특별음악회에서는 원로불교음악인들에 대한 공로패가 수여됐다. 그들의 작품을 7개 지역의 합창단이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의 연주에 맞춰 연합합창 함으로써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무대를 선보였다.

이은정 기자

단청장 석운 홍점석 선생 연화세계 단청 작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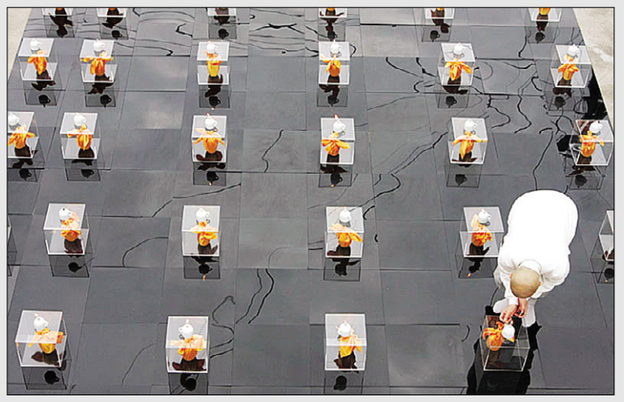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을 맞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석운 홍점석 선생이 연화세계 단청 작품전을 발표한다. 단청문양 연화장 세계보존연구회가 주최하고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삼라만상의 모든 빛깔, 연화장 단청 세계 2009'란 주제로 12월 2~8일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홍점석 선생은 "단청의 문양은 독립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연화화생적 체계에 의해 짜여져 있다"며 "이번 전시는 단청문양의 체계적 의미를 전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홍점석 선생의 이번 단청 작품발표회는 선조들의 숭고한 영혼과 민족정서를 느낄수 있는 기회이다. (02)733-5322

이은정 기자

불복장, 현대 風 해석하니…

유일한 비구니 불복장 전문가 선진 스님… 29일까지 '동이이' 작품전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술독, 불상'. '똥독, 불상'. 선진 스님. '은복여래장' 호롱불에 불을 켜고 있는 선진 스님.

"부처님 담은 그 독이요? 그거 똥독이에요(하하)."

불단 위에 장엄돼 있어야 할 부처님이 똥독과 술독에 빠져있다. 불상 내부에 장엄물을 넣는 복장(佛腹藏)의식 전문가인 선진 스님(대구 보현암 주지)은 해맑게 웃으며 말한다. 똥독과 술독 안에 빠진 부처님만으로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랄 일이나, 스님은 너무나 천연덕스럽다.

"그 똥독 구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똥독 안에 말라붙어 있는 거 진짜 똥이에요."

선진 스님은 불교 전통의식 가운데 하나인 불복장 의식을 전수받았다. 불복장 전문가가 드물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유일한 비구니가 선진 스님이다. 스님은 불복장 의식을 현대적 이고도 선(禪)적인 해석과 감각으로 재해석해 작품으로 탈바꿈시켰다.

"부처가 똥독에 들어가 있다고 부처가 아닌 것은 아니죠. 존재하는 상(相)만 다를 뿐 이 세상 모든 것이 본래 하나잖아요?"

스님이 똥을 화두로 집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건, 옛 선사들이 부처와 조사를 '똥막대기'라고 꾸짖고, 스님이 입는 옷을 '분소의(糞掃衣)'라 해 똥을 닦아낸 천을 다시 기워 만든 것에 착안했기 때문이리라.

선진 스님이 작품에 대해 고심하며 명상에 잠겨있던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생각에 "바로, 이거다"라며 작품을 만든 것이 '똥독, 불상'이라는 작품이다. 스님의 또 다른 작품 중 '술독, 불상'은 깨진 술독 안에 부처가 앉아있는 모습이다.

"처음엔 술독이 온전했는데,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 작품을 옮기던 중 그만 독이 깨져 버렸어요. 순간 너무 화가 났지만 다시 들여다보니 작품에 새로운 의미가 보태져 있더라고요."

스님의 아이디어에 우연한 사건이 더해지며 탄생한 '술독, 불상'은 비하인드 스토리만으로도 청량한 감로수와 같은 가르침이다. 더욱이 깨진 술독을 통해 바라본 부처의 모습은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세상에 법등을 밝혀주기 위해 술독을 깨고 나온 것처럼도 보인다. 더욱 성스럽지 아니한가.

작품 감상에 앞서 주지해야할 사실은 스님이 부처를 가장 더러운 똥독과 술독에 둔 것이 부처님에 대한 폄하가 아닌 최고의 공경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 스님은 생과 사, 염(染)과 정(淨), 유와 무, 미와 추, 생성과 소멸 등 둘이 아닌 모든 상을 넘어 한마음에서 비롯됨을 암시하고 있다.

작품 '은복 여래장' 또한 불복장 의식을 독창적인 추상미로 재현했다. 바닥에 깔린 100여 장의 검정색 아크릴판은 무명번뇌의 중생을 의미한다. 번뇌가 곧 보리며 중생이 곧 부처 아니던가. 또한 흰색 아크릴 상자 속 노란색 보자기는 불신(佛身)을 뜻한다. 황초 보자기 안의 후령통에는 복장물 75가지가 각각 담겨 있으며, 호롱불은 한마음, 화쟁과 평화를 상징하는 등불이다.

"작품에서 불교적인 전통 소재를 현대미술 형식에 접목시킨 까닭은 불복장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일반 대중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시켜 주고 싶었어요. 누구나 쉽게 불복장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고 부처가 돼 한마음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동이이(同而異)'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선진 스님의 전시는 작품 하나하나가 감로법문이요, 선기(禪機)가 활활발발한 법석이다.

파괴를 통해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며, 예술인이자 구도자로 숭고한 삶을 사는 스님의 전시는 29일까지 대구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다. (053)951-3300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생명있는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하시던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기도와 농사 짓는
수행속에서 직접 재배한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당조고추, 향과 맛이 뛰어난 사과, 배추, 쌀, 등등
농산물을 대덕 큰 스님 및 불자님들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와 성인병 예방에 좋은 당조고추는
많은 인기를 얻어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홍 당조고추를 가루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토원을 찾아주시는 불자님과 대중들이
직접 땀 흘리며 한점 부끄럼 없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의
수확의 기쁨을 여러 불자님과 나누고자
지면으로 판매를 알리오니 많은 애용 부탁드리옵니다.

성 불 하 십 시 오

정토원에서 재배한 농산물
1. 사과
2. 당조고추
(고추가루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3. 홍화씨
4. 배추, 고사리, 고구마, 쌀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22번지 054) 383-0407 / 010-2750-4394
정 토 원 주지 고봉 합장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54 밥은 공양-방랑식객, 임 거사 편<1>

들판에 널린 풀도 '근사한 요리 재료'

그를 다시 만난 건 모 방송국에서 방영한 '방랑식객'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에서였다. TV속의 그는 남도 갯벌에서부터 내륙의 산간 마을과 지리산 자락에 이르기까지 방방곡곡을 여행하고 있었다. 비금도 갯벌의 염전 밭에서나 지리산의 촌부락에서나 그는 부지런히 길을 떠나며 음식재료들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길 가운데에서 만난 소박하고 정겨운 사람들을 위해 인근에 지천으로 널린 재료들을 구해 정성의 음식을 지어내고 있었다.

비금도 염전밭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곳의 천일염과 갯벌과 선인장을 이용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갯벌양념과 선인장무침을 만들어내고, 지리산 자락에서 만난 할머니에게는 할머니가 "사람은 먹지 못하는 돌옷"이라며 극구 말리는 돌담의 오래된 이끼를 걷어내 "할머니에게 '돌옷'의 진실을 보여드리겠다"며 이른바 '돌옷 국물'을 우려내 맛을 보였다. 충청도 감나무골에서 만난 아흔이 다된 할아버지한테는 30년 전에 떠나보낸 할머니를 여전히 잊지 못하는 애틋한 그리움과 순정을 위해 할아버지네 처마 밑에 달아놓은 감을 따다 찹쌀과 버들을 곁들여 감떡을 만들어 선사했다. 갯벌, 선이장, 이끼, 버들, 사철나무, 그리고 사람들이 잡초로 취급해 거들떠보지도 않는 풀들까지도 그의 손을 거치면 누구도 상상 못한 근사한 요리가 되었다. 그러한 재료들은 비단 음식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릇이 되기도 한다. 이끼가 국물과 그릇이 되고, 갯벌이 양념이 되고, 선인장이 무침이 되는 공식도 없는 신통방통한 변신에 사람들을 놀랍고 새롭기만 해 "오메, 먹기 아까운 거…", "맛이 기가 막혀부리는구만!", "시방 뭔 지랄을 하는 거래요?", "약이다, 진짜 약…"이라며 제각각 살가운 표현들을 쏟아놓았다.

쉼 없이 떠나는 길 위에서 그는 그렇게 자연과 음식과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



자연요리연구가인 임 거사가 인근 풀을 이용해 만든 음식

를 만들어내며 소요하고 행복했다. 아귀소굴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여유 작작 노닐며 아름다운 삶을 지어내고, 그러한 삶을 관조할 줄 아는 그의 모습은 이미 세상이치를 통달한 듯했다. 물론 그에게도 모진 인생역경과 시련이 있었다고 한다. 젊은 날의 방황은 일치감치 시작돼 12살에 집을 나와 전국을 떠돌기 시작했고, 음식을 배우는 자리면 어디든 뛰어들어 온갖 식당의 보조로 일하곤 했단다. 음식에 빠져들수록 자신이 찾는 음식이 어느 식당에도 책에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갑갑하면 언제든 사라져 산이나 동굴에서 자기도 해 간첩으로 오인 받던 시절도 있었더란다. 음식을 만드는 자로서 재료의 속속 들이를 알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길에 난 풀잎을 닥치는 대로 뜯어먹다 위험스런 고비를 넘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구도자와 다름없던 절절했던 방황은 40대 전까지 이어지고, 그렇게 길에서 자연에서 뒹굴다 알게 된 음식에 담긴 진리는 곧 삶에 대한 통찰이자 진리이기도 했다.

"그렇게 떠돌 때 아무 조건도 없이 재워주고 먹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들이 없었다면 길에서 굶어죽었을지 몰라요. 배고플 때 수제비나 국수 한 그릇 얻어먹는 건 그야말로 꿀맛이죠…."

방황하던 시절, 자신을 걷어준 사람들의 마음을 잊지 못해 지금도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 사람마다 반갑고 고마워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그에게는 이제 '자연요리연구가'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내 몸이 곧 자연 그 자체라 들판에 널린 풀만 보아도 들썩들썩 신이 난다는 그의 음식철학은 남다르다.

"먼 거리에서 온 외국산 재료가 몸에 이로울 게 없어요. 신선도 떨어지죠, 그걸 유지하기위해 농약과 방부처리를 하는데, 세척을 한들 이미 본래의 것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내장의 거리를 넘어선 재료들은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거리는 짧을수록 좋아요. 주변에 흐드러지게 많이 나는 것들이야말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그걸 최대한 음식에 접목시켜야 돼요." (이야기 계속)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이경제 원장의 **한방**으로 지키는 건강

13 총명탕 처방

총명을 방해하는 증상과 치료법

얼마전 대학 수능 시험이 끝나고 많은 수험생들이 힘든 공부를 하느라 노고가 많았다. 평소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의 눈빛은 초롱초롱하고 말투는 차분하다. 눈이 빛나는 것은 총명하다는 것이고, 말투가 차분한 것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총명(聰明)이란 무엇인가.

'총(聰)'은 귀 밝을 총이고, '명(明)'은 눈 밝을 명이다. 한마디로 잘 듣고 잘 본다는 뜻이다. 눈과 귀로 기억을 하고, 그러한 능력이 뛰어난 이를 총명하다고 한다. 뇌가 활발하고 기가 왕성해야 총명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동의보감>에 총명탕 처방이 있다. 많은 수험생들이 머리가 좋아지는 한약이라고 먹고 있는 처방이다. 원래는 나이가 들면서 뇌기능이 퇴화되어 건망증상이 생긴 경우에 먹는 약인데, 시험의 역사가 오랜 우리나라에 머리가 좋아지는 한약으로 알려지게 됐다. 주처방은 석창포, 원지, 백복신이다. 석창포는 단기기억을 증진시키고, 원지는 장기기억을 증진시키고, 백복신은 마음을 안정시킨다. 이 모든 기억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과 직결된다.

그런데 수험생의 총명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증상들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①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과민성 대장증상의 학생.

시험 전날이나 시험보는 도중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과민성 대장증상이 악화되어 발생한다. 우리 몸의 소화기능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다. 그래서 신경성 위염, 과민성 대장증상이란 병명이 있고, 앞 글자만 모으면 신경과민이 된다.

과민성 대장을 일으키는 음식으로는 냉수, 우유, 트랜스 지방, 화학조미료, 고추 등이다. 이같은 음식을 피하고, 대장기능을 좋게 하는 음식을 먹도록 하자. 따뜻한 물, 발효음식(청국장, 된장, 요구르트), 잡곡 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민한 성격을 개선하는 것이다. 대개 과민성 대장체질은 신중하고 합리적이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모양새를 중요시 여긴다. 겉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에서 좋고 싫고를 다 판단한다. 이런 스타일 중에 과민성 대장증상이 많이 발생한다. 구기자차를 복용하거나 경옥고, 형방지황탕, 십이미지황탕 등이 효과적이다.

② 늘 졸립고 밥만 먹으면 맥을 못추는 학생.

식곤증은 비위기능이 약해서 온다. 특히 양기 부족 때문이다. 식은땀을 흘리고, 입맛이 까다롭고, 편식이 심한 학생에게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겉으론 부드럽고 속으론 치밀하다. 매사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서 늘 불안하다. 피곤하면 신경질적이다. 감정변화가 심해 변덕스럽다. 신경성 위염이 많고, 잘 체하고, 식사후에 급격하게 기력이 떨어진다. 평소 자기 내면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밖을 살피는 것이 성격수양이 된다.

대추차, 감초차를 항시 복용하거나 공진단, 십전대보탕, 이중탕 등이 효과적이다.

③ 공부하기가 싫고 산만하여 잠시도 책상 앞에 앉아있지 않는 학생.

이 경우는 뇌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공부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다. 탄수화물(밥, 빵, 면류, 과자)과 당분 과잉이 되면 산만해진다. 오메가3를 복용하고 잣, 호두와 같은 건뇌식품을 먹도록 하자.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탁한 열이 뇌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청심원이 효과적이고, 정신적 안정을 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다.

※ 총명 귀 맛사지 요법 ※

아래의 귀바퀴부터 시작해서 쪽쪽 당겨준다. 3회 정도 반복해준다. 귀를 잡아당기면 척추가 유연해지고 뇌기능이 활발해진다. 1시간 공부하고 난 후 1분 정도 총명 귀맛사지 요법을 시행하자. 자주 할수록 더욱 총명해진다.

한양방센터삶 대표원장 이경제 (02-576-7575)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氣giban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사용처
사찰, 선방, 신행단체
심신수련단체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 명품 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습니까? 말은 쉽지만 꾸준히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익)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DC

※ 제품의 특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옴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氣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현불샵만의 특별한 소식!!

현불샵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반방석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해택을 마련했습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 의 할인 해택을 드립니다.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 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 현불샵 온라인쇼핑몰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희담석합장주, 염주,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과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불자생활정보 | 21 | 제 759호 2009년 11월 25일 수요일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입금이 되어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 빙의 · 퇴마

짧은 시간에 속성으로 실전 위주로 확실하게 비법을 개인지도 함
역학 : 귀신 빼는 명리 (통변 가능한 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사성, 작명
최면 : 전생요법, 빙의, 퇴마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불상 • 탱화

아주 저렴하게 판매
사찰에서 직접 조성합니다.
어렵게 불사하시는 스님들께만
판매합니다. 소량만 주문 제작해
드리므로 불교용품점에서도 판매가
불가능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불단 제작도 해 드립니다
043)857-1259

불자 국제결혼

- 국내/ 국제 초혼, 재혼
- 일본 45세 여성 이하 무료
- 미국 영주권 취득

이너머스웨이브
대표전화 070)8813-2265
담당 010-6310-2093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영산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전수

범음범패 바라무 나비춤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전문
02)802-8554
017-219-4757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5-6
대흥사 주지 연암 합장
선망부모 천도재는 간절한 정성기도
사주, 명리 상담해 드립니다

불 자 결 혼

- 초, 재혼
- 20-50대 가능
- 국내, 국제 가능

010-4485-8888
혜덕 스님
051)515-1933

사찰 법당내 불구 , 주방기기 등 인연있는 분께 유가로 안내합니다

▶법당내 불상 및 불구
공양간 비품 등.
김해시 삼방동
010-2775-7726

스님 되실 분 (약간 00명)

- 단기출가 교육원
- 종단, 사찰 등록
- 성별, 연령, 학력 제한 없음
- 교리, 법음범패, 역학교육
- 법사 교육반 있음(보살 포함)

천태불원 승가원 대구 구성사
053)629-4916
010-8789-1399

종무소 사무 女직원 모십니다

■ 30세 이하
■ PC 가능자
서울 개포동
02)579-3690

사 람 찾 음

속명 : 장종인
(해오름으로 이름 바꿈)
법명 : 자혜
나이 : 갑오생 56세
북아현동 거주 추정
위 사람은 부전으로 다니는 스님으로서 부당행위를 한 자임. 연락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031)471-6675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주지스님을 모십니다

법납 10년 이상
(권속있는 스님
및 비구니 스님)
011-663-4893

덕유산 산하 암자에서 기도하며 지낼 40-50대 비구니 스님 또는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스님 구합니다.

017-569-3722

경관 좋은 산사에서 함께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5세
010-3647-0018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경기 포천,
서울에서 1시간
011-9317-918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천년고찰 선원
현풍
053)614-91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밀양
017-802-32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5세
010-3188-5103

조용한 도량에서 공양간을 맡을 보살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경북 영덕
010-7109-3281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거사나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북한산성
011-9350-3216

부전스님 구합니다

▷경남 마산
016-428-6665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32)522-8131

부전 소임 원합니다

▷50대 초반 조계종 비구
010-8963-3733

부전스님 모십니다

▷기장 대성사
010-7574-1515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조계종 사찰 성실히 일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577-176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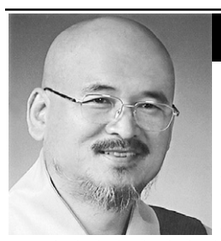
잠시 · 한 · 두달 · 100일 산사에서 쉬고 싶으신 분, 기도하고 싶으신 분 오십시오. ○○○주인공?

031)674-7188
033)441-0664

자율출가 입문 모집

- 법당 없어도 자격자 주지 임명.
- 문중 권속 법랍 없는 시대.
- 공동숙식 자취 용돈 월 100만원 지급.
- 사진 이력서 가족관계 증명.
- 우편접수.

충북 영동군 용산면 올리 208번지 박달산 생활관
043)745-3010
010-3410-0004
조계종 만불교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기일 • 영가 천도일에 천도 축원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암자나 토굴 무보시 하실 분 또는 무보증금 월 10~15만원 으로 임대 하실 분

▷충청지역 원함
법진 합장
010-2712-5655

기복, 방편을 쓰지 않고 정법을 실천하는 납자입니다. 거제도나 부산 근교에 사찰이나 터를 싸게 보시하실 분 연락요.

011-9143-0098

이 기구만 있으면 풍수지리 대가가 될 수 있다!!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

관룡자와 심룡척은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되는 기구입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과 모양이 똑같으며 상표만 다릅니다. 명당혈에서 옆으로 90도 회전하여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묘터나 집터, 사찰, 아파트, 공장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사용하며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입방법: 관룡자, 심룡척은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면 66만원으로 할인+월간역학 1년(105,600원)+수맥 탐지봉(15,000원)+휴대용 케이스(2만원)를 보너스로 드립니다.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즉시 보내드리고 1년간 매월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지리 주역 육효 자미두수
집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확실한 공부, 24시간 반복 학습 가능함
사주 초보에서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수료증 자격증 회원증 월간역학 필진 위촉장
한국역학협회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황제서당(皇帝書堂)

황제서당
감찰 여공선사
황제서당

감찰 : 여공선사
발행 : 황제서당
정가 : 10만원
계좌 : 우체국 703132
-01-001967 황제서당
문의 : 010-6504-7883

황제서당(皇帝書堂)에는 장차 이 나라 왕(王)이 될 인물들이 수록되어 있다.

도술본가(道術本家) 방장(方丈) 여공선사(如空禪師)가 장차 이 나라 왕(王)이 될 인물들을 찾아내어 서당에서 한자를 가르치며 각자의 태몽(胎夢)을 해설하고 그 운명을 주역(周易)으로 풀이한 것이다.

자고(自古)로 장관 벼슬은 왕(王)이 내려주지만 그 왕을 정해주는 사람이 바로 왕사(王師)다.

옛적에 도선대사(道詵大師)와 무학대사(無學大師)가 그러하듯이 소위 왕을 미리 찾아내거나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게 되면 왕사(王師)로 예우하는 법이다.

백관(百官)을 다스리는 사람은 왕(王)이지만 그 왕을 부리는 사람이 곧 왕사(王師)다.

캘리포니아 미국 산중 사찰 기도스님 초빙합니다

미주금강선원
1-951-9229184
010-4611-5339
(23-26일 까지 한국에서 전화 받습니다)

부전자리 원합니다

각종 제사가 자주있는
사찰을 원합니다.
48세 비구승이고
사시불공과 재바라지는 할 수 있습니다
010-3789-7474

女 종무원 구함

서울 중랑구 망우동
망우산 암자 극락사
■ 경력자 ■ 숙식제공
011-707-5552

스님들께는 포교당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는 진정한 불보살의 가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사암 운영에 필요한 기도, 명상, 명리학, 침술, 병고침 등 부처님과 함께 하실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진실을 모르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성취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 진정한 피안의 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양 자운정사 031)386-3967

고(古)건축, 사찰 건축전문

전문적인 건축지식과 오랜 현장경험을 통한
완벽책임시공 보장,전통사찰 전문
일반사찰 전문, 부속 건축물 일체
사찰건축 기획, 설계, 시공 전문
010-6405-2060
061)741-1624 / 031)581-2120

칭기스칸 대학교 한국캠퍼스 한국승가대학 세계화교육 chinggis khaan university

- 정규과정 : 2년제, 4년제 편입학가능 • 전문과정 : 1년제입학종교학 (불교문화학과)
- 강 사 진 : 석사, 박사 12명, 특강
- 과 목 : 종교학,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불교학, 경영학과, 교육학과, 철학과
- 특 전 : 전세계 대학 편입학 인정, 학비저렴, 시간여유

학교법인 김해대학교육원 강의실 kaya university life education
불교종립 불교문화대학원
학무처 : 0502-788-0808, 055-338-0050, 011-801-8197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법당·요사 : 약 60평 (구한옥)
- 부지 : 100평
- 가액 : 14억

- 위치 : 서울
- 법당 :40평
- 요사 :120평
- 부지 : 62평
- 가액 : 17억 (지하철역1분)

- 위치 : 경북
- 법당 :60평 ●요사 :60평
- 납골당 운영 및 분양중
- 부속건물 : 4동
- 부지: 3800평
- 가액: 28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500평
- 건평 : 25평
- 요사 : 40평
- 개액 : 3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500평
- 인법당 : 30평
- 경관수려
- 가액 : 3억 9천만원

- 위치 : 서울
- 부지 : 150평
- 법당 : 35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 5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 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안내

전망 좋은 大 사찰 부지
- 총 평수 : 8만 7천평(60% 평지)
- 4만평 약초농장 조성
- 뒷산 400고지, 금광동굴 10기
- 계곡 천연수 물 철철
- 수백년 노송 및 백목수 군락지
- 가액 : 평당 1만원

시내 아담한 아름다운 절
- 총 평수 : 360평 (남향)
- 법당 : 30평(단청완료)
- 요사채 및 건물 3동
- 주차장 100대, 버스진입 가능
- 가액 : 6억 5천(절반값)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소재
- 부지 : 1만평(종교용지 5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기타 : 석불, 산신각
- 가액 : 3억원
- 특징 : 청정지역에 위치한 기도정진할 도량임

- 위치 : 경북 청도군소재
- 부지 : 300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목조, 단청)
- 요사 : 3동, 80평
- 기타 : 연못, 석탑, 석등
- 가액 : 11억원
- 특징 : 계곡과 조경이 어우러진 대가람임

좋은인연 됩시다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동부산대학옆
- 평수 : 42평, 1층 요사채, 방3개, 거실
- 2층 법당 17평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 가액 : 1억 4천만원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비품(시설비) 1,200만원

011-9395-941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내동
- 평수 : 50평, 법당 18평, 방 3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없음

011-9323-4478
010-3827-81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부근
- 3층 25평, 법당 ●가액: 2억 2천만원

- 4층 25평 요사채 ●전세: 5천 5백만원 아파트 밀집지역, 옥상 전체 사용가능 (창고, 텃밭)

031)970-9008
011-9005-7007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이대입구(대흥동)
- 지하철 2호선 5번출구 60M위치 교통편 최적지
- 4층건물중 3층 약 25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입주 즉시 법회가능함
- 보증금, 시설비 포함 3000만원(월세 50만원)

02)719-7709

천하절경 사찰적지

- 충북 청원군 미원면
- 7200평(현 펜션성업중)
- 옥하구경 중(9경)박대소
- 다음카페 "송죽헌" 동영상 참고

010-6393-0794
010-8336-271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20평, 요사 2동 2동 중 황토방 1개, 산신각, 실내 외 화장실 3개
- 가액 : 4억

011-816-9104
011-815-9104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근교 경관수려함
- 임야 10,000평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북부 마을끝집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차고, 창고, 법당 뒤 대나무,
- 옆 계곡, 깨끗한 우물
- 계절마다 꽃이 피고 산세수려
- 즉시 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평수 대략 250평
- 문중땅. 건물 시설비 7900만원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4504-7809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 땅 250평 ●건물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채, 요사채 1채
- 사찰 앞 큰 저수지
- 가액: 2억 5천만원

011-9765-530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재래시장부근)
- 4층건물에 3층과 4층
- 3층은 법당, 상담실
- 4층은 요사채
- 가액: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 즉시법회가능

051)638-1134

암자터임야안내

- 위치 : 경남 창영
- 평수 : 임야 약 1만평
- 특징 : 암자터 좋은 명당, 고암면 감리 (밀양 넘어가는 국도 첫째 산, 도로에서 약 120m)
- 가액 : 9천 5백만원

010-732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 반산초등학교부근, 등산로길
- 3층건물에 2층
- 평수 : 30평
- 가액 : 2천만원, 월 20만원 (가격 조정가능)시설비 약간

051)782-0110
010-3101-1151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 사시사철 계곡에 물이 흐르고 사용은 토굴 별장
- 대지 : 198평, 건물 30평
- 개인하천부지 38평 무료 드림. 합 236평
- 가액: 1억 8천만원

010-3088-313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 평수 : 약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20만원
- 시설비 집기일체 1,500만원 (절충가능), 시세 반값도 안됨

051)503-0908
010-2291-555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임야 28,000평, 대지 4,000평 건평 720평
- 대웅전, 산신각, 대문종각, 요사채, 법당, 나한전, 식당 외 일체 모든 시설 완벽
- 가액: 융자포함 20억

010-8281-8787

사 찰 (급) 안 내

- 위치: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 소불 200불
- 전세 1억 3천만원(사글세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사정상 급양도

010-3019-223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동 (전철 3백미터 대로변)
- 평수 : 30평(4층의 3층)
- 가액: 보증금 4천만원에 월 75만원 시설비 3백만원
- ※ 원목 불단 3조, 운각 3조, 바닥 전기필름시설, 즉시 법회 가능

02)762-0039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40평
- 요사채(1,2층):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3억 7천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 가능)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화북면
- 부지 : 17,000평
- 법당 신축허가 필
-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 수려한 지역
- 법당(가건물), 요사, 화장실, 전시시설. 유
- 가액: 4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3918-0333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 위치 최상
- 건물 : 2층 중 2층
- 평수 : 47평
- 방2, 공양간 등 시설완벽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8612-2575

사 찰 안 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 총평수 : 328평
- 임법당, 삼존불, 바깥에 지장보살석불, 산신석불, 산신각, 문수전, 창고
- 가액 : 1억 5천만원

010-4660-538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성남시 모란시장 뒤 공설운동장 후문 입구
- 평수 : 40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 최신시설, 최신내부 장엄 운동장 몇 십대 주차가능

011-857-3775
031)755-3775

지리산자락 고요한 암자

- 총 650평
- 대지 320평
- 건물 : 황토건물 4동
- 수행 정진 하실 분
- 가액: 1억 5천만원

055)882-031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중구 유곡동
- 대지 50평, 건평 50평
- 모든 시설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5천만,월 40만원 (조정가능,전세가능)

010-9990-5234
신현대부동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화곡역1분거리 번화가
- 버스정류장앞 시장입구
- 3층건물 중 3층 옥상사용
- 법당20평
- 후불탱화, 백의관음불, 후불,산신탱화
- 현 성업중,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300만원 확장불사관계로 급 임대함

010- 3552-335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 5천만원

011-452-8374

포교원 안내

- 위치 : 의왕시 내손동 평촌 롯데마트앞
- 안양 평촌요지 교통편리
- 평수 45평, 5층 ●시설완벽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시설비 1천만원
- 스님 사정으로 급 양도

031)426-055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 가액: 1억 7천만원 (답사 후 조절 가능)

011-297-9149
010-5483-7502

암자(급)안내

- 위치:전남함평군월야면예덕리
- 대웅전, 명부전, 삼성각, 종각
- 요사채, 화장실 1동
- 평수: 344평, 건물허가
- 실사용 1천평
- 가액: 1억 5천만원
- 스님 사정으로 급 안내

061)322-1961
011-491-5086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4거리 (죽전지하철역2분거리)
- 평수: 약 42평(2층)
- 구조: 법당 약 20평(삼존불 모셔있음)
- 방2개, 주방 겸 거실, 단독 남, 녀화장실 (약 22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시설비 별도)

010-6835-7370

사찰부지안내

- 경관이 수려하고 사찰로 쓰는 매우 양호한 명당조건을 갖추었음
- 부지 : 15,000여평
- 위치 : 지리산 악양면 해발 약 500m (옛 사찰터 임)

011-9637-38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지리산 줄기)
- 총 8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2, 방 4개,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기도처로서 최고명당
- 가액: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찰부지안내

- 경관이 수려하고 사찰로 쓰는 매우 양호한 명당조건을 갖추었음
- 부지 : 15,000여평
- 위치 : 지리산 악양면 해발 약 500m (옛 사찰터 임)

011-9637-3872

전통사찰(급) 안내

- 납골당
- 관광사찰
- 가액 : 27억 5천만원 (금액조정불가)

010-6227-596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 위치 전망 양호
- 교통 주차편리
- 포교원으로 적합
- 집기일체 양도
- 가액: 7천 5백만원

055)744-4879
010-8223-4879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 평수 대지 888여평
-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약사여래불 대세지보살, 칠성
- 소부리 100불, 완벽한 법당으로써 즉시 법회가능
- 사찰내 주차가능 IC에서 2분거리
- 사찰 앞 경관이 좋으며 산 경치가 수려하며, 등산로를 끼고 있다
- 가액: 2억

010-9418-5938

포교원 안내

- 위치 :대전시내 2층 60평
- 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 지장보살신중, 산신, 영가단 각단후불탱화
- 법당, 스님방, 상담실, 공양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2천만원,시설완벽

010-6278-1488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역전 3분거리 도로 접
- 대지 400평 ●건물 21평 포함
- 가액 : 평당 10만원
- 대지 470평 ●가액 : 평당 5만원
- 복바위 앞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음

010-5048-9949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옆)
- 대지: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 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 18평 1동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4천 5백만원(절충가능)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846-7090

암 자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약 일백년 된 좌청룡 우백호 산세 좋은 명당터
- 신축 요사 35평인 법당,심야 기름 겸용, 삼성가 목조 5평
- 자연석 조경 및 돌탑 잘 되어있음, 큰 도로 시내버스 정류소 300m
- 교통 : 원주시청-충주시청 4차선 전용도로 개통 시 약 10분거리 위치 중간에 있음(현재 부분개통사용)
- 땅 : 1230평, 시세 : 평당 40만원, 현지답사 후 절충가
- 주지스님 건강 문제로 급매.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1-371-556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송파구 전철역에서 3~4분거리
- 4층중 2층, 실평수 약 50평
- 시설: 방3, 부엌1, 화장실
- 아미타석자반동불, 지장보살2자반 동불, 관세음보살2자반, 후불산신탱화와 합 60평
- 모든시설완비, 집기일체多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스님 사정상 급히 양도

010-5336-8875

포교원 (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 법당 50평,
- 심야전기, 신전자제품완비
- 방4개, 법당, 공양간, 욕실2개
- 법당내부신도실완비
- 몸만 들어 오면 즉시 법회 가능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 스님 건강문제로 급 양도

010-6564-8088

대형포교원(전세및양도)

- 위치 : 부천신도시 고속터미널 부근 100만 신도시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평수 : 220평, 14층 / 5층
- 법당전체와 모든 방사 고급나무 문양인테리어됨
- 법당앞에 2010년 지하철개통, 주차장 100대 가능
- 가액 : 임대 3억 5천(양도가능) 시설비 절충가능

011-707-5552

부 산 대 사 찰

- 목조법당 25평 단청필, 목조요사 30평 단청필, 벽돌집 요사 2동 50평
- 명부전, 산신각, 용왕단, 종각, 약사여래상 15층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창고 2동, 화장실 2동, 심야 보일러 사용, 사찰 내 주차 20대 이상
- 대지 : 300평
- 국유지 : 450평(국유지 사용료 내고 있음)
- 가액 : 9억 7천만원
- 사찰 내 20년 된 벚꽃나무 50종 있음

011-563-1545

759-232009.11.251:56PM페이지1(1,1)

다양한 관직 맡아 정치했지만 승려 본분 잃지 않아

<46> 희대의 기승 도연(道衍) 선사 요광효(姚廣孝)



그림 · 김홍인

명(明) 태조 주원장의 철저한 불교통제, 특히 민중과의 소통을 차단하는 정책은 불교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 생존의 기로에까지 서게 됐다. 종교로서의 불교가 민중과의 소통의 통로가 막히는 것은 마치 물고기에게 더 이상 신선한 물을 공급해주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조의 불교통제 정책은 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에 이르러 어느 정도 완화됐다. 다시 불교를 보호하는 정책이 나타나 불교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게 된 배후에는 도연(道衍: 1335~1418) 선사라는 희대의 기승(奇僧)의 역할이 있었다.

도연 선사는 결코 환속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거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승관(僧官)'이 아닌 조정의 고관으로서 장기간 관복(冠服)을 입고 조정에 나아가고, 물러나면 바로 승복[緇衣]을 입고서 사찰에 기거하는 특이한 경력을 비롯해 명대의 거사불교에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던 까닭에 중국거사불교에서 도연 선사를 논한다.

도연 선사는 <명사(明史)> 권145에 <요광효전(姚廣孝傳)>으로 입전(入傳)돼 있다. 또한 청대(淸代) 성통(性統)의 <속등정통(續燈正統)> 권15, 섭선(聶先)의 <속지월록(續指月錄)> 권6 등에 전기가 실려 있다. 그에 따르면, 선사는 본래 대대로 의술을 펼쳤던 유명한 의가(醫家) 출신이지만, 의학에 뜻을 두지 않고서 14세에 묘지암(妙智庵)에서 출가해 법명을 '도연'으로 하고, 자호를 '도허(逃虛)', '독암(獨庵)'이라고 했다. 출가 후 천태학 등 다양한 교의를 습득하고 당시 유명한 도사(道士)인 석응진(席應眞)을 스승으로 삼아 음양(陰陽)의 술법을 배우는 등 불교뿐만 아니라 유 · 도 양가에도 상당히 정통했다. 선사의 <도여록(道餘錄)> 서문에는 스스로 "내외의 전적을 다양하게 열람해 재식(才識)으로 삼았다"라고 하듯이 다양한 학문에 통달해 당시의 유명한 학자인 왕빈(王賓), 고계(高啓) 등과 밀접하게 교류했고, 송렴(宋濂), 소백형(蘇伯衡) 등의 추천을 받기도 했다. 홍무(洪武)년간에 예부(禮部)에서 실시한 '통유서승시(通儒書僧試)'에 급제했지만, 선사는 관직에 나가지않고 다만 '승복'만을 받았다. 당시 승록사(僧祿司)의 우선세(右善世)를 맡아 전국의 승가를 관리하던 종륵(宗?) 선사는 도연 선사의 글을 보고 "이 어찌 석자(釋子)의 글이겠는가!"라고 찬탄했다고 한다.

선사가 숭산사(嵩山寺)에 있을 때, 관상에 뛰어난 원공(袁珙) 스님이 "참으로 기이한 승려이다. 눈은 삼각이고, 모습은 마치 병든 호랑이와 같으며, 심성(心性)에 살기가 느껴지니 필시 권모술수에 능할 것이다"라고 평하자 선사는 크게 기뻐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이후 함께 '정난(靖難)의 역(役)'을 통해 주원장의 넷째 아들인 연왕(燕王) 주체(朱棣)를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선사가 주체를 만나게 되는 인연은 주체의 친모인 황후(皇后)가 죽자 황제에게 연왕부(燕王府; 현 北京)로 돌아가 모친의 명복을 비는 축원을 하고자 승록사(僧錄司)에 소속된 고승을 천거해 달라고 청원함에서 시작된다. 선사는 일찍이 눈여겨보던 주체를 찾아가 "연왕 전하께서 신을 지목하신다면, 신은 전하께 흰 모자를 씌워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연왕의 신분에 '흰 모자[白]'를 쓴다면 '황(皇)'자가 되니, 제위에 오르게 돕겠다는 의도임을 알고서 주체는 선사를 지목해 함께 연왕부로 돌아갔다. 이로부터 선사는 북경의 경수사(慶壽寺)에 머물며 수시로 왕부를 드나들며 천하를 얻기 위한 준비를 했다. <명사>의 전기에서는 "부중에 출입하면서 행적을 매우 은밀하게 했으며, 때때로 사람들을 물리치고서 긴 시간 동안 논의했다"고 한다.

불교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도여록' 찬술

모순된 삶 살아도 '승려'로 불리길 바래

태조 주원장이 죽고 손자인 주윤문(朱允炆)이 건문제(建文帝)에 오르자 주(周), 상(湘), 대(代), 민(岷) 등의 번왕(藩王)들이 움직이자 도연 선사는 연왕에게도 군대를 일으키라고 권고한다. <명사>의 전기에 따르면, 연왕이 "민심(民心)이 그(건문제)에게 있는데,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자 선사는 "신이 천도를 아는데 어찌 민심을 논하십니까?"라고 하자 연왕은 마음을 굳히고 거병했다. 이로부터 이른바 '정난(靖難)의 역(役)'이 시작되고 3년간의 전쟁을 통해 연왕 주체는 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에 즉위했다. 영락제는 즉위 후, 도연 선사를 승록사의 좌선세(左善世), 자선대부(資善大夫)와 태자소사(太子少師) 등의 관직에 임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명사>의 선사 전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황제가 군막에 모든 무장들을 접했지만, 홀로 도연 선사만이 군사를 일으킬 책략을 제시했다. 이에 황제는 산동(山東), 하북(河北) 등에서 전쟁을 하기를 3년, 공격할 것인가 지키는가 하는 전쟁의 모든 전략, 전술들은 도연 선사가 결정했다. 도연 선사는 일찍이 전진(戰陣)에 나아간 적이 없었지만 황제가 군대를 일으켜 천하를 얻음에 도연 선사의 힘이 가장 크다며 논공에서 제일로 대우했다."

이로부터 보자면, 비록 도연 선사는 군대를 직접 진두지휘하지 않았지만, 모든 전략과 전술을 관장했다. 또, 연왕이 황제에 오르는데 가장 큰 공로자로 인정받았음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황제는 도연 선사에게 '광효(廣孝)'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또한 "환속해 머리를 길도록 명했지만, 도연 선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커다란 저택과 미모가 뛰어난 두 명의 궁인을 하사하지만 모두 받지 않았다. 항상 승사(僧寺)에 거주하면서 관복(冠服)을 입고 조정에 나아가고, 물러나면 바로 승복[緇衣]을 입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보자면, 환속하라는 황제의 명령도 어겨 가면서 끝내 승려의 신분을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모순되게도 관직은 결코 반납하지 않았다.

이후, 영락제는 자신의 제위찬탈에 대한 합리화와 후세 기록을 염려하여 <태조실록>을 중수(重修)하는데, 감수(監修)를 선사에게 맡기고, 다시 <영락대전>의 찬수(纂修)를 맡긴다. <영락대전>은 경사자집(經史子集)을 비롯해 천문, 지리, 음양, 의술, 불교, 도가 등의 저서를 수집하여 무려 1만1095책, 2만2937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중국 최초이자 최대의 백과사전이다. <영락대전>의 완성 후, 영락16년(1418년) 도연 선사는 노환으로 세수(世壽) 84세로 입적한다. 영락제는 선사를 조문하기 위해 2일간 조회를 보지 않았다. '공정(恭靖)'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영국공(榮國公)에 봉해졌다.

선사는 만년에 유가의 불교비판에 비판을 해명하기 위한 <도여록(道餘錄)>을 찬술했다. 이외에 <정토간요록(淨土簡要錄)>, <제상선인영(諸上善人咏)> 등의 정토교와 관련된 저술들이 있다.

도연 선사의 일생은 어찌 보면 상당히 모순된 모습을 보여준다. 출가해 승려의 신분으로 반정의 모사를 맡아 성공시켰지만, 환속하라는 황명도 거역하면서 승려의 직분을 유지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한 관직을 맡아 관리로 살면서도 또한 사찰에 머물렀다. 또한 선사는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없어 자신이 받았던 모든 재물을 다 친족과 고향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선사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혹은 '간승(奸僧)'으로 비하하가도 하고, 혹은 승려의 신분보다는 정치가나 병법가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연 선사는 스스로를 분명히 '승려'로서 평가해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의미에서 만약 도연 선사가 출현하지 않았다면, 명 태조 주원장의 철저한 불교통제정책은 지속됐을 것이고, 그렇게 지속되었다고 한다면, 중국불교는 어쩌면 명맥조차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쇠락해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도연 선사의 역할로 말미암아 억불의 요소가 많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명대불교는 사상적으로나 교세적으로나 모두 쇠퇴일로를 걷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연 선사의 불교사상은 어떠한가? 선사의 작품인 <도여록>과 <정토간요록> 등을 통하여 선사의 사상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선사는 <도여록>에서 "세속의 무지한 사람들은 '세간'을 듣고서 바로 세간의 생각을 일으키고, '출세간'을 듣고서는 바로 출세간의 생각을 일으킨다. 도리어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바로 세간임을 결코 모른다."라고 말하고, "보살이 수행하는 모든 계 · 정 · 혜 삼학뿐만 아니라 음(淫) · 노(怒) · 치(癡) 역시 모두 범행(梵行)이 갖추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부터 보자면, 선사의 안목에는 철저하게 대승의 반야사상과 조사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또한 이로부터 어느 정도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선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고 하겠다. 실제적으로 선사는 계속 관직을 맡아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했지만, 명대의 대표적인 거사인 이지(李贄) 등과 같은 인물들과 끊임없이 교류함으로서 승려의 본분을 한시도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지 거사는 선사의 <도여록>을 친히 교열했다. 따라서 도연 선사는 비록 거사는 아니지만, 명대의 거사불교와 긴밀한 관계가 있고, 이 또한 중국 거사불교의 또 다른 면모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불자정보 759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제물포역 앞
- 평수 : 35평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약간있음

010-8549-015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초동면
- 법당, 요사채 각각 20평
- 슬라브기와, 텃밭 100평, 총대지 235평, 황토방 5평
- 가액: 전세 5,000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주세요
- 마을입구, 뒤는 대밭

010-5879-7551

사찰.암자 터안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삿갓봉
- 해발 700m 위치
- 田(대지 80평 포함) 850평
- 가액 : 1억 3천만원

011-217-5349 (소유주)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목동 4거리
- 평수 : 100평
- 다실, 주지실, 법당, 공양간,
- 객실2개, 완벽한 시설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 가액: 답사 후 절충

016-358-8084
02)2652-02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 약 900평
- 법당, 요사채
- 산세 수려하고 물도 좋음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1억 8천만원

055)672-0340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대구역 지하철 1분거리
- 번개시장, 교통시장, 귀금속거리 중앙
- 동성로 입구에 위치, 포교최적
- 4층 약 30평
- 가액: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800만원

010-2446-2626

포교원(급)안내
- 위치:경북 칠곡 약목기차역 맞은편
- 평수 : 약 45평 (시설 완비, 공기 청정) 법당,삼존불,방2,주방,화장실
- 2층건물 중 2층(옥상사용)
- 보증금 1,500만원 / 월 1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54)974-0307
017-217-1919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동성로 도심포교당으로 불교대학 운영 최적지임
- 당포함 전체평수 5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170만원
- 시설비(비품포함) 3천 5백만원

010-8869-8965

사찰(종무원)안내
- 위치: 대구 중심 요지(지하철역)
- 건물전체(3층), 주차장 등
- 포교, 교육, 총무원 적지
- 최고시설(법당, 종무원, 후원, 난방 등)
- 전체 7,000만원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010-6780-627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남부 시장부근
- 평수 54평(현 법회중)
- 4층건물 중 3층(관리비 無)
- 시설A급, 법당1실, 방 4개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35만원(올 전세 가능) 시설비 저렴하게 보시

055)372-3563
010-2553-882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토 굴 안 내
- 위치 : 영천에서 경주방향 15분거리 (경주 IC 영천 IC 15분 內)
- 대지 120평 작은 임법당
- 구옥(흙집)3칸, 연탄, 기름보일러 겸용 새로 설치, 10년된 토굴
- 비구니 선객이 편히 짐 풀수 있고,건강을 살필 수 있고, 조용히 정진 할 수 있는 아늑한 토굴
- 교통편리(KTX10분거리, 내년 개통 신경주역)
- 가액: 5천만원

010-6717-1767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신시가지 2만세대 아파트단지 들어섬
- 3층 중 2층 ● 평수 : 총 60평 중
- 법당 25평, 방3, 큰방1 주방 大1, 거실, 화장실, 에어컨 2대 삼존불 모셔져 있고 탱화 있음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4천만원 중 600만원만 받겠습

010-6553-2828

월출산 토굴 안내
- 위치: 월출산이 바라보이는 수려한 동네위에 한가한 곳
- 평수: 대지 250평 전236 총486평,평지임
- 벽돌슬라브 건물약40평(임법당, 창고10평
- 남향,주차장, 텃밭, 잔디정원과 연못이 있음
- 읍내 7분거리 국도2분거리
- 가액: 1억 3천만원

061)471-9688
010-3558-1674

회 원 모 집

세계불교우주대원종단발전총연합회

◆회원종단 : 한국불교일대원조계종 대한불교우주대법왕종

세계불교우주대원종단발전총연합회는 종단연합단체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함께하실 **회원종단 및 종도**를 모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입회(종)서류**
- 입회(종) 신청서 1부
- 사찰 사암 등록증 1부
- 승려(법사) 등록원부 1부
- 사진 3매
- 기타 서류

▣ **특 전**

각 회원종단의 화합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여 사찰 사암 개인 재산은 협회 및 회원 종단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세계불교우주대원종발전총연합회 회장 도원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4-8

전화 031)952-7045. 4077 / 011-286-2439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⑭ 서학도와 청자상감운학문완

왕실 다방 · 사찰 선차 유행해 다점 성행

중국 북송의 수도 변경에서 황실 건물의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대향연이 열리던 정월 15일 밤(1112년), 갑자기 학들이 무리를 지어 건물 위로 날아와서는 오랫동안 머물며 떠나지 않았다. 이를 지켜본 휘종 황제는 이 사건을 국가적인 부흥을 알리는 상서로운 징조로 여겼던 것 같다. 그날의 일화를 담은 '서학도(瑞鶴圖 · 그림 위)'는 휘종이 직접 그린 어필화(御筆畵)로 중국에서 학을 중심 주제로 한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동양에서 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특별하다. 학은 새들의 우두머리로 일품조로도 일컬어진다. <상학경>에는 60년이 지나면 그 색이 눈처럼 희게 돼 진흙물 속에 들어가도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거북이와 함께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양생요>에서는 학의 나이는 천백을 헤아린다고도 한다. 이처럼 동양에서 학은 길상적 의미와 함께 청정함과 고고함을 상징한다. 당시 푸른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학들의 모습이 휘종에게는 인상적이었던 것일까. 그는 이후 '서학도'에 표현된 하늘빛과 같은 '비온 후의 하늘(雨過靑天)' 색으로 청자를 제작하도록 명했다. 중국 북송대 휘종연간에는 이렇듯 황제의 미감에 맞는 회화와 도자예술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게 됐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이 한자리에 어우러져 탁월한 예술적 경지에 도달한 것은 바로 고려시대의 비색(秘色) 청자를 통해서다. 중국 청자의 경우 두터운 유약을 통해 하늘빛을 재현하고자 했다면, 우리나라의 청자는 맑고 투명한 유약 밑으로 상감(象嵌)이라는 정치한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화려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느낌의 하늘빛을 표현하는데 성공했다. '서학도'의 푸른 하늘 위를 날던 학들이 고려의 청자 다완 위를 날고 있다(그림 아래). 차 거품을 내기 위해 입지름이 넓은 고려 말차용 다완은 삿갓형의 몸체로 깊은 회청록색을 띠며 은은한 광택을 내뿜고 있다. 문양은 다완의 내부에만 베풀어져 있는데 백상감을 위주로 시문하고 학의 부리와 다리, 목은 흑상감했다. 향기가 피어오르듯 구름이 일고 구연을 따라 말차의 흰 포말이 일어날 때 즈음 백학은 날개를 펼치고 다완을 빙그르르 돌며 춤을 춘다. 학의 머리는 몸에 비해 크고, 날개는 머리에 비해 짧아 보인다. 하지만 '서학도'에 표현된 긴 날개에 경쾌한 모습의 학보다 고려청자에 표현된 학의 모습에 더욱 정감이 가는 것은 왜일까. 정형화되고 이상화된 예술작품은 인간을 그 앞에서 경탄하고 숨 막히게 만들지만, 천진한 표현은 그 자체로 예술적 감흥과 함께 무한한 애착을 가지게 한다. 피어오르는 구름을 보고 마치 흥내라도 내듯 흥겨운 날개춤을 추는 학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려시대의 화려한 차 문화와 함께 이들의 수준 높은 미감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문화가 보편화돼 문화적 절정기를 이뤘던 고려시대. 왕실에서는 차를 연등회나 팔관회 등의 국가 행사에 의례용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중요시해 이를 전담하는 기관인 다방(茶房)을 뒀다. 사찰에서는 차를 통해 참선에 이르는 다도정신이 확산됐고 문인과 선승사이에서는 탈속의 정신세계를 지향하는 이들의 매개역할을 했다. 이후 왕실과 사찰에서 유행한 차는 점차 일반화돼 곳곳에 다점(茶店)이 성행했다. 이렇듯 차 마시는 풍습이 일반화되자 다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기는 조형적 미감 뿐 아니라 차 맛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건으로 인식되면서 점차 중요시됐던 것이다. 초기 고려청자의 가마터 조사에 의하면 다기 류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이니 청자의 발달이 차 문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고려청자는 발전을 거듭해 12세기 중반 경에는 본 작품과 같은 완숙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차의 삼미(三味 : 色, 香, 味)를 드러내며 아름다운 비색으로 빛나던 이 다완은 현재 일본의 동양도자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휘종, '서학도' 북송(1112), 견본채색, 51x138.2cm, 요녕성박물관 소장(위), '청자상감운학문완' 높이:6.0cm 입지름:17.0cm, 오사카동양도자미술관 소장(아래).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⑪ 화엄사 각황전(覺皇殿)



지리산 서쪽 화엄사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젖을 수 있는 건 모두 젖고 있었고, 한편에선 빛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빛나고 있었다. 가장 큰 불전 중의 하나인 각황전은 다가가는 몇 걸음 동안에도 그 모습이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 지금의 각황전 터에는 장육전이 있었다. 장육전은 전란으로 사라졌고, 많은 이야기 끝에 지금의 각황전이 세워졌다.

모든 고찰들이 그렇듯이 보이는 것들은 사라진 것들 위에 서있었고, 사라진 것들은 남아있는 것들의 기억 속에 있었다. 그 옛날, 장육전이 사라지고 스님은 기도 끝에 꿈을 꾼다. 다음 날 사시마지 때 대중을 모아놓고 물 묻은 손에 밀가루를 찍어보라고 한다. 마지막 스님 한 분이 물 묻은 손에 밀가루가 묻지 않았다고 한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다고 한다.

도량은 비 끝에 묻어온 운해에 또 한 번 젖어가고, 사시마지를 든 스님은 그 옛날의 법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詩가 있는 도량

▪ 발자국 언어

재두루미 한 마리가 동화천에 내려와
물결 위에 발자국을 찍으며 걷는다
날개를 펼쳐보다가는 접고, 다시 펼쳐보려다 접으며
천천히 천천히 얕은 물위를 걷는다
물오리떼가 있고
눈조리개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내가 있지만
재두루미에겐 아무도 없는 것,
재두루미가 저렇게
혼자 발자국을 남기며 걷는다는 건
물위의 발자국이 누군가에 닿기를 기다리는 행위
천변의 풍경을 새긴 물결의 파문을 기억하는
발자국은 언젠가 제 족속에게도 읽혀
혼자인 재두루미를 제 무리에게로 날아오르게 한다는 것
지켜보는, 스치고 가는 무수한 이들이 있으나
나에겐 아무도 없는 지금,
사람과 사람사이에 찍고 있는 나의 발자국도
언젠가는
그 누군가에게 닿아 파문을 일으킬 문장
내가 나를 증명하게 될 말

–김은령, <다층> 가을호

옛 판화의 세계

은봉 스님이 전쟁을 멈추다
은봉해진(隱峯解眞)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은봉 스님이 오나라 원제가 왕명을 어기고 관군과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전쟁을 그만 두게 하는 모습을 판각한 작품이다. 석은봉(釋隱峯) 스님은 당나라 때 스님으로 건주 소무현 사람이다. 성은 등(鄧)씨라, 등은봉 이라고도 한다. 처음에 마조(馬祖)의 문중에 있다가 깨닫지 못하고 석두화상에게 두 번 왕래한 뒤, 다시 마조의 문중에 와서 마조의 말 한 마디에 깨달았다고 한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화(元和) 연간에 오봉산으로 유람하게 됐는데 길이 회서 지방으로 나가게 돼 있었다. 때마침 오나라 원제가 군병으로 길을 가로막고 왕명을 어기고 항거해 관병과 적군이 서로 만나 전쟁을 하면서 승부가 아직 결정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 은봉 스님이 말했다. '내가 가서 그들의 살육하는 싸움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곧 석장을 날려 공중에 몸을 날리면서 천천히 움직여 석장을 따라가 두 군진 사이를 지나갔다. 이에 전사들은 각기 스님이 날아 하늘에 치솟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뽑았던 창과 칼을 칼집에 넣고 전쟁을 그만뒀다. 이윽고 오대산에 들어가 두루 신령한 자취를 참관하다가 홀연히 금강굴 앞에서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죽었는데 그 곧음이 나무를 심어 놓은 것과 같았다. 당시 대중들이 논의하기를 신령한 굴 앞이니 마땅히 다른 곳으로 옮겨 다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뚝 산과 같이 높이 고정돼 모두 힘을 합쳐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때 마침 비구니스님이 된 은봉 스님의 누이동생이 오대산에 들어와서 성난 눈으로 탄식하며 말했다. '노령께서는 예전에도 법률을 따르지 않더니 죽어서도 또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십니까? 이미 대중들은 누이인 내가 비록 골육을 함께한 친족이지만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음을 알고 있으니 영원한 법도를 따르기를 청합니다.' 하고 손으로 가볍게 미니 분연히 시신이 넘어졌다. 이에 마침내 다비해 사리를 거둬 탑 안에 넣었다." 은봉 스님이 신비한 능력의 힘을 보여 전쟁을 거두고 평화로 거듭나게 하셨듯이, 인간의 욕망이란 이해관계로 인해 헝클어져 있는 우리 중생계에 옛 조사들이 보여준 깨달음의 자유자재한 모습은 어두운 중생의 마음 한구석을 밝게 해주는 영원한 희망의 빛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은봉해진(隱峯解眞)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훼이셜타올
각 6,000원 ➔ 5,400원 (10%DC)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삼베훼이셜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 · 항균 · 항독 삼베수세미



▪ 삼베수세미
각 4,000원 ➔ 3,600원 (10%DC)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 삼베샤워타올
각 15,000원 ➔ 13,500원 (10%DC)

· 품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대행 스님

모든 것은 나온 자리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여기 여러분과 더불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새삼 느끼는 바는, 이 포항 지역에 여러분의 마음이 서로 한데 어우러지면서도 사연 깊은 흐름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토론하기 이전에 이렇게 몇 마디로 표현해 봅니다.

물은 깊이 흐르고
물새들은 떼를 지어 날고 있고
깊은 뿌리의 나무는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마다 봄이 오기를 기다리누나.

이것이 바로 포항 지역의 느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불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라고 하면 가톨릭교나 기독교나 알라신교 등과 같이 개별적인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불(佛)이라는 뜻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인 그 핵심을 말하는 것이고, 평상시에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말씀하시는 거나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다 교(敎)입니다. 부처님의 말씀만 교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는 까닭에 부처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이라고 해서 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벌레 하나도 불성이 없는 게 없으니 불교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뉴욕에 가서도, 가톨릭교나 기독교의 여러 분과 더불어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다면 고목이 있고 큰 나무가 있다면 작은 나무가 있고, 높은 산이 있다면 낮은 산이 있고, 그래서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진리며 길이며 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역이든지 구별 없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고, 뭉쳤으면 바로 일체 만법을 내고 들이는 데 여여하여야만이 실천궁행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공(空)에 떨어져도 안 되고 사(邪)에 떨어져도 안 되고 네 마음의, 즉 무의 50% 유의 50%를 한데 계합을 시켜서 중용을 해라.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모두,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가톨릭교든지 중용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런 말을 한번 하고 하죠.

제가 예전에 가톨릭교에 입교했을 때의 일입니다. 자기가 생활하면서 잘못한 것이나 친구와 서로 응어리가 진 문제들을 가지고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해 놓고 저분한테 다가 고함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고….' 즉 말하자면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백 번을 더 해야만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끔 됐었습니다.

우리는 자력 신앙으로 나가야지 타력 신앙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를 반드시 발견하고, 또 발견했으면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 도리는 반드시 나로부터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바로 그때가 태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바로 내가 화두며 행이 바로 참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그냥 참선이고, 내 몸이 화두고 그렇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얘길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되니까요. 무명에 의해서 사대를 좇아서 이 몸이, 생명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억겁 광년을 거쳐서 진화되면서 우리는 인간까지 이렇게 성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각자 나부터 알아야 한다. 석존이 여기 계신다 할지라도 석존 몸에 의지할 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의 뜻이 바로 자기 마음을 깨닫는 데 있으니 그 뜻을 따라 둘이 아니게 모든 것을 맡겨 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영혼이 있었다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떠한 가정도 끼리끼리 모두 모여 사는 겁니다. 이 세상 모두를 보세요. 누가 끼리끼리 모이지 말래도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놓고 팝니다. 이 세상이 전부 팔만대장경이고 팔만대장경이 바로 이 세상이니까요. 그러니 끼리끼리 모인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 난자가 한데 모여서 임신이 될 때 수십억 마리가 한데 합쳐져서 생깁니다. 그럼 거기에서 딱 하나가 뽑힙니다. 뽑히면 그 물질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전자에 내가 나오기 이전의 인(因)으로 인해서 현재의 과(果)로 뭉치면서 악업 선업이 다 한데 합쳐져서, 내 한 사람 뽑힌 데에 거기 같이 붙어 돌아갑니다. 그래서 몸뚱이 하나가 생기는데, 부모한테서 뼈를 빌리고 살을 빌려서 몸뚱이는 받았으나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모든 게 과가 돼서 악업 선업이 돼 가지고 그것이 몸뚱이 속에서 지금 전부 회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말입니다, 자기가 한 대로 하나하나 나오면서 자기를 속상하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가난이 오게도 하고 병고가 오게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것에, 천차만별로 그렇게 나오는 것에 왜 속느냐는 거죠. 바로 내 지배인의 마음, 즉 말하자면 이 몸을 다스리는 지배인의 마음과 한마음으로 돌아가게끔, 거기서 나오는 거는 거기다가 되맡겨 놔야죠. 바로 기계를 만든 사람이 기계 고치기도 쉽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한꺼번에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주인이자 모든 게 공했으니까요.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했으니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는 데 세 가지의 아주 좋은 공덕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에다가 맡겨 놓는다면 모든 인과, 즉 업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법이요. 둘째, 모든 습을 녹이는 법이요. 셋째, 그 습이 모두 떨어지니까 그릇이 텅 비어서, 즉 카세트에 노래를 넣었다가 또 다른 노래를 넣으면 없어지고 또 다른 노래를 넣으면 또 없어지듯이, 그렇게 그릇이 비어서 항상 들이고 낼 때에 아주 가볍게 들이고 내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찌끄럭지가 없이. 여여하게 돌아가니까 바로 그때에 참나는 얼굴을 내밀고, 그때에 부(父)와 자(子)가 상봉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참으로 한데 계합이 돼서 전자의, 내가 나오기 이전과 지금 현재 나와 둘이 아니게끔 상봉이 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나한테서 내가 나왔으니까 내 탓이고 또 상대가 있는 것도 그렇고, 잘못되고 잘되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것도 전부 나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겼으니 내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되 '잘되게 해 주시오.'가 아닙니다. 그럼 벌써 둘이 되니까 모든 것은 나온 자리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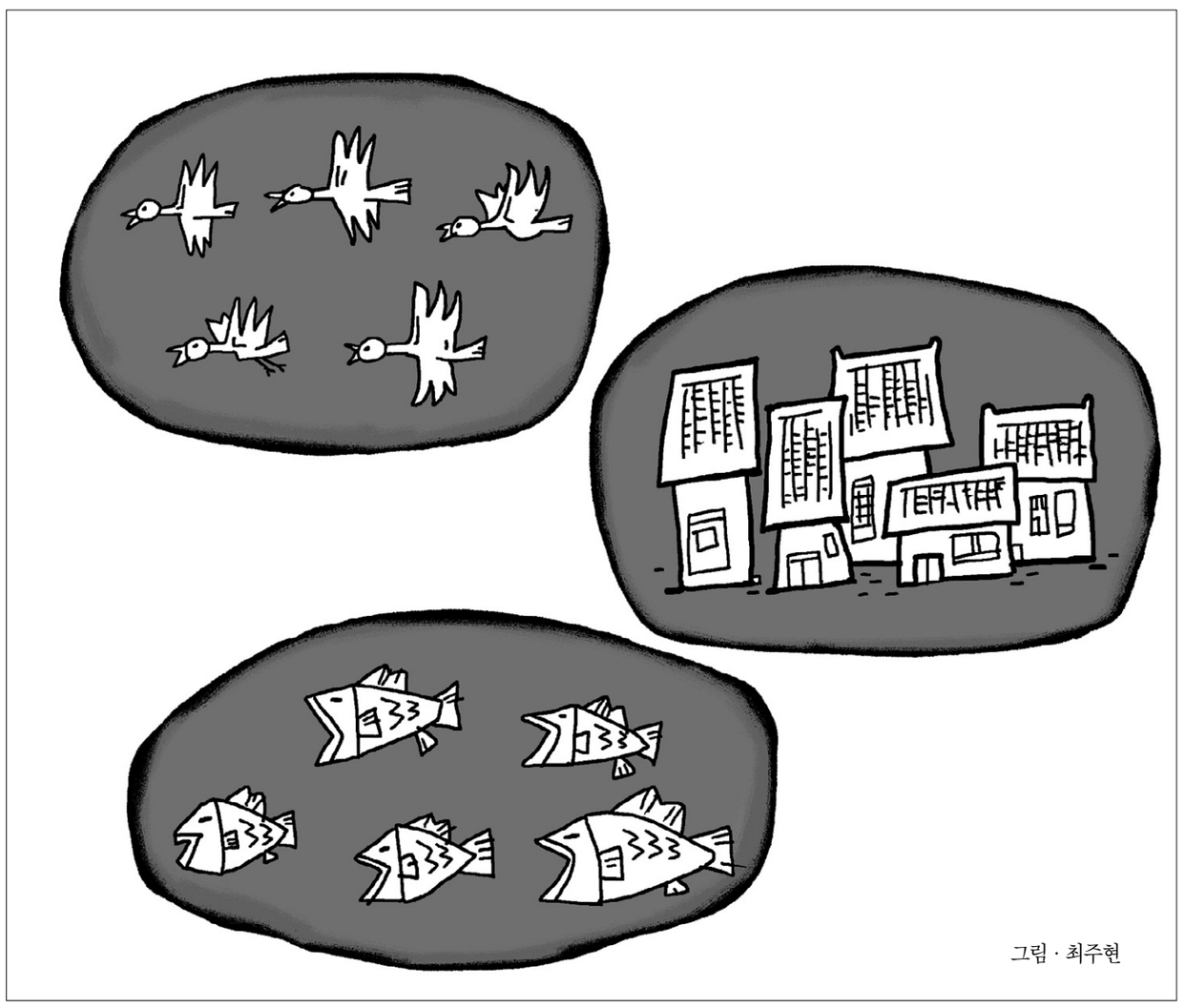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당뇨. 비만 Diet

임 상

고치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맞춤 한방치료로 병력에 관계
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치료되는
최신 방법으로 기쁨과
만족을 선물 받으세요.

임상실험 Test 응하실 분 3일간
평균혈당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한솔한의원
031)555-7780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부 · 대학원
불교학도의 날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와 대학원에서는
제 6회 불교학도의 날을 奉行합니다.

■ 일 시 : 2009년 12월 3일(목) 오후 6시
■ 장 소 : 포항 대왕예식장 1층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 전화 281-3000)
■ 문 의 : 원필성 교수님 016-519-4118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부 · 대학원
飯僧法會

귀의 삼보하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智慧의 길이고 또 하나는 慈悲의 길입니다. 명상과 나눔입니다.
항상 수행자로서 각자의 佛心의 般若智慧를 밝히고 그 지혜를 대중에게 자비로 회향하고자 정진하시는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부 · 일반대학원 · 불교대학원)에 인연 있는 威德의 僧伽學徒 여러분! 時節因緣으로 도반들과의 좋은 만남을 法憶하고자 대중스님들을 모시고 좋은 장소 좋은 시간에서 飯僧法會를 奉行하고자 합니다.
부디 隨喜同參하시여 歡喜踊躍의 法樂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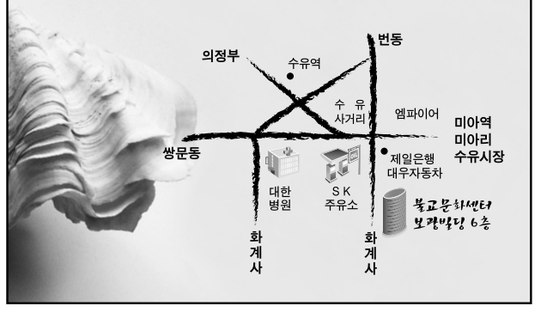
■ 장 소 : 위덕대학교 불교학과 강의실 F 303
■ 시 간 : 불기 2553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6시
위덕대학교 일반대학교 박사과정
현담(010-7109-3281) 합장.

정토교학의 선지식 군맹당 서진스님의
병든 인생을 치료하는 묘약(妙藥)

『관무량수경』공개강좌
수강생 모집

개강 : 2009년 12월 2일 (수요일)

■ 기 간 : 2009년 12월 2일(수요일)개강 후 6개월간
■ 시 간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수 강 료 : 10만원
■ 모집인원 : 선착순 50명
■ 장 소 : 서원사 불교문화센터
■ 접수마감 : 2009년 11월 30일까지
■ 전 화 : 02)983-7484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수강료 계좌입금



2010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안내 (야간)

■모집학과 및 인원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불교	불교학 · 선학	00명
불교사회복지	사회복지	
생사의례	생사의례	
차문화콘텐츠	다도 · 제다	
명상심리상담	명상심리상담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자 또는 2010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 국내 · 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지도자과정
· 각 불교 종단의 스님
· 각 신행단체의 임직원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원서 교부 및 접수	2009.11.9(월)-27(금)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전형일 및 장소	2009.12.5(토) 10:00~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앞 게시판에 공고

■특전
·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적승려, 조계종 종무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불교언론인,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생사의례전공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 수료자는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로 문의바랍니다.
TEL 02-2260-3097~8 FAX 02-2260-8627
http://gsbs.dongguk.edu

dongguk UNIVERSITY

buddhanews.com

모든 게 나로 인해 생겼으니 내 주인공에 다 맡겨놔야

☞25면에서 계속

죠. 병이 났어도 '아! 거기서 병이 난 거니까 거기서밖에 해결할 수 없어.'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아! 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긴 거니까 거기서밖엔 해결할 수 없지.' 하고 맡겨 놓는 겁니다. 일체가 거기에서 나고 듭니다.

만법이 일심에서 나고 일심으로 든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일체 놓을 수 있다면, 맡겨 놓고 작용을 거기에서 함이 없이 한다면 내고 들이는 것도 둘이 아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아닌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또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데 모든 업이 무너지고 습이 떨어지고 나를 발견하고, 이 세 가지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나타나면 내가 남과 둘이 아닌 도리를, 일체 둘이 아님을 알기 위해서는 또 죽어야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또 다 놓고, 그때는 실험으로 들어갑니다. 실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자기가 주저함이 없고 당당해지는 겁니다. 목마르면 그냥 물 마실 수 있는, 똥마려우면 이유를 붙이지 않고 그냥 똥 눌 수 있는, 졸리면 그냥 잘 수 있는 그런 거 말입니다. 자도 일어나도 앉아도, 하다못해 똥을 누러 가도 자기가 거기 갔으니까 부처가 있고 도량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이 집을 오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븐일 수도 있는데다가 오신통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또 지수화풍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 아주 재료로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우물쭈물하지 않고도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빙빙빙빙 돌려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팔정도는 이렇고 육바라밀은 이렇고 십팔심소연식은 이렇고, 이거를 일일이 따진다면 언제 나를 발견하고 언제 내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몸이 떨어지기 전에 열반을 하고 그 도리를 알아야지, 몸이 떨어지고 나면 무슨 부딪침이 있다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있으면 내년이 있듯이, 내가 지금 그 도리를 안다면 내년에도 스스로, 세세생생 스스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 이거죠. 오늘 이 세상에 났으면 오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세번째, 우리가 둘이 아닌 도리를 발견하고 나면, 그것이 바로 지혜죠. 체험하고 실험하고 또 체험하고 이러면서 인간으로부터 모든 꽃나무나 무정물 식물 동물에 이르기까지 일체가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도 동물이지만 말입니다. 인간이 제일 으뜸가니까 이런 소리 합니다. 저 물속에 있는 고기들도 둘이 아니죠. 모두가 같이 둘이 아니게 통신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도 법망이 있고 공중에도 법망이 있고, 어떤 혹성이든지 법망이 있다는 얘깁니다. 인간의 세포도 법망입니다. 세포가 없다면 바깥에서 세균이 들어오고 안에서 세균이 막 퍼붓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제재를 하고 막으리까? 세포가 바로 그 법망에 속하죠. 그래서 '법망에 걸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둘이 아닌 도리를 실험해서 체험한 뒤에는 다시금 지혜를 내서 또 놓는단 말입니다. 또 놔요. 놓아 가면서, 거기에다 맡겨 놓아 가면서 둘이 아니게 나툼을 알아야 된단 얘깁니다. 이건 기존 방식입니다.

우리 사람은 살면서 꼭 이걸 알고 가야만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냥 걸어선 안 된다.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된다. 백팔 배를 줄여서 일 배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팔 배가 일 배가 될 수도 있고 삼천 배가 일 배가 될 수도 있어요. 시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공의 제한을 받는다면 꼭 삼 배를 해야 하고 꼭 백팔 배를 해야 하고 삼천 배를 해야 하지만, 한데 뭉쳐서 일 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주와 더불어 전체 근본의 그 진리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리를 아신다면 어느 것 하나 나 아닌 게 없고 내 손 아닌 게 없고, 디디면 평발이 되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다 이 소립니다. 나툼이라는 거, 요거 말하기 전에 한마디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실 때에 해골 무더기를 보고 큰절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시죠? 그 의미를 아십니까? 저는 한암 스님 한테 그 소리를 한마디 듣고 이렇게 생각했죠. '야! 참, 그 한마디가 우주 천하 삼천대천세계를 포괄해서 대변하는구나.' 왜? 시공이 없어서 걸림이 없는 도리도 거기에 있고, 진화가 돼서 오늘 어저께가 따로 없고 삼세가 따로 없고 삼심이 따로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고 현재도 따로 없다는 얘기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해골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다.'고 하는 뜻은 현재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연방 애들이 태어나고 늙어서 죽고 이러는 것을 보세요. 부처님 말씀이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되고 있단 얘깁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면 그 부처님이 삼천 년 전에 계셨고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툼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시면서 금방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하면 "그래, 어디 갔다 왔니?" 하고 할아버지가 돼요. 한 사람이 몇 가지 이름을 가졌습니까? 남편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형님도 되고 아우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요. 그렇게 할 때에 한 사람 앞에 이름을 몇 가지나 가지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금방 자식이 와서 "아버지!" 하니까 "응" 하면서 그 마음이 금방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말도 행도 뜻도 그냥 아버지죠. 그랬는데 아내가 들어오면서 "여보! 왜 늦게 들어왔어?" 하면서 당당한 남편 구실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툼입니다, 찰나고요.

그래서 나툼이라는 이 자체가 바로 열반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죠. 그래서 나툼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생들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들이나 생각이 없는 중생들이나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나 화탕지옥, 오간지옥에 있는 중생들, 즉 말하자면 현재의 중생들을 전부 한데 합쳐서 모두 응해 주시고 모두 받아들여 안아서 녹여 주시면서 내가 그가 될 수 있고 그가 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폭넓은 바로 그런 분을, 어떠한 것을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는 그 대도를 통달하신 그런 분을 바로, 그것도 이름해서 열반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이 그렇게 하느냐? 그 이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뉴욕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묻더군요.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하고 간단하게 말을 해요. 물론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들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높으신 큰스님 같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시원한 물이나 한 그릇 먹고 가게." 이렇게 해도 좋지만 나는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무척 더웠습니다. "댁이 여기 더운 데 있다가 집에 돌아가서 아주 목이 마르고 더워서 죽겠다면,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물을 따라서 벌컥벌컥 들이키고 난 뒤에야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도 있는 거지 목이 말라 죽겠어서 물 마실 때에 '살기 위해서 먹나, 먹기 위해서 사나?' 이런 생각이 있습디까?" 하니까 없었대요. 허허, "똥이 급하게 마려운데 생각을 할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없대요. 그거와 같다고 그랬어요.

부처님 법에서 한 찰나에 자기를, 자기 몸뚱이를 구덩이에 넣을 수도 있고 한 찰나에 구덩이에서 빼낼 수도 있는 게 한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에서 즉시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찰나 생활, 나그네 생활입니다. 크게 생각하면 나그네 생활, 또 우리 지금 현재로 생각한다면 찰나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찰나 찰나지 묶여져서 그대로 있습니까? 고정되게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모두가 공했느니라.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마음조차 공했느니라." 하셨습니다. 고정되게 듣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먹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보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가고 오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나 공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생활에서 톡톡하게 알아야겠다는 얘기죠. 우리를 떠나서 부처님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죠. 남이 못하더라도 내가 전에 몰라서 못할 때 모습으로 봐라. 남이 마구니라도 내가 마구니를 건지려면 마구니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마구니를 건질 수가 있기에 그 또한 둘이 아니다. 바로 나인 것이다. 수억겁 광년을 거쳐 나올 때에 얼마나 쫓기고 쫓으면서, 살 양으로 발버둥이치면서 진화가 됐던가. 그렇다면 그 피나는 세월을 겹겹이 겪어 온 우리들의 지혜로운 마음을 그대로 우리는 지혜롭게 행하고 말하고 뜻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이 포항 지역도 발전이 될 것이며 뿌리를 지킬 것이며 또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선맥이, 저 물이 끝없이 깊이 흘러가듯 맥이 흐를 게 아닙니까?

이 세상의 나무들이 가을이면 잎이 떨어지듯이, 인간 몸이 떨어지는 게 잎 떨어지는 거와 한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앙당하게 가지만 남아서 그 추운 겨울에 춥게 눈을 맞아 가면서 바람에 치여 가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나무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역시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 지역을 지키면서, 이 지역에서 바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생활, 자유스러운 생활, 또는 봄이 오게끔 할 수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지금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반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로만 열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같이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알아서 머리에다 넣고 바로 꺼내 쓰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학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죠. 경을 이리 꿰고 저리 꿰고 아무리 꿰맞추고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그것은 강설이지 바로 법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천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열반이 아니며, 나툼이라는 이름이 나툼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여러분 한테 방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생활에다가 비유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엄청난 불가사의한 법이, 묘법이 포함돼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법이다' 이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인공에 그 모든 것을 놓고 자기를 발견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기를 발견해 놓고서 그때서부터 실험을 하면서 체험하면서 진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면서 우리가 그 도리를 안다면 다른 국토에서, 즉 다른 혹성에서 내 집으로 찰나에 들었다가 찰나에 나고 합니다. 그건 왜? 둘이 아닌 까닭이죠. 예를 들어서 달세계나 태양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이러더라도 내가 태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태양을 나한테다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죠.

(다음 호에 계속)

> 좋은 나무가 있다면 고목이 있고
> 큰 나무가 있다면 작은 나무가 있고
> 높은 산이 있다면 낮은 산이 있고
> 그래서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진리이며 도이며 길입니다

※위 법문은 1989년 11월 11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종 정 무진본 정화당
총무원장 혜봉당 무공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근근히 이어오다 종파분열(宗派分裂)로 인해 불교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등지는 현재의 처함에 있어, 제종통합(諸宗通合)으로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를 이루고자 네 가지 큰 서원(四弘誓願)과,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스님, 법사, 포교사님을 널리 모십니다.

※ 입종서류
◆ 본종 소정양식(입적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4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제1회 장애자 가정돕기
지원금 전달 대법회

대한불교선교종 경남 종무원에서는 창종이념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과 불국정토 구현을 위하여 경남 밀양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장애1급, 2급),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1회 장애자 가정돕기 지원금 전달 법회를 아래와 같이하고자 합니다.

이웃과 함께 훈훈한 마음을 나누기 위하여 대한불교선교종은 "상구보리 하화중생" 근본이념의 덕목을 삼고 실천행군하며 자비를 베푸는 대한불교선교종 경남 종무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으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 법회일시 : 불기 2553년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 법회장소 :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88-9번지 대한불교선교종 경남 종무원
■ 대 상 자 : 밀양시 거주자 1급, 2급 장애인

대한불교선교종 경남종무원 각 교구 스님 및 교임 일동
대한불교선교종 경남 종무원장 법 우 합장
문의 : 055)352-3186. 354-1357

암,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신장,
아토피, 기미, 검버섯
그리고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

불보살님의 가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하셔서 상담하십시오.

경남 합천군 대명면 장단리 산 67
대한불교조계종 청강사 혜광 합장

문의 055)932-5706
010-9506-5706



불자 세상보기

이병두
칼럼니스트

허물을 고치는 데 주저하지 말라

지난 9월 6일 북한쪽에서 아무런 통보 없이 방류한 물 때문에 임진강에서 여러 명이 사망 · 실종하는 사고가 일어나 댐 관리 책임자가 구속되고,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06년 4월 서울의 한 사격장, 권총에서 나온 불티가 사격장 바닥에 떨어져 화약으로 튀어 옮겨 붙으면서 불이나 종업원 1명이 숨지고 일본인 관광객 3명을 포함해 6명이 크게 화상 등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때도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곧바로 전국 사격장의 화재 예방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3년 반밖에 안 된 1월 15일, 이번에는 부산의 실내 사격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0분 만에 일본인 관광객 7명이 포함된 10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에도 경찰과 방재 당국은 부랴부랴 전국 118개 사격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래도 이번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실내 사격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3년 반 전보다 조금 진전된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몇 차례 대형 사고를 당하고 거기다 외교 마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일어난 뒤에야 "관련 법령을 정비, 보완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우리나라이니 참으로 딱한 노릇 아닌가.

어느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든지, 정부는 변함없이 '서민 생활 안전'을 입버릇처럼 내세운다. 곳곳에 정부 광고가 내걸리고 TV에서는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는 홍보 영상을 끝없이 내보낸다. 그런데 이런 말을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 왜? 너무 자주 속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 안전을 책임져줄 것이라 기대하면 낭패를 당한다. 그러니 나와 가족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 점점 커져간다. 이게 복지국가이고, "서민을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모습인지 정말 한심스럽다.

옛날 말에 '개과불린(改過不吝)', "허물을 고치는 데에 주저하지 말라"고 했다. 이제 중앙과 지방 정부 청사마다 이 말을 크게 써서 걸어놓고, 행정의 최고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복지 국가' ? '서민 생활 안정'을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으니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는 다짐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의 책임은 그렇다 치고, 자칫하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기본적인 방재 시설도 갖추지 않고 돈을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이처럼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는 실탄 사격장 사업가들의 책임은 또 얼마나 큰가?

부처님 당시 상수 제자 중 한 분인 사리풋타가 옛 친구인 다난자니(陀然)가 "계를 어기고 사람들을 속이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 잘못을 지적하자 친구는 "나는 세속에 살면서 부모를 모시고 처자를 보살펴야 하오. 국가에 세금을 내야하고, 조상님들 제사도 지내야 하고 사문과 바라문에게 보시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주시오."라며 목적이 정당하니 수단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뜻을 밝힌다.

"어쩐 사람이 부모를 위하느라고 악행을 했다고 하세. 처자나 조상을 위해 악행을 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느라고 악행을 하고, 보시를 하기 위해 악행을 했다고 하세. 그렇다고 그가 지은 죄가 감해질 수 있겠는가?" (<중아함> '범지타연경(梵志陀然經)')

이것이 사리풋타가 옛 친구를 위해 해준 우정어린 해답이다. 실탄 사격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목적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해줄 수 없다"는 오랜 격언을 다시 돌아보기 바란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11월의 테마-시간

몇몇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있어 "시간이란 무엇인가"를 물었다.

"시간이란 유수와 같다" ,"호흡이다" "변화다" 등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시간이란 관념은 사람들에게 있어 각기 다르다. 한 가지 공통점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한다는 점이다.

내가 이 글을 빌어 말하려는 것은 시간 관리에 대한 기술도 아니며, 시간을 잘게 쪼개어 심지어 휴식시간에 조차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현재의 시간에 대한 관념을 돌아보고 시간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다.

이미 우리들은 모두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간은 우리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항상 자신에게 부족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늘 마음 한 구석에 두고 꺼내었다 집어넣었다 한다는 점이다.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가끔씩 느림을 동경하고, 너무 여유로운 사람은 이러다 경쟁에 뒤떨어지지 않을까란 생각에 계획과 관리를 돌아보기도 한다. 다른 한 가지는 인습적인 사고에 순응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고 선택하는 것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선택해 왔고 그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그 선택에 대한 믿음과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옛말에 "7일 후에 잘 먹으려다가 굶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일주일 후에 잘 먹으려고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는다는 것이다. 마찬 가지로 시간과 관련된 다음의 말은 앞선 예와 비슷하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각각의 연령 대에 좀 더 힘써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일어났었던 사건들에 대해 가끔씩 후회를 하거나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여기에는 그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난 보낸 뒤에,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를 이루지 못한 순간에… 불교에서는 현상세계의 모든 것은 항상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무상(無常)을 말한다.

이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려는 것도 아니며,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거나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진정으로 아낌없이 사랑하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확고하게 믿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늘 새롭기에 우리의 삶은 권태로울 수 없으며, 늘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을 다음으로 또 그 다음으로 미루어 왔다. 걸을 수 있을 때! 오늘은 열심히 걸어야겠다.

강향숙 상임연구원
한국불교선리연구원



社說

국민 행복 위한 포교결집대회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부처님께서 60명의 아라한에게 명한 '전법선언'이 2600여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국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다시 울려퍼졌다. 11월 14일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한 제1회 포교결집대회에서는 60명의 아라한이 1만2000여 보살로 나투어 '포교실천결의문'을 낭독하는 현대판 전법선언식이 봉행됐다.

포교원 별원화 이후 최대의 포교역량을 보여준 이번 대법회는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이 발원한 '불교중흥'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다음 과제는 이러한 대회가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회향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포교사업을 점검하고 전국적인 사찰신도회를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불자를 양성하는 데 더욱 심혈을 쏟아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전법선언은 불자가 아닌 무종교인, 이웃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만큼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의 법음(法音)을 들려주는 불교로 거듭나는 사부대중의 노력도 절실하다.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수승한 포교임을 인식하고 자각각타(自覺覺他)의 대승보살행을 쉬지 말아야 한다.

초기불전연구원의 역경불사

모든 나무에 뿌리가 있듯이, 2600여 년에 달하는 불교사 전개에도 근원이 있다. 뿌리를 거부하고 나무가 살아남을 수 없듯이, 근원을 모르는 불교는 이 시대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 불교 만대의 뿌리요, 그래서 모든 불교의 표준이 될 수 밖에 없는 부처님의 원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빠알리 삼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빠알리 삼장의 한글 완역을 발원하며 2002년 설립된 초기불전연구원이 <디가 니까야(장아함경)>와 <앙굿따라 니까야(증일아함경)>에 이어 최근 <상윳따 니까야(잡아함경)>를 완역하는 등 불과 7년만에 24권의 초기불전을 번역 · 출간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초기불전연구원은 내년 5월 <맛지마 니까야(중아함경)>를 번역해 4부 니까야를 모두 완역하고, 2015년까지는 율장(위나야 삐따까)과 논장(아비담마 삐따까), <빠알리-한글 대사전>도 출간할 예정이어서 초기불전 역경사업이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초기불전연구원의 역경불사는 동국역경원이 역경사업의 빈틈을 메꿔주는 동시에 기존 한역 경전의 오역을 바로잡아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불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원음을 통해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줄 것으로 판단된다. 지도법사 각묵 스님과 원장 대림 스님의 열정과 초기불전을 공부하며 위빠사나를 수행하는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후원으로 이뤄낸 이러한 역경불사는 종단의 지원 없이 자발적인 원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부처님 원음이 우리 말과 글로 이 땅의 자손만대에 전승돼 한국불교의 튼튼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종단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삼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황학산 대성사
• 주 지 : 송혜원 (송부섭)
• 주 소 : 경북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488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141회 3000배 용맹정진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긍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면 100% 성취된다.

■ 날 짜 : 2009년 11월 28일(토) 저녁 9시~
2009년 11월 29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 : 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 2개, 위생비닐장갑 1개,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 아프신분(팔관애원 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 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장 소 : 분당 하얀마음선원
☞ 전철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네비게이션에 하얀마음선원 치세요.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 행 중 심 교 육 도 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글로코에이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중에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5 / F. 02)737-0696